

# 한중관계연구소

2017년도

## 한중역사 관련 신진학자 워크숍

- 일 시 : 2017년 12월 4(월) 14:00~18:0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중회의실





## 일 정

14:00~14:10	환영사: 김현숙 한중관계연구소장	
시간	발표	주제(학위정보)
14:10~14:30	조원진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세종대, 2017.8)
14:30~14:50	오진석	삼연문화 및 삼연문화와 한반도 문화 교류의 고고학적 연구(吉林大, 2017.6)
14:50~15:10	선봉조	濟·麗同盟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2017.8)
15:10~15:30	기경량	高句麗 王都 研究(서울대, 2017.2)
15:30~15:50	정동민	고구려와 수 전쟁 연구(한국외대, 2017.8)
15:50~16:10	휴식	
16:10~16:30	이선애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고려대, 2014.7)
16:30~16:50	오기승	13-14世紀 麗蒙接境地域 高麗人 勢力 研究(중앙대, 2017.8)
16:50~17:10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고려대, 2017.2)
17:10~17:30	한상준	한국전쟁이후 북중관계가 위기로부터 완화됐던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北京大, 2017.6)
17:30~18: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 목 차

조원진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	1쪽
오진석	삼연문화 및 삼연문화와 한반도 문화 교류의 고고학적 연구	22쪽
선봉조	濟·麗同盟 研究	29쪽
기경량	高句麗 王都 研究	44쪽
정동민	고구려와 수 전쟁 연구	58쪽
이선애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75쪽
오기승	13-14世紀 麗蒙接境地域 高麗人 勢力 研究	87쪽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04쪽
한상준	한국전쟁이후 북중관계가 위기로부터 완화됐던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115쪽



#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sup>1)</sup>

조원진

- I. 서론
- II. 고조선의 시간과 공간
- III. 요동지역 고조선의 초기문화와 교류
- IV. 고조선의 발전과 西周·春秋 齊와의 대외관계
- V. 고조선의 세력 확대와 전국 燕과의 전쟁
- VI. 통일제국 秦의 침입과 고조선의 항쟁
- VII. 위만조선의 발전과 漢과의 대외관계
- VIII. 결론
- IX. 향후 연구 계획

## I. 서론

고조선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이다. 고조선의 국가성립 경험과 대외관계는 후대국가들의 모델이자 바탕이 되었다. 중국문헌의 고조선 기사는 대부분 고조선과 중원국가의 대외관계에 관한 것이다. 비록 단편적인 기사지만 이를 통해 시대에 따라 주변국가와 교류를 하고 전쟁을 하며 발전해가는 고조선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史記』朝鮮列傳 등 중국문헌의 기사를 분석하여 고조선의 대외관계를 다룬 연구는 꾸준히 나왔다. 특히 고조선 서변 변화에 대한 고증(서영수, 1988 ; 1999), 춘추 제와의 교류(박준형, 2004 ; 2006 ; 2013), 전국시대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조원진, 2017,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고조선과 燕·齊의 상호관계 검토(박대재, 2006), 화폐유적을 통한 교역 연구(박선미, 2000 ; 2008 ; 2009) 등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중국문헌에 고조선은 기자조선설로 기록되거나 신속, 조공, 외신이었던 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윤색된 사료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여 고조선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파악하고 그 영역도 압록강 이남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苗威, 2006). 현재 국내학계에서 기자조선은 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조선은 어떤 조선이며 중원국가와 구분되는 어떤 독자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했다.

고조선은 중원국가와는 구분되는 천하관과 물질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三國遺事』 등의 국내문헌은 중국문헌에 비해 편찬연대가 늦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대외관계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문헌은 중국문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고조선의 정체성과 천하관, 내적 발전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또한 고조선의 독자적인 문화는 물질문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인돌이나 비파형동검 등의 물질자료는 고조선이 중원국가와는 문화적 출발이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고조선의 정체성과 내적발전을 염두해두며 시대별로 고조선의 발전하는 모습이 대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고조선의 시간과 공간

먼저 고조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본래 고조선의 계보는 단군왕검으로부터 시작하는 고유한 전승이었다. 그런데 고조선이 패망하고 기자전승이 확대되면서 조선의 왕계가 기자의 후손으로 조작되어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三國遺事』는 단군이 1,500년 동안 평양과 백악산 아사달에서 조선을 통치하다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조선설의 영향이 커지면서 결국 단군의 통치를 장당경도읍 이전 시기까지로 끊고 箕子朝鮮時代를 중간에 삽입하여 『帝王韻紀』와

같은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조원진, 2009). 즉 선진문헌에 나타난 조선의 실체는 왕검조선(고조선)으로 불리는 토착세력으로 壇君王儉이 세운 ‘王儉朝鮮’을 가리킨다. 이후의 ‘위만조선’과는 구분되며 『帝王韻紀』의 ‘전조선’과 ‘후조선’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조원진, 2014). 본래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한 왕검조선(고조선)만을 일컫는다. 하지만 위만조선은 왕검조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조선사의 연장선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

고조선이 존재하였던 시간 범위를 살펴보면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고조선이 등장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三國遺事』 등의 국내문헌을 주목해야 한다(김정배, 2000).

국내문헌에 나타난 고조선 건국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이 환웅으로 대표되는 이주세력과 웅녀로 대표되는 토착세력이 결합하여 건국된 국가라는 것이다.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흔히 ‘요임금시대 개국설’이 알려졌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한다. 고조선의 건국연대에 대해 추정해볼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三國遺事』, 『帝王韻紀』의 전통적인 ‘요임금시대 개국설’이다. 둘째, ‘위서 편찬 연대설’이다. 『三國遺事』가 인용한 『魏書』에서는 『魏書』가 존재하던 시기를 전후해서 2천 년 전이라는 또 다른 연대를 제시하였는데 기원전 18세기~기원전 17세기 혹은 기원전 15세기라는 연대가 나온다. 셋째, 고조선의 하한연대에서 전체 역년을 거꾸로 올라가 건국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준왕을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인정한다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기원전 194년 경을 하한연대로 볼 수 있다. 고조선의 전체 역년은 기자조선설의 영향을 받은 약 1천년설(혹은 약 1,200년)을 제외하면 『標題音註東國史略』의 1,500년설, 『三國遺事』의 1,908년설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각각 기원전 2,102년, 기원전 1,694년이라는 연대가 나온다. 넷째, 『三國志』 濊傳은 준왕이 箕子 이후 40여세를 지나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준왕이 왕이

되었을 무렵으로 陳勝의 난이 일어난 해인 기원전 209년에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아 1,200년(30×40)을 올라가면 기원전 1,409년이라는 연대가 나오는데 대략 기원전 15세기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조선의 정확한 건국연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일단 문헌에 나타난 건국연대는 이르게 보면 기원전 20세기 전후이며 늦게 보아도 기원전 15세기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공간범위를 살펴볼 때 중심지에 대해서는 크게 평양설, 요동설, 이동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다(서영수, 1988). 이동설은 ‘요동-평양설’과 ‘요서-요동-평양설’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주로 문헌자료를 근거로 주장된다(서영수, 1988 ; 1999 ; 노태돈, 1990 ; 이종욱, 1993). 반면 최근에는 고고학 자료에 의해 후자의 입장에서 조양지역이 초기 도읍지로 주목받고 있다(임병태, 1991 ; 이청규, 1993 ; 2005 ; 박준형, 2012 ; 오강원, 2013 ; 오현수, 2014 ; 조진선, 2014 ; 이후석, 2016).

문헌자료를 통해 고조선의 중심지를 살펴본다면 『三國遺事』에서 일연은 주석에서 고조선의 도읍지를 평안도나 황해도로 보았다. 반면 『帝王韻紀』를 보면 요동지역을 중국과 구별되는 지역으로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三國遺事』 古朝鮮條에서 강조된 곰과 관련된 지명을 통해 중심지를 추정하기도 한다. 즉 고조선의 중심지 위치를 만번한과 관련하여 요동 해성현의 서남쪽과 개평현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0). 여기에 개평 서남쪽을 요나라 이래로 熊岳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기도 한다(서영대, 2001).

중국문헌인 『史記』의 應劭 주석에 의하면 遼東郡 險瀆縣에 조선의 옛 도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동지역을 고조선의 초기 중심으로 비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어 왔다(서영수, 1988). 『戰國策』, 『山海經』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지명으로 遼東, 列陽이 등장한다. 이러한 지명 또한 고조선의 도읍이 본래 요동지역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의 도읍은 진개의 침입을 받기 전에는 요동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말기 도읍은 「

낙랑군 호구부」(손영종, 2006 ; 윤용구, 2007)의 발견으로 서북한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의 도읍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역을 보면 『三國志』는 『魏略』을 인용하여 전국 연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서쪽영역을 상실하는 기사가 있다. 당시 고조선이 2천리를 상실하고 천산산맥 서쪽의 지명인 만번한을 경계로 했다면 본래 고조선의 영역은 서쪽으로 대릉하유역을 포함했음을 알 수 있다.

‘요서-요동-평양’설의 경우 고조선의 초기 도읍을 요서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확실하지 않고 요서지역을 중심지로 볼 수 있는 고고학 자료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한반도지역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물질자료의 전파를 보면 요서지역보다는 요동지역이 일찍부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확인된다. 특히 고조선의 물질문화 중에서 무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동이 가능한 유물과는 달리 무덤은 보수성이 강하고 축조집단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하문식, 1999 ; 2016 ; 오대양, 2013). 따라서 일찍부터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많은 영향을 주었던 고인돌·석관묘의 기원인 요동지역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로 주목된다.

요동지역에서 고인돌은 이미 기원전 15세기에 조성되고 있었으며 상한연대는 기원전 20세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하문식, 1999). 고인돌은 기원전 1천년기에도 토광묘 계열인 정가와자유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주무덤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요동지역의 기원전 2천년기의 문화 요소들은 이후 쌍방문화로 연속성있게 이어지는 점이 확인된다(趙賓福, 2009). 기원전 2천년기의 초기 청동기문화를 고조선의 문화로 보아야 할지 고조선의 선행문화 혹은 배경문화로 보아야 할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선고조선문화와 고조선문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여기서는 큰 틀에서 요동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부터 고조선문화로 파악하기로 한다.

한편 고조선 내부의 발전상은 국내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三國遺事』에

는 세 차례에 걸친 고조선의 도읍이동 사실이 실려 있다. 고대국가에서 도읍의 이동은 큰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은 세 차례에 걸친 큰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조선의 도읍이동 기사는 고조선의 팽창과 쇠퇴가 암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김성환, 2001).

고조선의 왕호는 ‘檀君-儉-王’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고조선의 발전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 즉 고조선의 왕호는 처음에는 제정 일치시기의 ‘단군’에서 나중에 제정이 분리되며 ‘검’이라 불리는 통치자가 등장한다(서영수, 1988 ; 1999). 고조선 건국자의 이름은 문헌에서 ‘王儉’ 혹은 ‘儉’으로 나타난다(조원진, 2015). 이는 본래 ‘(王)儉’이라는 고조선 건국자의 호칭이 나중에 고조선 전체 통치자를 일컫는 칭호로도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후에 ‘왕검(함)성’처럼 도읍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신채호, 1948). 그리고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말 ‘王’을 칭하며 연과 경쟁한다. 이때의 고조선은 명실상부한 고대국가의 단계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종전의 비파형동검문화가 세형동검문화로 바뀌고 주 무덤도 기존의 고인돌과 석관묘에서 토광묘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지배자의 호칭 변화는 고조선 내부의 변화와 발전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고에서는 초기 고조선의 범위를 기원전 2천년기 요동지역에서 찾고자 하며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큰 틀에서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I. 고조선의 초기문화와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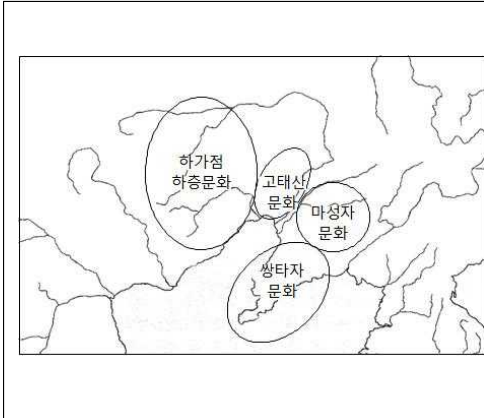
초기 고조선 문화는 기원전 2천년기의 요동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2천년기 요동지역은 요북지역에는 동굴무덤이, 요남지역에는 고인돌과 돌무지무덤이 조성되었다. 특히 대형 탁자식 고인돌은 농경사회의 발전과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등장을 말해준다. 고인들은 동북지역과 한반도지역에 주로 분포하여 중원문화와 구분되는 고조선의 독특한 무덤양식이다. 이시기 요동지역의 무덤은 형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화장 같은 장례풍속과 돌을 사용한 무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대련지역의 돌무지무덤은 산동지역의 산동 용산문화-악석문화와 교류한 흔적이 발견된다. 이러한 교류는 뒤에 고조선이 산동지역에 위치한 齊와의 교역이 기록된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무덤형식의 변화를 보면 고인들은 기존의 탁자식 고인돌에서 새롭게 개석식 고인돌이 나타나며 동굴무덤은 석관묘로 발전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개석식 고인돌과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미송리형토기 등이 발견된다. 이것은 사회 발달에 따라 주 무덤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이들 무덤은 길림지역과 한반도지역으로도 전파된다. 또한 요동지역은 미송리형토기라는 공통적인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슷한 문화를 누리던 집단들이 점차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후 이 지역은 ‘조선’이란 정치체로 중국문헌에 등장한다.

기원전 2천년기의 고조선은 초보적인 복합사회로 단군으로 대표되는 제정 일치사회로 보인다. 『三國遺事』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의 건국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주한 선진문명을 가진 세력과 토착세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단군신화는 주변국가와 구분되는 고조선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단군신화는 桓因으로부터 시작하는 천신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필영, 1981). 이러한 천신사상은 후대국가에도 영향을 준다(김성환, 2001).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환웅과 용녀의 혼인에서 알 수 있듯이 화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민과 토착세력이 화합하여 나라를 건국한 경험이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고조선의 건국연대나 존속연대, 왕들의 계보에 대한 자료를 보면 1,500년 혹은 1,980년이라는 연대와 40세손이라는 계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꽤 오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후에 고조선인들은 고조선의 기원을 기원전 2천년기로 소급하여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1> 기원전 2천년기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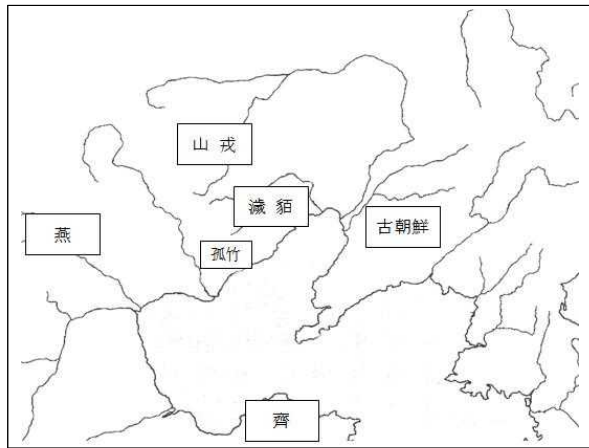
<지도2> 기원전 1천년기의 문화



#### IV. 고조선의 발전과 西周, 春秋 齊와의 대외관계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2천년기 말에 이르러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요북지역과 요남지역은 동질성 강한 문화로 묶어지며 기원전 1천년기에 쌍방문화로 이어진다. 쌍방문화는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요동지역의 문화로 비파형동검·미송리형토기·고인돌 및 석관묘·돌무지무덤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조빈복, 2009 ; 오대양, 2015). 이 시기 대릉하 유역에는 십이대영자문화, 서북한지역에는 팽이형토기문화가 있었다. 이들 세 문화는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동일한 비파형동검문화권에 포함된다(오강원, 2006 ; 박준형, 2012). 특히 당시 십이대영자문화와 쌍방문화는 같은 문화권에 속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두 문화가 더욱 밀접해지는 것은 쌍방문화 후기에 속하는 정가와자유형 단계에서이다.

<지도3> 기원전 7세기의 국제정세



기원전 7세기 중반에 들어오면 고조선은 제와 문피교류를 한 기록이 나타난다. 『詩經』 韓奕에는 이보다 앞서 기원전 9~8세기에 追와 貊을 다스린 韓侯가 서주왕실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管子』에서 고조선과 제의 문피교역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韓侯가 문피를 바친 기사와도 비슷하여 양자의 관련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추.맥을 다스리고, 준왕이 스스로 韓王이라 부른 사례를 볼 때 한후를 고조선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여기서 한후의 선조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한후와 서주의 관계는 이전 시기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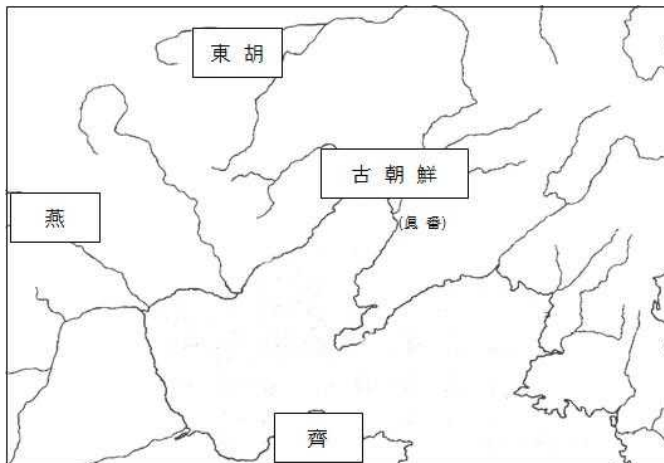
고조선과 제의 교류를 보면 『爾雅』에는 “東北의 美者로는 斥山の 文皮가 있다.”고 했고 『爾雅正義』에는 “斥山은 지금의 登州府 榮成縣 남으로 120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여 의무려산 동쪽의 요동지역을 통해 제와의 문피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당시 고조선과 제는 ‘8천 리’가 떨어진 원거리 교역을 했다. 따라서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산동성에는 쌍방문화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다. 산동반도 지명에 ‘石棚’이 20개에 이르며 그 외에도 산동지역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 청동도끼, 석관(곽)묘 유적은 요동지역 쌍방문화의 무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박준형, 2013). 결국 『管子』에 나타난 齊와의 교류한 고조선의 실체는 산동지역과 교류 흔적이 발견되고 문피의 교류지로 기록에

남아 있는 요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춘추시대 제와 교류한 조선은 요동지역의 쌍방문화이며 제가 고죽을 정벌하고 접한 예맥은 십이대영자문화로 파악되는 것이다. 조선은 제와 해상교류를 통해 문피를 교류한 구체적인 정치적 실체이며 예맥은 제 입장에서는 북벌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세력으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 고조선이 멀리 떨어진 제와 원거리교역을 한 것은 고조선 내부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요동지역이 쌍방문화라는 동일한 문화로 묶어지고 강상무덤과 같이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는 신분격차와 발달된 청동기를 보여주는 유적이 발견된다. 이 시기 고조선의 지배자 호칭은 제정일치사회의 ‘檀君’에서 정치적 지배자의 성격이 강한 ‘儉’으로 바뀌어 이해된다(서영수, 1988 ; 1999). 이 시기는 산동지역의 동이세력이 점차 중원세력에게 밀려나던 때였다(長銀, 2010 ; 김정열, 2014). 고조선은 이미 이전부터 산동지역의 동이세력과 교류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 시기에는 중원국가인 齊와 교류 하게 된 것이다.

## V. 고조선의 세력 확대와 전국 燕과의 전쟁

<지도4> 기원전 4세기말의 국제정세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 성립한 심양지역의 정가와자유형은 당시 사회가 더욱 발전된 복합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려준다(오강원, 2013 ; 이후석, 2017).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고조선은 이후 요서지역과 요동지역을 포괄하는 세력으로 기원전 4세기말 전국 연과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연은 지리적 위치상 남쪽에 齊라는 강국과 인접해 있었다. 따라서 연은 북방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서지역도 동대장자유형에서 보듯이 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주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후석, 2016).

『三國志』는 『魏略』을 인용하여 조선의 왕을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주 왕실을 받들기 위해 연을 치려고 했다고 했으나 칭왕을 한다는 것은 주 왕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고조선이 칭왕을 하고 주 왕실을 받든다는 것은 모순된 말로 기자조선설의 영향으로 후대에 윤색된 것이다. 『三國志』 濊傳은 준왕이 기자의 40대 손이라 기록했는데 기자와 연결시킨 것은 후대에 윤색이지만 여기서 고조선은 40대라는 구체적인 왕 계보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건국자는 기자가 아니라 단군왕검일 것이다. 고조선은 하늘의 후예인 단군왕검의 후손이라는 자신들만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원은 40대라는 인식처럼 기원전 2천년기로 올라가는 오랜 시기까지 소급시켰을 것이다. 고조선의 칭왕은 이러한 자신들의 당당한 천하관과 국력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고조선의 천하관과 국력을 뒷받침할 만한 영역과 통치체제를 살펴본다면 고조선이 연에게 서방 2천 리를 상실했다는 기록은 고조선의 영역이 넓었음을 보여준다. 고조선이 이러한 넓은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치체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의 관직이나 통치체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고조선의 관직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부와 박사가 있다. 고조선 말기에 준왕은 (위)만이 망명하자 耒를 하사하고 1백 리의 땅을 봉해준 사례가 있다. 여기서 耒를 하사한 것은 고조선의 왕이 제후를 봉하는 절차로 보인다. 고조선의 왕은 많은 후국들을 거느린 나라인 것이다(윤내현, 1986 ; 윤상열, 2007). 당시 고조선은 왕을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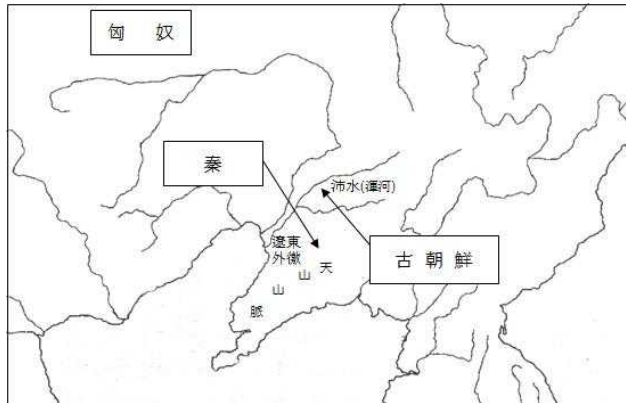
로 대부 등의 관직이 있었고 넓은 영역을 후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렸다고 볼 수 있다.

연의 침략 의도에 대해 고조선은 선제공격을 계획하지만 대부 예의 주선으로 양국은 전쟁을 멈춘다. 이는 당시 조선이 연에 못지않은 국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뒤에 “조선이 2천 리의 땅을 잃고 마침내 약해졌다.”는 기록은 진개에게 패하기 전까지 조선이 그만큼 강한 나라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燕이 왕을 칭하고 침입하려는 사정을 알고 신속히 대처하여 大夫 禮를 보내 전쟁을 막은 것도 주목된다. 이는 당시 중국 내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고도의 정보수집 능력과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수준 높은 외교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고조선은 이후 강성해진 연의 공격을 받는다. 고조선과 연의 전쟁 결과에 대해 『史記』 朝鮮列傳은 “진번.조선을 복속시키고 장새를 설치했다.”고 했으며 『魏略』은 “서방 2천 리를 빼앗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고 했다. 『史記集解』에는 진번이 요동군 번한현에 있다고 했고, 『漢書』 地理志에서는 번한현이 沛水 부근으로 나온다. 당시 연의 세력은 천산산맥 서쪽까지 미쳤으며 이 지역을 『三國志』는 『魏略』을 인용하여 만번한으로 기록했고 『史記』는 진번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연의 상황을 본다면, 남쪽에 제라는 강적이 존재했다. 따라서 연은 전쟁을 최대한 단기간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연은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공격목표로 삼았을 것이다. 물질자료의 양상에서 보면 당시 세형동검문화의 중심거점은 심양-요양 일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시 고조선의 중심은 의무려산맥 이동과 천산산맥 이서의 하요하 평원지대인 요동 서부지역으로 보인다(이후석, 2016). 따라서 연은 고조선의 중심인 요동 서부지역을 최종 공격목표로 삼았고 중심지를 상실한 고조선은 평양지역으로 중심지를 옮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VI. 통일제국 秦의 침입과 고조선의 항쟁

<지도5>기원전 3세기말 고조선의 강역



고조선은 부왕대 秦이라는 통일제국과 마주해야 했다. 『鹽鐵論』에 의하면 진은 통일후 “동쪽으로 滌水를 건너 朝鮮을 멸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조선을 멸했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고조선이 秦에게 일부 영토를 빼앗긴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史記』의 기록을 함께 보면 秦은 패수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하고 ‘遼東外徼’를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遼東外徼’는 후에 위만이 머물렀던 ‘秦故空地上下障’과 관련된다. 여기서 진과 고조선의 경계로 나오는 滌水는 나중에 한과 고조선의 경계였던 涘水와 동일한 강으로 이해된다(서영수, 1999).

여기서 진의 침입 이전에 양국의 경계는 패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조선이 진개 침입 이후 천산산맥 이동으로 후퇴했으나 연이 멸망할 당시 천산산맥 이서에서 패수 이동의 영토를 회복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은 제까지 멸망시켜 통일을 완성한 이후 전성기 연의 영토였던 요동 지역 수복을 위해 고조선을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秦에게 나라를 잃은 유이민이 조선지역으로 망명한 것도 秦이 고조선을 침공한 이유로 보인다.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진과 관련된 동검 및 동과가 다수 출토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요동과 압록강 주변에서 趙와 관련된 무기류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趙의 멸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趙는 燕과 정치·군사적으로 밀

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秦에 마지막까지 대항하던 국가였다. 따라서 조 유민이 연과 인접한 고조선지역까지 흘러들어와 동검.동과 등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陳勝 등이 봉기하자 燕.齊.趙 유이민이 조선 땅으로 피난하여 온 자가 수만 명이었다는 『三國志』 藏傳의 기록도 참고된다. 趙 관련 유물이 요동지역과 압록강에서 발견되는 것은 진의 세력 진출이라기보다는 유이민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기류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秦이 고조선을 공격하면서 남긴 유물이다. 魏 啓封戈와 같은 무기 역시 통일 후 진의 군대가 사용한 유물이다. 또 다른 경우는 秦에게 나라를 잃은 전국계 유이민이 남긴 것이다. 이들은 일종의 패잔병이기 때문에 무기류를 가지고 있었고 고조선은 나중의 사례와 같이 이들을 서쪽 지역인 요동지역에 정착시켜 秦의 침입을 막게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전쟁후 고조선과 진의 경계를 살펴보면 『淮南子』에서 진의 장성이 遼水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된 것은 진이 요동 전체를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진이 혼하로 추정되는 패수를 건너 고조선을 침공했으니 요동으로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 전쟁 후 양국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천산산맥과 압록강이 있다. 진 관련 유물은 압록강유역에도 발견된다. 그러나 무기류의 경우 趙 등의 유이민이 가져온 것이거나 진과의 전쟁 산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진은 체계적인 요동군을 설치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나 현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서한 요동군의 속현에 대해서는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의 기록인 『漢書』 地理志를 통해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진대-한고조대(기원전 196)-위만조선 멸망 후(기원후 2)’라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기록된 요동군 18현은 천산산맥을 기준으로 이서에 15현, 이동에 3현으로 비정된다. 이보다 200년 앞선 기록인 『史記』에 의하면 한초에 요서.요동군은 위만조선 멸망 후에 비해 3현이 부족하다. 어느 군에서 속현이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만조선 멸망 후 고조선의 요동지역이 요동군에 편입되었다고

본다면 이를 계기로 요동군이 18현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진대의 요동군 속현은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진말한초 고조선이 서쪽 영토를 수복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조대에 비해 진대의 요동군 속현은 더 많았거나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속현 수가 같다면 한초에 현 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서쪽으로 이치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진의 진출은 천산산맥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요동군 설치도 천산산맥 서쪽 15현 설치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조선과 진의 관계를 본다면 『三國志』는 『魏略』을 인용하여 부왕이 복속을 약속하였으나 끝내 조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고조선이 진과 전쟁을 하면서 신속을 약속하여 전쟁을 그칠 명분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史記』東越列傳에는 진이 중국을 통일하고 민월왕과 월의 왕위를 폐하여 군장으로 삼고 그 땅을 민중군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조선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겠으나 당시 왕호의 공식적 자칭은 용납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김한규, 1982). 고조선의 부왕이 진에 복속을 약속한 것은 외교적으로 명분을 세워주고 독립국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왕호를 계속 사용했으나 대외적으로는 왕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志』滅傳에는 “朝鮮侯 準이 참람되게 왕이라고 칭하였다.”고 기록했다. 고조선이 왕을 칭한 것은 전국시대로 보이기 때문에 준왕대에 와서야 왕을 칭한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준왕 이전, 즉 부왕대 진과의 대외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왕호를 쓰지 못했던 사정을 알려준다. 그러나 고조선은 진이 혼란스러워지자 곧바로 반격에 나서 잃은 영토를 수복한다.

## VII. 위만조선의 발전과 漢과의 대외관계

진말한초 고조선은 다시 천산산맥~혼하에 이르는 지역을 수복한다. 이때

고조선에 망명한 燕.齊.趙 유이민들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위만의 활동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史記』太史公自序는 전국말 요동에서 흩어진 燕 백성을 거두었다고 했고, 『後漢書』東夷列傳에서는 진섭의 거병때(기원전 195년경) 조선으로 왔다고 했고, 『史記』朝鮮列傳은 서한초(기원전 195년경) 노관이 흉노로 망명할 때 조선에 왔다고 한다. 위만의 망명 시점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전국 말부터 오랫동안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조선 서변에서 실력을 키우던 위만은 유이민 집단과 고조선 서쪽의 진.번.조선 주민이 연합한 세력을 바탕으로 준왕 세력을 밀어내고 위만조선을 세운다. 요하 평원지역의 연 유적 중 일부는 이러한 유이민 문화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종수, 2014). 위만조선은 여러 세력들이 융합하여 나라를 세운 만큼 다양한 문화를 포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後漢書』濊傳은 준왕을 기자의 40세손이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후대에 기자조선설의 영향으로 윤색된 것이며 실제로는 왕검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준왕을 밀어낸 위만은 후대에 『史記』에도 나오지 않던 성이 붙어 ‘衛滿’으로 나오지만 본래 중원식 성이 없었던 조선계 인물로 보인다. 즉 ‘古燕人’이란 표현대로 본래 고조선 사람이었으나 서방영토 상실 후 연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해된다(서영수, 1996). 위만이 기존의 조선을 계승했는지의 여부는 국호를 그대로 조선으로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도읍을 王險城이라 했는데 『三國遺事』는 王儉城이라고 한 것처럼 본래 단군왕검과 관련된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왕검(힘)성이란 명칭이 위만조선 이전부터 사용되었는지 새롭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전부터 사용되었다고 보는편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도읍을 계속해서 왕검(힘)성이라 한 것은 위만조선이 고조선 즉, 왕검조선을 계승한 국가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건국초 한의 조공외교권에 편입하는 대가로 물자를 받음으로써 성장을 도모하였던 위만조선은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자 곧 한의 외교권

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한과 대립하였다(서영수, 1996). 위만조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사회의 역량과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절히 활용했고 인구유입도 들 수 있다. 또한 위만조선은 주위의 진번·임둔·예맥·옥저 등을 복속시키며 자신들만의 천하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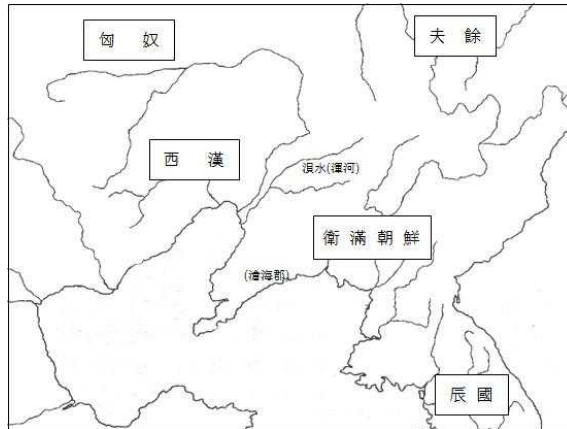
한편 위만조선의 강역을 살펴볼 때 서쪽의 경계인 패수를 흔하로 본다면 요동지역 漢墓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연이 요동군을 설치한 이래 진·한대에도 계속해서 지금의 요동 전역에 요동군이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孫進己·王綿厚, 1989). 그러나 문헌자료에 나오는 위만조선과 한이 대립한 원인 중 하나가 위만조선으로 유입해낸 漢人이 많다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거왕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漢人의 유입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유이민 집단의 망명을 통해 위만조선 시대에도 요동지역에 한묘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서한시대에 해당하는 무덤은 될 수 있어도 곧바로 漢의 무덤은 아닌 것이다.

위만조선의 팽창이 한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인식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데 한은 위만조선을 견제하고자 창해군을 설치한다. 창해군의 위치는 확실히 밝히기 어렵지만 당시 한이 흉노와의 전면전이 벌어지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만큼 위만조선과 흉노가 연결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남지역은 위만조선이 흉노와 교류하는 통로였으며 한인들이 교역을 하고 이주할 수 있는 주요 교통로이기도 했다. 당시 한은 위만조선과 흉노의 교류를 차단하고 자국민을 끌어들이는 주요한 루트인 요남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2년 만에 창해군이 폐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만조선의 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도 창해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만조선은 요동지역을 통해 흉노와 관계를 맺고 한인을 끌어들이며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알았기에 한도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면서도 요동에 창해군을 두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해군을 통해 위만조선을 견제하려는 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에 한은 더

육 강경한 방법으로 위만조선의 팽창과 흉노와의 밀착된 관계를 막으려 한다. 양국은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위만조선은 한의 군대를 맞아 잘 싸웠으나 기원전 108년 지배층의 분열로 멸망하게 된다. 위만조선이 결국 멸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나 수비 전략의 실패도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만조선은 자국만의 독자성과 천하관을 가졌던 국가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만조선이 주위국가를 복속시키고 통제하며 한과 대립한 것은 자국 중심의 또 다른 천하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지도6> 위만조선시대의 국제정세



## VIII. 결론

이 글은 古朝鮮이 어떻게 주변정세에 대응하여 발전하며 대외관계를 맺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고조선은 본래 王儉朝鮮을 일컫는데 衛滿朝鮮으로 이어지며, 중심을 요동지역에서 서북한지역으로 이동했다는 큰 틀에서 고조선의 대외관계를 검토하였다.

고조선은 춘추시대까지는 중원국가와 교역을 하는 관계였으나 전국시대에 들어와 燕과 전쟁을 치렀고 이어서 秦·漢이라는 통일제국과도 충돌하였다. 고조선은 다중적인 외교정책과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빠

르게 대응해나갔다. 이러한 고조선의 외교는 후대국가들의 대중관계에서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국내문헌을 통해 확인되듯이 고조선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신만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원계·북방계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조선의 독자성을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요동지역의 역할을 주목하였다. 요동지역은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역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서북한지역으로 바뀐 이후 요동지역은 중원계 이주민이 머물던 고조선의 서방이기도 했으며 중원세력의 침입을 막는 방어선 역할도 했다. 한 제국에 당당히 맞서던 위만조선도 요동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왕험성이 포위되어 내부 분열로 멸망하고 만다. 따라서 요동지역은 고조선의 발전과 흥망, 대외관계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帝王韻紀』에 나타난 “요동에 별천지가 있었다.”는 기록은 후대의 인식이 아니라 요동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간 고조선인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IX. 향후 연구 계획

필자는 학위논문을 통해 고조선 전 시기의 대외관계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앞으로 계획중인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자조선의 실제 연구

조선으로 갔다는 기자의 전설은 『尙書大傳』에 처음 기록된 이후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로 남아있다. 특히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부각시켜 역사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석사논문인 「기자조선 연구」(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기자조선 문제를 처음 연

구한 이후 관련 학술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조원진, 2009 ; 2010 ; 2014 ; 2015)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기자조선의 실존과 기자의 동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자 자체의 연구라 할 수 있는 상나라의 통치구조와 다자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상말주초라는 동북아 정세속에 상유민의 이동과 연의 봉건을 살펴봐야 하며 고고학적으로도 위 영자문화와의 관련속에 상말주초 청동기와 기자 관련 청동기의 확산을 고증해야 한다. 또한 문헌적으로도 기자조선설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중국 문헌과 한국문헌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자조선 문제는 오히려 당시 고조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학계에서는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자조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나의 연구서로 정리하여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단군과 고조선 건국 연구

과거에 고조선 연구는 단군신화로 불리는 『三國遺事』등의 국내문헌을 분석하여 고조선의 건국과 사회상이 검토되었다. 반면 최근에는 단군에 대한 연구와 관련 고고학 연구가 분리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군신화를 후대의 조작이나 중국신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중국학계의 주장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문헌의 기록은 고조선의 정체성과 천하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동시에 후대 고구려 건국신화 등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 계승성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의 고고학 자료가 정리되어 고조선 건국과 사회상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연결하여 고조선 관련 쟁점중 가장 난제라할 수 있는 고조선 건국 문제를 다루려 한다.

## 3. 고대 동북아 민족과 고조선 연구

필자의 학위논문은 고조선의 대외관계를 검토하면서 주로 문헌기록이 남아있는 중원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계가 있다. 고조선이 있을 때 중원국가인 상,주 만이 아니라 산동지역의 동이나 북방민족인 산융, 동호와 고조선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숙신, 고죽, 예맥, 발, 진번 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다양한 집단에 대해 중국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나왔으나 아직 우리학계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동북아시아의 고고학 자료 성과가 정리되면서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문헌 자료와의 비교로 그 담당자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검토는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고조선이 가진 위상과 대외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삼연문화 및 삼연문화와 한반도문화 교류의 고고학적 연구

오진석

논문에서는 삼연문화 고분의 특징을 정리하여, 4-5세기 삼연문화와 한반도문화 각국의 교류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보았다.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학술적 시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하 양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서론에서는 먼저 삼연과 삼연문화의 정의를 다루었다.

삼연은 동진십육국시기 모용선비 및 선비화 한인이 요녕성 조양지역을 중심으로 건립한 前燕 ( 337-370 ), 后燕 ( 384-409 ), 北燕 ( 409-436 ) 의 삼국을 일컫는다. 삼연문화는 1990년대 초, 전립곤이 제기한 고고학문화 개념으로, 모용선비 및 삼연유적을 포함한다. 그는 ‘삼연유적은 동부선비 모용부가 주체인 문화유적이지만, 모용선비가 한문화 및 흉노, 고구려 등 주변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유적으로 간단하게 모용선비 유적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정의했다. 다만, 당시에는 삼연문화에 포함할 유적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아, 명확하게 문화의 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이후 관련된 고고학 자료의 증가와 더불어 학계에서 연구가 점차 심화 되었다. 즉 이전의 삼연 및 삼연유적을 구분하는 개념에서 ‘요서 지역에 거주한 모용선비 및 모용선비가 건립한 삼연 정권이 주체인, 한문화의 영향 아래 각종 주변 문화를 흡수하여 형성된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고고학 문화’로 정의가 바뀌게 된 것이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삼연문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田立坤이 정의한 삼연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모용선비의 문화에 대하여 그 근원을 논하자면, 내몽고 동부

의 新生屯墓地, 六家子墓地, 舍根墓地 등을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이들을 삼연문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아직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본문에서는 삼연문화의 연대 범위를 기원후 3세기초 모용선비가 요서지역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북연이 멸망한 시기, 즉 5세기 중엽까지로 설정하였다. 본문의 지역적인 범위는 요서지역, 요동지역, 한반도를 포함한다.

상편은 삼연문화 유적 중 고분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는 삼연문화유적 중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조양의 용성 등 일부 성곽유적과 북표시에 위치한 금령사 건물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조사된 유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삼연문화 고분은 현재까지 本溪, 锦州, 朝阳, 安阳 등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삼연문화’란 개념은 모용선비 및 삼연시기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그 이전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삼연문화 고분을 晋墓, 鲜卑墓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 중 본문에서는 고고학적 자료의 비교연구를 통해 ‘삼연문화고분’을 특정 하였다.

삼연문화고분은 모두 지하에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서 묘광을 만든 지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묘광의 축조 방법에 따라 유형이 토광묘, 석곽묘, 전실묘, 석실묘로 구분된다.

토광묘: 지하에 수직으로 제형 혹은 장방형의 구덩이를 파고 목관을 사용하여 조성한다. 토광묘의 경우 내부에서 목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란 및 부식 등의 이유로 목관이 소실된 것이며, 고분내에서 확인되는 관정으로 미루어 보면 원래는 모두 목관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토광묘는 장축방향으로 감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토광의 평면형태에 따라 长梯形(A형)과 长方形(B형)으로 다시 구분된다.

A형 土坑墓는 벽감의 유무에 따라 다시 Aa형(有)과 Ab형(无)으로 구분된다.

Aa형 土坑墓는 朝阳 王子坟山台M8702, 台M8705, 台M8712, 台M9022,

重型机器厂北燕墓, 安阳孝民屯M154, M165, M195, M196, M197 등을 포함한다.

Ab型 土坑墓는 朝阳王子坟山 腰M9001, 腰M9003, 腰M9004, 台M8703, 台M8704, 台M8708, 台M8709, 台M8710, 台M8711, 台M8713, 台M9014, 台M9015, 台M9016, 台M9019, 台M9021, 台M9028, 肖家村墓, 二三四医院M3, 北票 大板营子(B) M10, M18 등을 포함한다.

B型土坑墓는 모두 벽감이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B형 토광묘는 喇嘛洞 M46, M49, M60, M101, M196, M202, M204, M209, M217, M266 등 北票 喇嘛洞墓地가 유일하다.

석곽묘는 묘광 내부에 할석 및 판석을 이용하여 묘곽을 구축한다. 묘문과 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분의 정상부는 석판, 석조를 사용하여 덮었다. 일부 석곽묘에서는 이실이 확인된다. 장구는 모두 목관을 사용하며, 목관의 평면형태에 따라 다시 长梯形(A형)과 长方形(B형)으로 구분된다.

A型 石椁墓는 朝阳大平房村壁画墓, 八宝村M1, 奉车都尉墓, 北庙村M2, 单家店M3, 后燕崔遼墓, 北票 大板营子(B) M5, M6, M8, M22, 牛羊沟 M3, 冯素弗墓 등을 포함한다.

B型 石椁墓는 朝阳 十二台乡砖厂M2, 北票 房身村晋M3, 喇嘛洞M108, 大板营子(A) M2, M3 등을 포함한다.

석실묘는 묘광 내부에 가공한 할석 및 판석을 이용하여 묘실을 조성한다. 묘문과 묘도, 용도가 있으며, 대부분 이실이 확인된다. 일부 석실묘의 경우 묘실벽체와 천정에 황색점토와 백회를 차례로 바르고 벽화를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벽화의 내용은 주인도, 주방도, 차마출행도, 문사도 등이 있다. 석실묘는 고분 정상부의 구축 방법에 따라 다시 石条形(A형), 石板型(B형), 券顶型(C형)으로 구분된다.

A型 石室墓는 朝阳 田草沟晋M1, M2, 北庙村M1, 北票 西官营M4 등을 포함한다.

B型 石室墓는 本溪晋墓, 朝阳 袁台子东晋壁画墓, 袁台子北燕墓 등을 포함한다.

C型 石室墓는 朝阳 十二台砖厂88M1, 郭家箭头地M1 등을 포함한다.

전실묘는 장방형의 전을 一顺一丁의 방법으로 쌓아 구축한다. 고분의 정상부는 권정형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삼연문화 고분 중 그 수량이 가장 적다. 대표적인 고분으로는 锦州 前燕 李廆墓가 있다.

삼연문화 고분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물로는 壶, 罐, 奩, 钵, 陶俑 등의 토기 및 자기, 鍍, 釜, 甗, 魁, 鏹斗, 盆 등의 금속용기, 步摇冠饰, 其他步摇饰, 带具带饰 등의 장식품, 辔具, 鞍桥, 带饰, 马镫, 当卢, 节约, 寄生 등의 마구, 矛, 剑, 刀, 铍, 鸣镝 등의 무기, 铲, 镬, 犁, 铧, 锄, 镰, 斧, 叉, 锥, 凿, 锯 등의 공구류가 있다. 그 외 소수의 인장 및 묘지석이 확인된다.

삼연문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출토수량이 비교적 풍부하여 시기구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壶와 罐을 비롯한 토기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들 토기의 변화상 및 다른 유물과의 조합관계를 살펴 삼연문화 고분의 유물을 크게 4개조로 구분하고 이에 상당하는 시기 역시 4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제1조는 A型 I 式侈口展沿壶, B型 I 式侈口展沿壶, A型 I 式侈口壶, B型 I 式侈口壶, 夹砂大口罐, I 式陶奩의 토기들이 확인되며, 이와 조합되는 유물로는 Aa型步摇冠饰, A型伞状泡饰, A型马镫, I 式引手이 있다.

제2조는 A型 I 式侈口展沿壶, B型 I 式侈口展沿壶, C型侈口展沿壶, A型 I 式侈口壶, B型 I 式侈口壶, 夹砂大口罐, A型 I 式矮领罐, B型 I 式矮领罐, C型 I 式矮领罐 등 토기가 확인되며, 이와 조합되는 유물로는 A型步摇冠饰, 步摇耳饰, 步摇锁形饰, A型伞状泡饰, B型伞状泡饰, A型镂空兽纹带具, A型前圆后方形带扣, A型马镫, I 式引手, A型鞍桥包片, B型鞍桥包片, A型马镫이 있다.

제3조는 A型 II 式侈口展沿壶, A型 II 式侈口壶, B型 II 式侈口壶, A型 II 式矮领罐, C型 II 式矮领罐, D型 I 式矮领罐, II 式陶奩 등 토기가 확인되며, 이와 조합되는 유물로는 A型伞状泡饰, B型伞状泡饰, B型镂空兽纹带具, B型前圆后方形带扣, A型马镫, B型马镫, II 式引手, B型鞍桥包片, B型马镫, C型马

鑑이 있다.

제4조는 A型Ⅲ式侈口壺, 盘口壺, A型Ⅱ式矮领罐, B型Ⅱ式矮领罐, D型Ⅱ式矮领罐, E型矮领罐 등 토기가 확인되며, 이와 조합되는 유물로는 B型步搖冠飾, B型前圓后方形帶扣, C型馬鑑이 있다.

토기는 출토 수량이 많아 고분의 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호와 관이 있다. 호 중에서는 전연호와 치구호에서 변화상이 확인된다. 이들은 3세기말 삼연 성립기부터 존재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구연부가 짧아지고, 동체부의 문양이 단순화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4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반구호와 같은 새로운 기종이 출현한다. 관의 경우는 모용선비 본연의 기물은 아니며, 4세기 이후 주변지역 한진(漢晉)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종과 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애령관은 일반적으로 시기변화에 따라 기종의 종류가 늘어나며, 점차 구연부가 직립하고, 기형이 커지는 변화상이 확인된다.

장신구는 보요관과 진식대구에서 변화상을 찾을 수 있다. 보요관은 모두 금제로 3세기말부터 확인되는데, 4세기까지 확인되는 보요관은 모두 산모양의 기부에 가지형의 금사에 보여가 매달린 수지식인 반면, 5세기에 확인되는 보요관은 하부의 모자골조위에 가지형의 금사가 있고, 금사 중간 중간에 보요를 매단형태로 변화되었다. 마구는 마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마등은 답수부 가운데가 볼록한 타원형의 환부에서 삼각형 환부로 변화하였다.

I 期는 모용선비가 요서지역으로 들어온 이후 3세기말까지의 고분이다. 이시기 모용선비는 문화상으로 보면 주변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II 期는 3세기말慕容廆가 棘城에 자리잡은 시기의 구분으로, 모용선비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에 따라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며, 중원의 법률과 제도를 받아들였다. 또한 선비 우문부를 토벌하고, 부여를 공격하여 대량의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이시기 모용선비는 전면적으로 주변문화를 받아들였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漢文化, 여타 鮮卑文化, 夫余文化 등이 있다.

Ⅲ期는 전연시기의 고분이다. 이시기는 용성으로 천도하고, 단부, 우문부 등 주변 선비 부족을 통합하였으며, 고구려를 경략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중원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수도를 업성으로 천도하였다. 모용선비 본연의 문화요소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한문화의 흡수가 가속화되었다.

Ⅳ期는 후연, 북연시기의 고분이다.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 중원지역을 상실하였으며, 다시 용성지역에서 발전을 이어간다. 그 근거로 본문에서는 고분의 형태 및 수장품을 살폈으며, 이를 통해서 고분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에서 비교적 명확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그 동안 흡수한 주변 문화를 모용선비문화와 심도 깊게 융합하여 독특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삼연문화는 비록 2세기 정의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형성된 문화이지만, 이시기 삼연문화의 주체인 모용선비는 주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하편에서는 고고자료를 토대로 삼연문화와 동시기 한반도 문화 사이에 나타나는 교류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전 연구에서는 步搖飾과 馬具 등 일부 특수한 기종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 면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가 중국 학자들의 한국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그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본 발표문에는 이미 발표된 한국측 자료를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고구려와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陶器, 裝飾品, 馬具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토기에서는 4세기 전후에 삼연문화와 고구려문화에서 유사한 형태의 矮領罐이 확인되고 있음을 밝혔다. 장식품에서는 보요관의 결구방식, 입주부운주의 변화 양상을 통해 양 문화 사이에서 공통된 문화요소를 밝혔다. 마구에서는 4세기 초반부터 안장장식과 마등에서 명확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4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양 지역에서는 서로 독자적

으로 발전했음을 밝혔다. 즉, 4세기 초 이후 삼연문화와 고구려문화는 토기, 마등 등 비교적 실용적인 기물에서 광범위한 교류관계가 있었으며, 4세기말 이후 점차 양 지역 유물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명확하게 들어나는 것으로 보아, 각자의 취향에 맞춰 발전해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백제와의 교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 역시 陶器, 装饰品, 马具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토기에서는 태도 및 기형에서 일부 유사점을 확인되었으나, 교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의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식품에서는 보요의 제작기술 방면에서 유사한 면이 확인되고 있다. 마구에서는 마등과, 행엽 등 일부 기물에서 삼연문화 요소를 확인하였으나, 그 기간은 상당히 짧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바로 고고자료에서 확인되는 물질문화요소가 서로 다른 발전 및 변화 단계를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신라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装饰品, 帶具, 马具로 살펴보았다. 양 지역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고구려를 통해서 삼연문화 요소를 흡수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영향정도는 기물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났다. 즉, 관식에 있어서는 제작방식에 있어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구는 형태 및 문양에서도 비슷한 점이 나타난다. 마등에서 나타나는 특징 역시 비교적 명확한 삼연문화 요소라 할 수 있다.

가야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装饰品, 马具, 铜鍍으로 살펴보았다. 가야는 4세기부터 이미 삼연문화 요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야가 해로를 이용해 서로 교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마구와 동복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 유물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살펴, 양 지역의 직접 교류에 가능성을 일부 논하였지만, 고구려를 통해 삼연문화요소를 받아들였을 가능성 역시 무시하지 않았다.

## 7世紀 濟、麗同盟 研究

선봉조(한국학중앙연구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고대사에서 ‘同盟’이라는 관계양상을 도출할 수 있을까?</li> <li>2.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98년 백제 위덕왕의 ‘請爲軍導’와 607년 武王의 ‘請討高麗’</li> <li>2) 백제 二重外交와 濟、麗同盟</li> <li>3) 626년 백제의 對唐外交와 濟、麗同盟</li> </ol> </li> <li>3. 640년대 삼국의 政變과 대결적 동맹구도의 성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42년 백제、고구려의 정변과 濟、麗同盟의 재결성</li> <li>2) 647년 신라 毗曇의 亂과 羅、唐同盟의 결성</li> <li>3) 삼국의 정변과 대결적 동맹구도의 성립</li> </ol> </li> <li>4. 濟、麗同盟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실패한 동맹이었을까?</li> </ol> |
|---|

### 1. 한국 고대사에서 ‘同盟’이라는 관계양상을 도출할 수 있을까?

同盟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삼국시대에서도 4세기 말~5세기 초의 신라、고구려 동맹(이하 羅、麗同盟),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의 백제、신라 동맹(이하 濟、羅同盟), 그리고 7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이하 濟、麗同盟)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sup>

1)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일반적으로 羅、濟同盟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필자는 동맹의 명칭을 정할 때, 그것을 주도한 나라의 이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1;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그런데 濟·羅同盟을 제외하고는 ‘동맹관계’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직접적인 공동군사행동, 구체적 의사표시, 혹은 동맹과 관련된 요식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동맹’이라는 용어 보다는 ‘握手’, ‘連和’, ‘連繫’, ‘聯合’, ‘고구려 우위의 화친관계’ 등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4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7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동맹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접근일까?

우리 고대사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三國史記』에서 ‘求盟’이나 ‘乞盟’, ‘隣盟’, ‘渝盟’ 등의 표현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 정확히 동맹이라는 표현은 就利山會盟 당시 ‘同盟于熊津’이라는 문구에서만 확인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高麗史』 「太祖本紀」에서 ‘敵血同盟’이 보이며, 李齊賢의 「題長安逆旅」라는 시에서 ‘何山萬世同盟國’이라고 하는 등 ‘동맹’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동맹이라는 표현은 개인 사이, 특히 임금과 신하 사이의 盟約을 의미하다가 開港期(1876~1910) 무렵에서야 본격적으로 국제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동맹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것도 동맹관계의 想定에 어려움을 갖는 이유다. 지금까지 서양사의 이론을 접목하거나 혹은 『春秋左傳』의 용례를 통해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동맹을 군사동맹으로 국한시키거나 ‘敵血儀式’과 같은 요식행위의 有·無를 가지고 동맹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동맹은 ‘事案에 관계없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협력상태’, ‘공동의 이익을 촉진시킬 목적의 협정’, ‘공식·비공식적인 안보협력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삼혈’과 같은 동맹의 전형적인 행위 역시 『春秋公羊傳』에 따르면 삼혈 없이 구두로 맹세해도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맹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구분하거나 군사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

129쪽)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에 보이는 동맹의 명칭을 ‘羅·麗同盟’, ‘濟·羅同盟’, ‘濟·麗同盟’이라고 각각 부르고자 한다.

면 우리 고대사에서 일어난 다양한 관계양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용어의 사용 역시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개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맹’, ‘투맹’ 등은 동맹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그에 따라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큰 틀에서 동맹의 범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라는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군사적 협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익을 공유하려 했다는 점에서 동맹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濟、麗同盟의 성립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643년 두 나라가 신라 黨項城을 공격하려는 시점이나 655년 고구려·백제·말갈이 신라의 북변을 공략한 시기로 보고 있다. 혹은 7세기 초부터 협력과 갈등을 반복했다고 보기도 한다. 극단적으로는 백제·고구려 동맹이 신라의 모함과 과장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고 그 실제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4세기 고국원왕-근초고왕, 5세기 장수왕-개로왕의 충돌을 거치면서 극한 대립을 보여 왔지만 553년 무렵 한강유역의 지배권이 신라에게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당면의 敵이 신라로 변경되면서 백제와 고구려는 과거의 적대감 보다는 오히려 신라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세기 중엽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은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였다.

그런데 사료에서는 두 나라의 관계가 7세기 전반기까지도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는 598년과 607년에 고구려를 견제하려 했고 이에 고구려는 보복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626년 무렵에도 백제는 고구려가 朝貢路를 방해한다고 唐에 하소연하는 등 여전히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한 이유는 신라 공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구려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백제가 얻을 實益이 없다는 점에서 사료가 전하고 있는 실상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백제와 고구려 모두 신라로부터 한강을 재탈환하고자 했고 특히 고구려는 北으로 隋·唐에 맞서는 한편 南으로는 신라와 교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맞대지 않은 두 나라가 대립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가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들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598년 백제 威德王의 ‘請爲軍導’와 607년 武王의 ‘請討高麗’

백제 위덕왕은 한강유역을 상실한 지 45년째가 되는 598년 무렵 고구려에 대한 견제를 시도했다.

① 위덕왕 45년(598): 9월에 왕은 長史 王辯那로 하여금 隋에 들어가 조공하게 하였다. 왕은 隋가 遼東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遼東之役)을 듣고 使臣을 보내 表를 올려 軍導가 되기를 청하였다(請爲軍導). 황제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中略)…高元(長壽王)이 죄를 청하기에 이미 용서하였으니 정벌할 수가 없다.” 고구려가 자못 그 사실을 알고 국경을 쳐들어 왔다. …(後略)

기존연구에서는 사료 ①에서 언급한 ‘請爲軍導’에 초점을 맞추어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려 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백제의 ‘청위군도’는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 견제라기보다는 外交的 修辭로 이해해야만 한다. 위덕왕은 애초에 고구려를 견제할 목적으로 王辯那를 파견하지 않았다. 598년의 사행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사행이 왕변나의 파견이다. 여기서 위덕왕은 隋가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를 기회로 2차 사행을 추진, 고구려 정벌의 軍導가 되기를 요청했다.

백제가 對隋外交의 수단으로 고구려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敵의 敵은 나의

同志'라는 국제관계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백제 위덕왕은 中原王朝와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589년에는 隋의 戰船이 표류하자 그 병사들을 후히 대접하는 등 隋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 그러나 隋 文帝는 거리가 먼 것을 핑계로 더 이상 조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곧 백제가 외교적인 고립상황에 놓여 있음을 암시해 준다. 더군다나 백제는 581년 帶方郡公을 책봉 받은 이후 진전이 없었던 반면 고구려와 신라는 隋가 통일한 이후인 591년과 594년에 각각 高句麗王과 新羅王을 책봉 받았다. 이에 위덕왕은 대수관계를 강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구려를 끌어들이는 배경이 되었다.

위덕왕이 고구려를 견제할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그 사행 시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제가 청위군도의 表를 올린 9월은<sup>2)</sup> 이미 隋와 고구려의 전쟁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이었다.<sup>3)</sup> 隋가 回軍하는 시점에 고구려 정벌의 軍導를 청했으나 隋 文帝가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백제의 어설픈 모습은 치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왕변나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급작스럽게 대수외교를 벌이다 보니 戰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607년 武王의 '請討高麗' 역시 598년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607년 1차적으로 燕文進을 보낸 이후, 곧바로 2차 사신인 王孝隣을 보내 고구려 정벌을 요청했다. 이때는 백제의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 고구려로부터 보복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阿莫城 전투마저 참패했다. 또한 기근과 가뭄으로 내부적인 동요도 심각했다. 백제의 정치세력들은 대수외교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꾀했는데 이 수단으로 다시금 고구려를 끌어들이는 것이

2) 『삼국사기』에서 왕변나의 사행 시점을 9월로 본 것은 『삼국사기』의 찬자가 『資治通鑑』과 『隋書』 「百濟傳」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나온 착오로 생각된다. 『자치통감』에서는 9월 고구려의 사죄와 철군을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백제가 '청위군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서 왕변나의 사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서는 『자치통감』에서 나타난 9월이라는 시간 정보를 『수서』 「백제전」의 기록을 가져오면서 덧붙임으로써 마치 왕변나의 사행이 9월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왕변나의 1차 사행은 분명 9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9월에 단행된 사행은 『자치통감』의 기록처럼 '청위군도'의 表를 올린 사행이었다.

3) 隋가 철군한 시점이 9월 21일이다.

다. 이때는 隋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냄으로써 백제의 외교가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고구려가 보복공격을 감행해 오자 백제로서는 외교정책의 損益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 2) 백제 二重外交와 濟·麗同盟

607년 백제는 隋에게 고구려 토벌을 요청했고 611년에는 군대의 출정 기일을 공유하는 등 군사적 연합을 꾀했다. 그런데 전쟁이 개시되자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았다. 백제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수서』 「백제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通和(『자치통감』에서는 潛通)하여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隋를 엿본 것이라고 했다.<sup>4)</sup>

武王은 대수관계를 통해 대내외적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고구려의 보복공격을 재차 받음으로써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백제로서는 모호한 외교적 수단보다는 현실적인 타개책이 필요했다. 이에 무왕은 고구려와의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여기에서 오는 안정을 바탕으로 신라 공략에 집중하고자 했다. 다만 隋에게는 고구려와의 협력관계를 노출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隋를 기만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實持兩端, 즉 백제의 二重外交라고 할 수 있다.

무왕의 의도는 고구려의 利害와도 맞아 떨어졌다. 고구려 역시 隋와의 一戰을 앞두고 있었고 후방으로는 신라와 충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와의 관계마저 어긋나게 되면 고구려는 주변국 모두로부터 포위되는 상황에 빠진다. 고구려는 국면의 전환이 필요했고 이에 백제와의 협력을 선택했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 준다면 신라로부터의 위협이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무렵에 이르면 백제와 고구려는 상호 불가침에 기반을 둔 소극적 단계의 동맹을 성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는 한강 재탈환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고구려는 隋와의 전

4) 두 나라의 관계는 就利山會盟의 기록이나 『삼국사기』 「金庾信傳」에서 611년 고구려·백제·말갈이 신라를 침략했다는 사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할 수 있었다.

정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백제의 신라 楸岑城 공격에서 두 나라 사이의 교감을 엿볼 수 있다. 백제는 611년 10월부터 612년 1월까지 大軍을 동원해 신라 가잠성을 공격했다. 隋가 고구려를 침공한 시점이 612년 1월 3일이었으니 이는 백제가 고구려·수 전쟁 3개월 전부터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해 전쟁이 발발하는 1월까지도 지속했다는 얘기가 된다. 612년의 전쟁에서 백제가 주변의 역할이었다 하더라도 당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다. 만약 백제가 隋를 지원했음에도 598년의 경우처럼 隋가 고구려에게 패한다면 백제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방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감행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백제는 고구려를 견제할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표시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지도 모를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濟·麗同盟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백제의 二重外交다. 기존연구에서는 백제의 이중외교를 實持兩端, 兩端策, 兩面外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성격을 隋와 고구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中立外交나 均衡外交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백제가 두 강대국인 高句麗와 隋 사이에서 양국의 협조 없이 주도적인 외교를 펼쳤을지 의문이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목격된다. 고려 仁宗이 南宋과 金 사이에서 펼친 兩面外交, 조선 광해군이 後金과 明 사이에서 취한 中立外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외교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에 관여되기를 원치 않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백제와 같이 먼저 나서서 隋의 호의를 사고 동시에 그의 敵國과도 교류하여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자치통감』에서는 이 당시 백제의 외교형태를 ‘潛通’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잠통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균형이나 중립의 의미보다는 상대를 기만하고 있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611년 무렵의 백제 외교는 隋를 기만하면서 고구려와 은밀히 협력하는 二重的 行態의 외교, 즉 二重外交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의 이중외교는 611년뿐만 아니라 626년, 645년 무렵에도 나타나는 7세기 백제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백제는 멸망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구려와 협력했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裏面에서는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라를 압박해 가는 행보를 보였다.

### 3) 626년 백제의 對唐外交와 濟·麗同盟

611년 무렵 처음으로 동맹관계를 형성한 백제와 고구려는 30여 년이 지난 643년에 이르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공격동맹을 성사시키게 된다. 흐름으로 볼 때 두 나라의 관계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신당서』·『구당서』 「백제전」·「고려전」과 『삼국사기』 등에 따르면, 626년 백제가 고구려의 朝貢路 방해를 하소연하면서 唐의 仲裁를 요청하는 뜻밖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근거로 기존연구에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가 최소한 620년대까지도 대립적이었다고 보았으며 611년의 通和 역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 문제는 기존연구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신당서』·『구당서』 「朱子奢傳」의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② 『新唐書』 「朱子奢傳」: 太宗 貞觀 初에 고구려와 백제가 함께 신라를 공격하였는데(高麗百濟同伐新羅), 해를 이어 군사를 늘어뜨리고 흘트리지 않자(連年兵不解) 신라가 위급함을 알렸다(新羅告急). 황제가 朱子奢를 假員外散騎侍郎으로 삼아 持節을 가지고 三國의 서운함을 풀도록 깨우쳤다. 儀觀에 바르고 우아함이 있어 夷人(고구려·백제·신라)이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두 나라가 글을 올려 사죄하고 후히 베풀어 보내주었다.

사료 ② 「주자사전」을 보면 주자사 파견의 직접적 원인은 조공로 방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침략에 따른 신라의 위급함이었다. 그리고 신라를 침략하는 주체에 백제를 포함시키는 등 상당 부분에서 「백제전」·「고려전」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 「주자사전」에 따르면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조공로를 침해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구려와 함께 신라를 위협하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 표-1: 朱子奢 관련 『三國史記』해 및 『新唐書』해, 『舊唐書』해 비교검토 >

출처		백제·신라가 밝힌 위협내용	위협의 主體	使行 시점 (百·新)	朱子奢 파건의 주체	唐의 仲裁 결과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 朝貢路 방해 · 빈번한 침입	고구려	626	皇帝	奉表謝罪 請與二國平
	百濟本紀	· 朝貢路 방해	고구려	626	高祖	諭我及高句麗平其怨
	新羅本紀	· 朝貢路 방해 · 빈번한 침입	고구려	625	高祖	고구려와 화평 주선
『舊唐書』	高麗傳	· 朝貢路 방해 · 틈이 생겨 서로 다툼	고구려	626	高祖	請與新羅對使會盟
	百濟傳	· 朝貢路 방해	고구려	624년 이후	高祖	遣朱子奢往和之
	新羅傳	관련 내용 없음				
	朱子奢傳	· 高麗百濟 同伐新羅	고구려 백제	貞觀初	太宗	三國王皆上表謝罪
『新唐書』	高麗傳	· 朝貢路 방해 · 빈번한 침입	고구려	626	高祖	建武謝罪 乃請與二國平
	百濟傳	· 朝貢路 방해	고구려	626	太宗	詔使者平其怨
	新羅傳	관련 내용 없음				
	朱子奢傳	· 高麗百濟 同伐新羅	고구려 백제	貞觀初	太宗	二國上書謝罪

『三國史記』해 및 『舊唐書』해 경우 사료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淸代의 학자 趙翼(1727~1824)의 『二十二史劄記』해가 주목된다. 여기에서 그는 本紀와 人物列傳의 내용적 불일치를 확인하면서 대개의 경우 인물열전이 더 신빙성 있음을 밝혀냈다. 물론 동이열전인 「백제전」이 본기와는 다르지만 공식문서에 의해 서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기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물열전의 「주자사전」이 「백제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주자사전」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신빙

성 있게 서술하고 있으며 「백제전」에서는 光明甲의 현상 시점, 주자사 파견의 시기와 주체 등에서 눈에 띄는 오류가 확인되는 등 신중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백제가 고구려의 조공로 방해로 언급한 것은 기록의 오류나 착오일까? 필자는 이 기록들 역시 사실일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실제적 진실이라기보다는 백제가 그와 같은 외교적 言辭를 했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626년 백제는 고구려의 조공로 방해로 언급함으로써 2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하나는 백제가 고구려와 적대적임을 암시함으로써 唐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626년 무렵 唐이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과거의 역사로 볼 때 兩國 관계를 낙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다. 唐은 고구려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백제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백제는 隋를 기만하면서 고구려와 협력한 전력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백제가 신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唐의 의심 혹은 추궁을 피하는 것이었다. 백제가 對新羅戰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唐의 묵인과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627년 무왕의 신라 공격이 唐의 간섭으로 인해 실패한 것을 상기한다면 백제가 왜 對唐外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626년 조공로 문제는 백제 이중외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백제가 외부적으로는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음을 표방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신라를 압박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공로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외교적 명분이다. 과거 백제와 신라가 각각 2차례와 1차례씩 조공로를 침해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대중원외교가 중단되거나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조공로 문제가 지정학적 배경에서 온 한계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관리 불가능한 위협요인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唐과 우호관계를 쌓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백제와 신라의 조공로를 방해할 이유는 없었다. 對唐朝貢路를 방해한다는 것은 국제문제로 비화될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백제와 신라가 이 조공로 문제를 언급한 것은 결국 고구려의 위협이 그들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

이 아니라 唐의 세계질서에 위배됨을 강조함으로써 唐으로부터의 지원 혹은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

### 3. 640년대 삼국의 政變과 대결적 동맹구도의 성립

#### 1) 642년 백제·고구려의 정변과 濟·麗同盟의 재결성

濟·麗同盟은 63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일정부분 후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에서는 영류왕의 급진적인 親唐政策이 추진되면서 외교노선이 전환되었다. 백제 역시 武王의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정책의 推進動力이 상실되는 추세였다. 이 때문인지 삼국은 상호 간의 견제 보다는 對唐外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삼국의 동맹관계는 더 이상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64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던 삼국의 정세가 요동쳤다. 그 시발점은 642년 1월 백제 의자왕의 정변이었다. 의자왕은 일부 近親王族과 귀족세력을 제거한 뒤 곧바로 신라에 대한 대규모의 공세를 펼쳤다. 또한 고구려와 협력해 신라와 唐의 연결마져 차단시키려고 했다. 신라를 강하게 압박·고립시킴으로써 삼국 간의 소모적인 대치구조를 청산하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했다.

의자왕의 정변은 곧바로 고구려 연개소문의 정변에 영향을 주었다. 백제의 정변이 倭의 권력투쟁을 야기했던 것처럼 고구려 정치세력에게도 긴장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영류왕과 연개소문 세력의 갈등관계가 642년 중·후반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분출된 것도 어찌 보면 백제와 유사했던 고구려의 정치적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백제의 대대적인 신라공격은 대외정책을 놓고 고구려 정치세력들이 서로 갈등하는 빌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642년 백제·고구려의 정변은 대외정책의 기초를 對新羅強硬策으로 변화시켰고 자연히 濟·麗 攻

擊同盟이 결성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2) 647년 신라 毗曇의 亂과 羅·唐同盟의 결성

백제와 고구려가 濟·麗同盟을 다시 결성할 무렵 唐은 고구려 정벌을 추진했다.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위협을 받던 신라는 唐과 연계해 고구려 공격에 동참했다. 그런데 唐이 고구려에 패배하면서 신라 善德王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신라가 추진했던 고구려·왜와의 관계 개선이 실패한 마당에 마지막으로 믿었던 唐마저 패배하면서 선덕왕의 대외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왕권이 취약했던 선덕왕으로서는 귀족들의 비판에 직면했고 毗曇을 상대등으로 임명하면서 체제유지에 나섰지만 결국 毗曇의 亂을 초래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비담의 난이 김춘추·김유신 세력에게 제압되면서 신라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력을 잡은 김춘추는 곧바로 對唐外交를 통해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과거와 달리 唐에게 군사적 지원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문화 등 전반적인 면에서 唐과의 교류를 확대해 갔다. 唐 역시 고구려 정벌이 실패한 이후 신라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전쟁 패배 후 唐은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지전을 통해 고구려의 힘을 약화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비로서야 신라와 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시작했고 김춘추와 唐 太宗 사이에 영토분할 논의가 이루어지는 648년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맹으로 발전되었다.

## 3) 삼국의 정변과 대결적 동맹구도의 성립

642년 백제·고구려 정변으로 濟·麗同盟이 다시 결성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648년 羅·唐同盟이 탄생했다.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짧은 기간에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政變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645년 倭의 大化改新까지 더하면 6년여의 기간 동안 4차례의 政變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개별적으로 발생된 우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편승한 繼起的 사건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삼국의 정변은 3가지 측면의 변화를 야기했다. 첫째, 정변 이전 삼국의 정치체제는 귀족연립정권의 형태에 가까웠으나 정변을 계기로 권력이 집중화 되었다.<sup>5)</sup> 둘째는 정국운영방식의 변화다. 과거처럼 귀족협의체에 의해 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도 과감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셋째는 정치세력의 교체로 야기된 대외정책의 변화다. 각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배제한 채 좀 더 선명한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려동맹과 나·당동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648년 대결적 동맹구도가 성립된 이후 이 두 세력은 국지적인 분쟁 상태에서 탈피하여 커다란 2개의 세력권으로 변모되었다.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를 고립시켜 소모적 전쟁을 끊으려 했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唐과의 동맹을 통한 그들의 제거를 추진했다. 삼국의 정세는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현상을 타파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었다.

#### 4. 濟·麗同盟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실패한 동맹이었을까?

많은 연구자들은 제·려동맹의 결성 자체를 국제관계의 흐름을 읽지 못한 외교상의 패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적인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제·려동맹이 唐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동맹은 아니었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唐과의 우호를 유지하고자 했고 백제 역시 652년 唐과의 관계를 끊기 전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濟·麗同盟의 기초는 唐의 간섭을

5) 신라의 경우 형태상으로는 王權(眞德王)과 臣權(김춘추·김유신 세력)의 연합에 의한 권력분점으로 나타났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은 진덕왕을 지탱하는 배후세력임과 동시에 차기 권력이었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권력집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배제한 상태에서 신라에 대한 압박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645년 고구려가 唐과 전쟁을 벌인 것도 고구려가 唐에 대항해서라기보다는 唐의 정책이 고구려를 침공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동맹을 맺지 않고 신라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백제와 고구려의 입장에서 신라는 공격의 대상이었다. 두 나라 모두 한강유역의 탈환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는 唐이라는 제3국을 삼국관계에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주체라는 점에서 잠재적 불안요인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의 한강유역 점유를 인정하고 각자의 세력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백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濟·麗同盟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동맹의 결성 자체가 아니라 공격 동맹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동맹이 결성되는 643년 무렵의 상황을 보면 백제는 이미 신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상태였다. 더군다나 고구려와의 동맹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불리한 형국이었다. 결정적으로 643년 唐의 정세는 백제는 물론 고구려에 대해서도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산동지방이 피폐해져 군사를 일으키기 어려웠고 아들과 형제들의 반란마저 일어나 대외원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백제는 唐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여 당항성 공략을 철회하는 동시에 645년 5월까지도 신라에 대한 공세를 중단해 버렸다.

백제가 신라와 唐에게 시간을 벌여주는 사이 645년에 이르러 唐의 고구려 침략이 개시되었다. 비록 고구려가 唐의 침략을 막기는 했으나 이때부터 상황은 급격히 전환되었다. 643년 제·려동맹이 결성된 이유는 한강유역을 공략해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고구려가 唐과의 대치전선에 묶이게 되면서부터는 고구려와 백제의 공동군사행동은 요원해졌다. 655년 한 차례 더 공동군사행동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김춘추가 655년 집권하면서부터 백제정벌을 추진했고 唐 역시 서돌궐을 제압

한 658년 무렵부터는 새로운 對百濟、對高句麗政策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唐은 신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백제의 제거를 선결과제로 택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제·려동맹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진 반면, 나·당동맹은 전형적인 공격동맹의 성격으로 변모할 수 있었고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었다.

◎ 앞으로의 연구 방향

# 高句麗 王都 研究

기경량

## 1. 연구의 목적

王都는 왕이 거주하며 政治.軍事.外交.祭儀 등 國務를 주관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발현된 국가 권력의 의지는 나라 곳곳에 전파되어 실제화되었다. 왕도는 王權이 발현되는 상징적 장소이자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적 유기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中樞로 기능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수차례 왕도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왕도가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된 사건이었다. 고구려 왕도를 연구하는 것이 고구려사 전개의 중요한 매듭을 분석하는 행위이자, 국가 성격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고구려 왕도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평지성과 비상시 들어가 농성하는 산성의 세트로 이루어졌다는 기존 통설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1914년 일본 학자 關野貞에 의해 제시되어, 100년 이상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 학계에서도 통용되는 鐵案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지성-산성 세트설이 지금까지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 견해가 고구려 왕도의 모습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고, 따라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설이 도식화되어 연구에 선입견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예컨대 과거 고구려 왕도 지역에서 산성이 확인되었으니 부근에는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는 평지성이 있을 것이라 전제한다든지, 고구려 왕도에서 평지성을 중심적 공간으로 보고 산성은 철저히 보조적인 기능을 가진 부속 시설로 간주한다든지 하는 접근법이 그러하다. 이러한 선입견은 고구려 왕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자칫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설에 의존한 도식적 접근을 지양하고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해석하여 고구려 왕도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구려 왕도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성의 난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고구려 왕도 유적은 모두 중국과 북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의 유적은 방문 자체는 가능한 반면 북한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은 연구자의 實見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북한에서 출간된 보고서와 논저를 최대한 섭렵하는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학계가 계속 이 같은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연구의 수동성을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평양 지역의 왕도 연구에 있어서는 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물을 그대로 옮겨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실제 고구려 후기 평양성인 장안성의 구조에 대한 현재 우리 학계의 이해 수준은 1990년대 북한이 제시한 자료의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停滯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위성사진에 기반한 google earth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진전된 고구려 왕도의 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내용

### 1) 왕도와 도성 용어 문제

최근 한국 학계에서는 ‘都城’ 내지 ‘都城史’라는 용어와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도성사와

연계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용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고대 삼국에서 ‘도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매우 드물었다. 대신 ‘京都’와 ‘王都’라는 용어가 주로 확인된다.

표 1)《삼국사기》본기와 잡지의 국도 관련 용어 사용 빈도

단위: 개

구분	京城	京都	京師	王城	王都	王京	都邑	王畿	京畿	都城
신라	7	55	4	1	7	2			1	2
고구려		8	4		6		1			
백제			3	1	12		1			2
잡지	3	1	2	3	8	2	1	2		
합	10	64	13	5	33	4	3	2	1	4

\* 비교: 金鎬詳, 2001<新羅王京研究(I)>-"三國史記에 표현된 三國의 王京名稱考察"《慶州史學》20, pp.144-145.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일부 수치는 필자가 조정하였으며 굵은 글씨로 구분.

고구려의 경우 ‘경도’는 고국천왕 12년(190) 이전에만 확인되고, ‘왕도’는 고국천왕 13년(191) 이후에만 보이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기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경도’의 용례는 하나같이 지진이나 우박 같은 재이 기록들이고, 문장에서 삭제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어서 당대에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후대에 일괄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왕도’는 재이 기록도 섞여 있으나, “무리를 모아 **왕도**를 공격하였다(聚衆攻王都)”같이 문장의 목적어로서 단단한 입지를 가진 용례들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구려 당대에 실제 사용하였던 용어는 왕도였으리라 여겨진다.

‘왕도’는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서도 전 시기에 걸쳐 용례가 두루 확인되는 용어이다. ‘도성’은 민리의 공간을 보호하는 외곽성을 갖추었거나, 격자형 가로구획 등 북위 낙양성 이래 정형화된 중국의 ‘都城制’를 수용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하므로, 고구려·백제·신라의 국도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따라서 고대 삼국의 국도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당대에 폭넓게 사용되었던 ‘왕도’를 사용하되, ‘도성’이라는 용어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형태의 왕도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2) 졸본 및 국내.환도 시기의 왕도

고구려의 첫 왕도는 졸본이다. 졸본에서 산성에 해당하는 흘승골성은 지금의 오녀산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지성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어 대립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국 학계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환인의 하고성자성을 졸본 평지성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1990년대에는 나합성지가 주목되었다. 최근에는 오녀산 동쪽 계곡의 고령묘자촌 수몰 지구를 졸본의 후보지로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문헌 및 금석문 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양상을 보았을 때 이중 고령묘자촌 일대를 졸본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다만 여기서의 졸본은 고구려의 建國地이자 시조의 昇天地가 결합된 聖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곳에 ‘평지성’이 있었으리라 상정할 수는 없다.

광개토왕비문이나 <동명왕편> 등의 묘사에 따르면 졸본 시기 고구려인들은 흘승골성(오녀산성)을 시조 주몽의 건국지이자 왕궁이 소재한 왕성으로 인식하였고, 국가 의례의 중심 장소로 활용하였다. 한편 《삼국사기》 유리왕대 기록에 따르면 평지에는 여러 곳에 이궁이 설치되어 있었다. 졸본 시기 고구려인들에게 평지에 조성된 이궁들은 산성에 비해 정치적 권위와 상징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인들에게 산성은 전시에 피난 용도로 사용하는 제한적 기능을 가진 부속 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왕도의 상징적 권위가 부여된 곳이었다.

고구려 왕도가 졸본에서 국내 지역으로 옮겨간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유리왕대 국내 위나암으로 천도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 유리왕이 천도하였다는 ‘위나암성’은 환인 지역의 오녀산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왕이 졸본을

방문하여 시조묘 제사를 지내는 기록은 신대왕대에 처음 출현하고, 신대왕의 장지 역시 국내 지역에 조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고구려 왕도가 적어도 신대왕대부터는 졸본이 아닌 환도.국내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왕대 ‘更作新國’ 기록과 충돌한다. 아마도 고구려를 침공하여 졸본 지역을 장악한 공손씨 세력은 시조묘가 존재하고 국가의례가 이루어지는 소노부 관할의 졸본 지역을 고구려의 ‘國’으로 인식하였고, 졸본 지역을 상실한 산상왕이 환도성을 새로 쌓고 왕의 거주 공간이자 국가의례의 장소로 삼은 사건을 ‘更作新國’이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 고구려 왕성으로 기능하였던 곳은 산성인 환도성이었다는 점이다. 환도성은 비록 산성이지만,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포곡식 형태였기 때문에 왕의 일상 거소로서 기능하는 데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환도성은 38년간 고구려의 왕성으로 기능하였으나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 파괴되었다. 동천왕은 247년 환도성이 난을 겪은 후 새로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사직을 옮겼다. 왕성이 산성에서 평지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환도성은 왕성으로서의 역할을 잃고 별궁 내지 의례 공간으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천왕이 평양성을 쌓았다고 하는 시기는 낙랑군이 건재한 시기이므로 지금의 평양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평양성은 집안 평지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고구려인들은 집안 분지에 자리 잡은 당시의 왕도 공간을 國壤.東壤.中壤.西壤.好壤 등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던 사례가 있으므로, 집안 분지 내에서 평양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집안 평지성은 평양성이라고 불리다가 고국원왕대에 이르러 국내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집안 평지성 바로 바깥쪽과 우산하 일대의 평원에는 건물지 유적과 주거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집안 평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확장은 북쪽 방향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하는 집안

평지성의 성문을 보면 북쪽 성벽에 가장 많은 4개의 성문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평지성 축조 이전에 왕성으로 기능하였던 환도성과의 관계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지역의 도시 확장은 차후 동쪽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시기 고구려 왕도의 공간적 범위는 동쪽으로 지금의 임강묘가 자리하고 있는 동천을 경계로 하고, 서쪽으로는 마선하 서쪽의 산지까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 3) 전기 평양성 시기의 왕도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평양 지역으로 왕도를 옮긴다. 평양 지역은 과거 고조선의 수도였던 곳이고,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에는 중국의 선진적인 문물이 한반도로 수입되는 창구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왕실의 각별한 관리 대상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국원왕의 ‘평양 동황성’ 이거를 드는 경우가 있다. ‘평양 동황성’을 집안이나 강계 지역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평양 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평양 동황성’을 ‘평양의 동쪽에 있는 황성’으로 이해하곤 하는데, 그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평양 동황성’의 구체적인 위치는 《삼국사기》의 초출 기사를 비롯하여 조선 초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이나 조선 후기 만들어진 〈동여도〉 등의 지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유력한 것은 대동강 남안인 의암동 일대에 있었다고 하는 토성이다. 토성의 존재는 1942년 간행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소개되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목멱산 중에 황성의 옛터가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의암동 일대에는 과거 목멱신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다만 고국원왕이 ‘평양 동황성’에 이거하였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이다. 《삼국사기》의 해당 기사가 대단히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본기의 본문에서 단순히 정보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찬자가 개입하여 위치를 설명한다든지, 잡지에서 ‘或云’이라는 형식으로 고국원왕대 평양 동황성 이거 기사를 소개하고 말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삼국사기》의 평양 동황성 이거 기사는 고구려인들이 남긴 원래 기록의 내용이 아니라, 평양 지역에 소재한 황성 유적과 관련해 후대 만들어진 전승을 《삼국사기》 찬자들이 채록하여 삽입한 것으로 짐작된다.

장수왕이 평양 지역으로 왕도를 옮긴 427년부터 다시 장안성으로 이도한 586년까지의 기간을 전기 평양성 시기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왕성은 대성산성이었고, 국내 지역에서 이주한 왕도의 주민들이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던 곳은 대성산성 남쪽 일대였다. 다시 산성을 왕성으로 삼게 된 것은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도 과정에서 군사 방어적 측면을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평양 시기 고구려 왕성 비정과 관련하여, 평지성-산성 체제의 통설에 따라 비상시 활용되는 산성의 역할을 한 것이 대성산성이라고 보는 한편 이와 짝을 이루는 평지성이 어디인지 찾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목받는 평지성의 후보지로는 안학궁지와 청암동 토성이 있다. 안학궁지에는 궁전 건축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지만 출토되는 와당의 시기가 늦다. 또한 고구려 중기의 석실분을 파괴하고 그 위에 궁을 세운 흔적도 확인되었다. 때문에 안학궁이 조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고구려 후기로 보거나 아예 고려 시대까지 내려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최근에는 청암동 토성을 대성산성과 짝을 이루는 평지성으로 보는 견해가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청암동 토성에서는 그간 몇 차례 발굴 조사가 있었음에도 왕궁이 아닌 사찰의 유적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대성산성에서 출토된 고식의 연화문 와당과 같은 형태의 와당이 출토되었으므로 성의 이용 시기가 이른 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발굴 결과 왕궁이 아닌 사찰 유적이 확인되었다. 청암동 토성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찰 유적은 광개토왕대에 이루어진 평양 9사의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고구려 왕도가 평지성-산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통설의 근거가 된 《周書》의 기록을 보면 정작 평지성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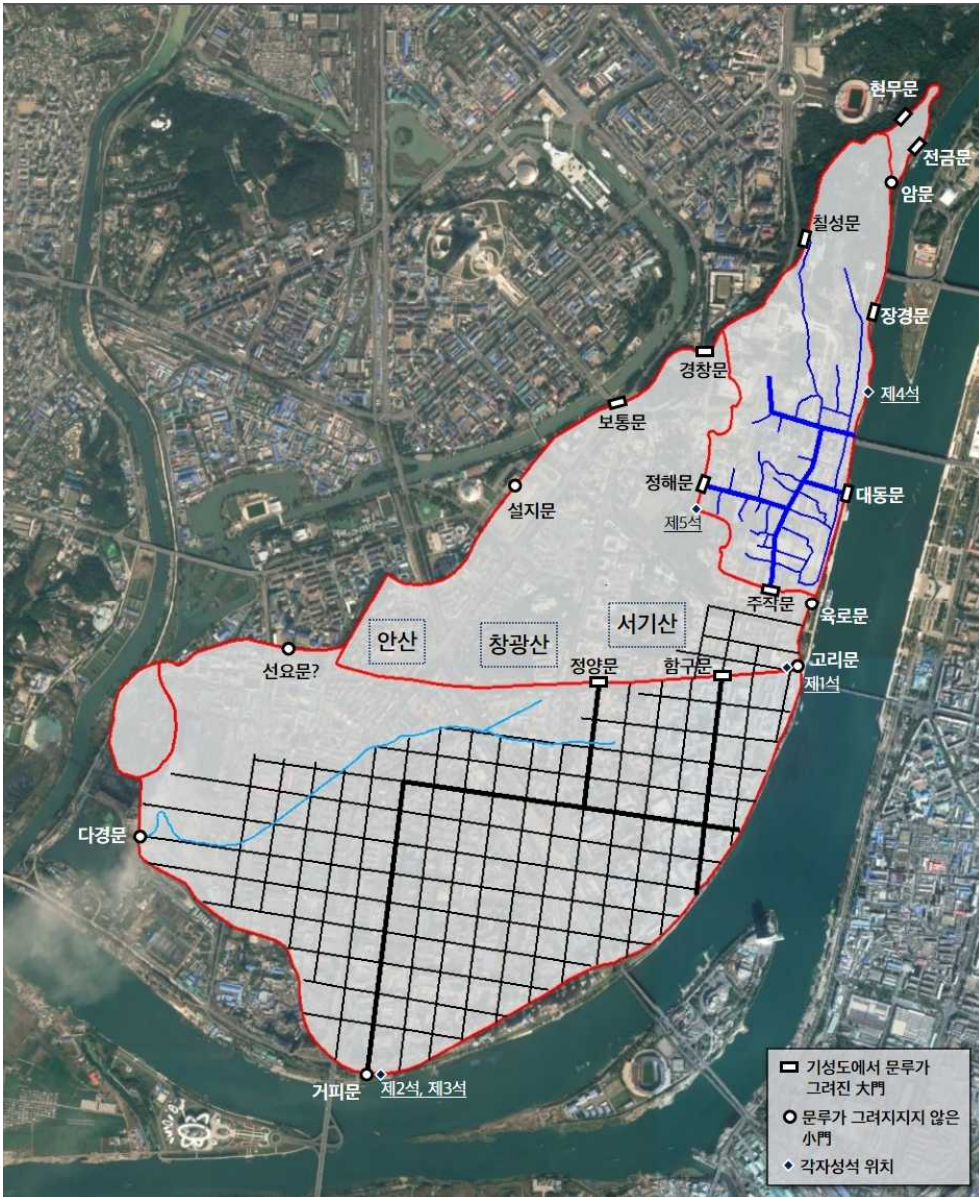
인 평양성을 산성으로 묘사하는 한편 왕은 그 옆에 따로 집[宅]을 지어 놓았다고만 하였을 뿐이다. 이는 왕의 평지 거소가 성의 형태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전기 평양성 시기 고구려의 왕성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성산성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왕이 평지에 마련된 궁에 거처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 4) 후기 평양성인 장안성

장안성은 552년(양원왕 8)에 축조를 시작하여 586년(평원왕 28)에 이도가 이루어진 후기 평양성이다. 장안성은 민리의 공간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외곽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비로소 도성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안성 축조에 대한 문헌 기록은 매우 소략하지만 축성 당시 새긴 각자성석이 여러 개 출토되어 이를 보완해 준다. 그간 장안성 연구를 주도하였던 것은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북한 학자들이었다. 타국 학자들은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북한 학계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글 어스와 같은 지리 정보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관찰과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어스의 이미지 오버레이 기능을 이용하여 장안성 성벽이 많이 남아 있었던 근대 초의 지도를 프로그램 상으로 불러와 현재의 위성사진과 중첩하였다. 이를 통해 장안성 성벽의 정확한 형태를 복원하고, 성의 둘레와 거리 등을 컴퓨터 상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 연구의 오류들을 다수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었다. 예컨대 1970년대 이래 잘못 표기되어 왔던 각자성석 제5석의 위치를 비롯하여 정양문과 함구문, 다경문과 주작문 등의 위치를 교정하였다. 육군박물관 소장 평양 기성도 조사를 통해 고리문과 육로문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것도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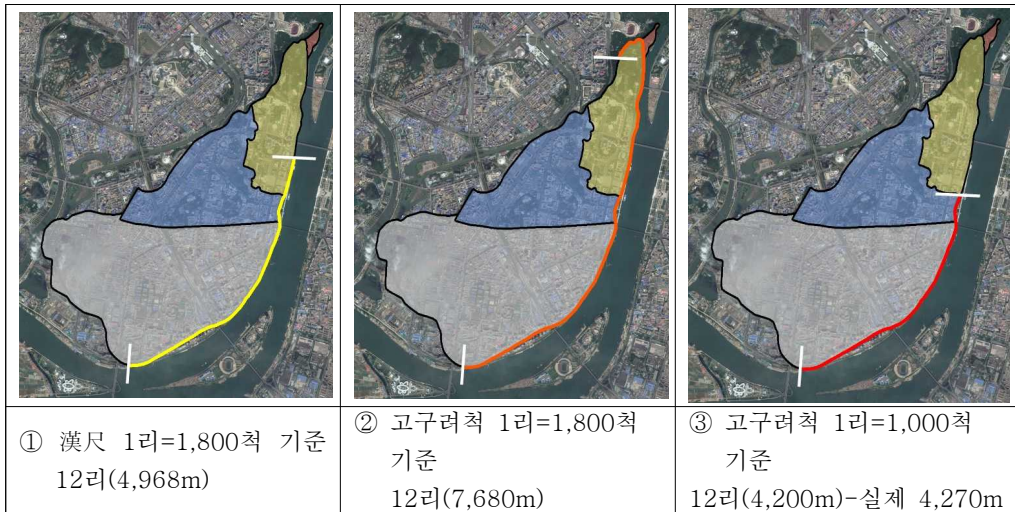
그림1) 장안성의 전체 복원도



구글 어스의 기능을 이용하여 장안성 성벽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된 만큼, 각자성석에 새겨진 축성 거리에 대해서도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장안성 축성에는 35.6cm인 고구려척이 사용되었고, 1리=1,000척의 척리법이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 학자 최희림에 의해 이

미 주장된 바 있으나, 동북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1리=1,800척의 척리법과는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글 어스를 통해 검증하여 보니 23cm의 한척과 35.6cm의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1리=1,800척의 척리법을 적용할 경우 각자성석에 새겨져 있는 장안성 성벽의 축성 거리는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1리=1,000척의 척리법을 적용할 경우에만 실제 성벽의 길이와 부합하였던 것이다.

그림 2) 제2석 ‘한사정 동쪽 12리’의 척도별 검증 결과



비교: ①한척은 1척=23cm, ②③의 고구려척은 1척=35.6cm를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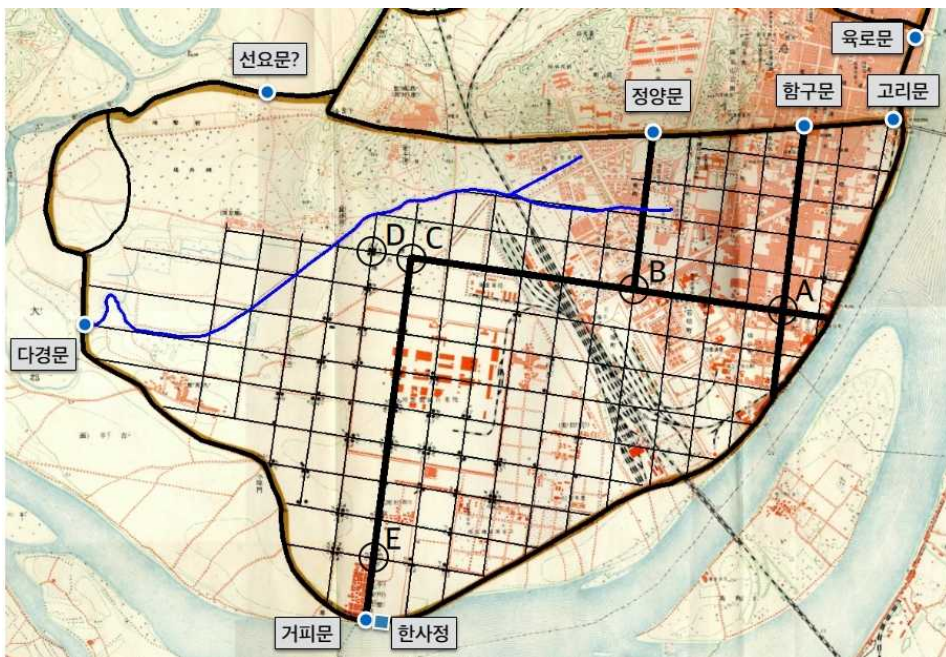
그동안 논란이 분분하였던 제1석의 발견 위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해동금석원》에 전하는 김정희의 글과 《삼한금석록》의 오경석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오탄에서 각자성석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제2석과 제3석은 외성 남쪽의 한사정에서 출토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오탄에서 출토되었다는 각자성석은 제1석으로 볼 수 있다. 제1석의 출토지를 오탄 부근으로 본다면, 제1석의 내용은 중성 남쪽 성벽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성 남쪽 성벽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그간 고구려 당대 축성설과 고

려 시대 축성설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성 남쪽 성벽은 고구려 당대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중성과 외성에는 격자형 구획이 조성되어 있는데, 중성 남벽을 기준으로 양자 간에 5도 가량의 각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중성 남벽이 조영된 이후에 격자형 구획이 만들어진 증거로 볼 수 있다. 중성과 외성의 격자형 구획이 고구려 때의 것이 분명하다면 중성 남쪽 성벽 역시 고구려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성 내 격자형 구획은 장안성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성이다. 구획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는 그간 직사각형으로 보는 견해, 정사각형으로 보는 견해, 정양문과 함구문 사이만 직사각형이고 나머지는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중 가장 나중에 발표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섞여 있다는 견해가 최근까지 많이 수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검증을 통해 이 견해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 평양성 외성 격자형 구획 복원도



비고: 1929년 석표도를 베이스로 외성의 격자형 구획을 복원. 다경문에서부터 이어지는 푸른색 선은 외성 내에 존재하였던 운하의 흔적을 표현한 것.

외성의 격자형 구획은 전 영역이 일관되게 정사각형이었다. 1929년 작성된 지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 변의 길이는 177.08m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구려 척으로 환산하면 약 497.38척이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한 변 500척 길이를 기본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田자형 구획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내부는 다시 한 변 88.54m(250척 추정) 길이의 정사각형의 소구역 4개로 구분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외성 구획이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었다고 본 북한 학자 최희림의 연구는 한백겸의 <기전도>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정작 한백겸은 그러한 서술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한백겸이 이 일대 구획의 형태를 시종일관  $4 \times 4 = 16$ 이나  $8 \times 8 = 64$  같은 수치로 표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종횡의 길이가 동일한 정방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그는 중성의 남벽과 외성의 동서대로와의 거리가 약 695~700m라는 점을 대전제로 계산을 전개하였으나, 이는 중성 남벽의 형태가 외성 동서대로와 평행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오류를 가진 것이었다.

한인호·리호의 경우 정양문과 함구문 사이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고 나머지 지역은 정사각형의 가로구획이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에게도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정양문과 함구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데서 온 오류였다. 조선시대 그려진 <기성도>와 근대의 지도를 기반으로 정양문과 함구문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한 후 측정을 한 결과 두 문 사이의 구간 역시 예외 없이 정사각형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안성에서 격자형 구획이 확인되는 것은 중성의 일부 구역과 외성 구역 뿐이다. 왕궁의 소재지로서 장안성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내성에서는 정작 격자형 구획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장안성 내성과 중성·외성의 축조 시기와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각자성식에 따르면 내성이 축조

된 시기는 566년(평원왕 8)이고 중성과 외성이 축조된 시기는 589년(평원왕 31)이다.

기존에는 장안성 축조가 내성과 중성·외성을 모두 포함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내성은 왕실의 별궁 개념으로 축조되었던 것이고, 중성·외성의 축조는 589년 수의 중국 대륙 통일이라는 미증유의 사건과 맞물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기획된 것이다. 이때 대성산성 아래 살고 있던 평양 주민들을 대거 장안성으로 이주시키며 왕도의 중심 공간을 옮기게 되었으므로 평양 권역 내에서의 가까운 이동이었음에도 ‘이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 3. 결론

고구려 왕도의 전 시기를 살펴보면 산성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인들은 산성을 단순히 피란성으로 이용하였던 것이 아니다. 환인의 오녀산성(홀승골성), 집안의 산성자산성(환도성), 평양의 대성산성(평양성) 모두 해당 지역에서 탁월하게 돋보이는 경관을 지닌 곳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인들은 산성을 왕도에서 가장 신성하고 권위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국가 제의는 물론이고, 왕이 거처하며 정무를 보는 왕성으로 이용하곤 하였다.

물론 고구려의 왕성, 혹은 왕궁은 산 아래 평지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평상시에는 평지성, 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성’이라는 도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보다 왕의 거소에 대한 고구려 특유의 유연한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왕들은 필요에 따라 산성에서 평지로, 평지에서 다시 산성으로 거소를 옮겨 가며 국가를 통치하였다.

산을 중시하였던 고구려인의 관념은 중국의 도성제를 도입한 장안성 단계에서도 확인된다. 장안성은 민리의 공간을 보호하는 외곽성을 두르고, 성 내부에는 정연한 격자형의 주거지 구역과 도로를 갖추었다. 과거와는 구분

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왕도로 창출되었다. 하지만 장안성에서 왕궁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곳은 내성 북쪽의 높은 지대로서, 모란봉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산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장안성은 중국식 도성제를 도입하여 건설된 도시이지만, 한편으로는 왕도의 상징 공간으로서 산을 중시하였던 고구려 고유의 전통 또한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왕도 연구는 자료의 부족과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글 어스라는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물이다.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한다.

# 高句麗와 隋 전쟁 연구

정동민 (한국외대)

## I. 서론

589년에 중국 대륙을 재통일한 수는 동북아에서 다원적인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 질서를 추구하였다. 이로써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고구려와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결국 598년 2월 고구려의 요서 공격을 시작으로 612년, 613년, 614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고구려·수 전쟁이 전개되었다.

고구려·수 전쟁 관련 연구를 보면 크게 두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국제 정세와 연관시켜 전쟁의 원인, 영향, 전쟁 당사자 간의 관계 혹은 주변 집단들과의 관계 등을 다룬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의 원인이나 양국의 관계, 당시 동북아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군사사적 관점에서 군단 편성, 전략·전술, 무기 체계, 방어 체계, 전쟁 및 전투의 전개 과정 등을 다룬 연구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전쟁사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자체에 대한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쟁사적 관점에서 군대 편성, 무기 및 병종 체계, 진군 노선, 구사된 전략과 전술 등을 검토하여 전쟁 속에 보이는 전투 양상을 최대한 파악해봄으로써, 고구려·수 전쟁을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군사사적 관점에서 본 연구 성과들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 번째 전쟁 전개 양상에 관심을 갖고 양국의 전략·전술이나 전쟁 승패를 가른 요인을 검토한 연구 성과를 보면 고구려·수 전쟁 전반, 더 나아가 당과의 전쟁까지 다룬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고구려·수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한정된 사료에 의존하여 그 기록을 나열하고 전략·전술의 현상적인 측면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서 고구려의 승리 요인 혹은 수군의 패배 요인을 규명하는 평면적인 연구가 많다. 또한 연구 대부분이 612년 고구려·수 전쟁에 치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 전투 경과에만 주목한 나머지, 정작 전쟁 당사국의 군단 편성, 병종 체계, 무기 체계, 방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전쟁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전쟁 당사국들이 전쟁 수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 문헌 기록과 고고 자료를 함께 고려하면서 전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적은 편이다. 특히 무기와 방어구는 고고 자료에 의지해야 하는 측면이 강한데, 양자를 결합시킨 연구 성과는 미진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고구려·수 전쟁을 새롭게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문헌 사료를 최대한 집대성하여 종합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데, 특히 열전에 기록된 개인의 행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정한 전투에 대해 같은 정사에서도 본기, 예의, 열전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열전에 보이는 각 개인의 행보는 전쟁을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료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사료에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598년과 613~614년 전쟁 또한 군사사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고 자료도 최대한 집대성하여 문헌 사료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구려 고분 벽화나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와 방어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성곽에서 출토된 무기와 방어구는 성곽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사용 연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한반도 중부지역의 보루와 요동지역의 심양 석대자산성 등에서 출토된 자료를 활용해 무기 체계의 변화 양상과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러한 무기 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전쟁의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開戰 이전 전쟁 당사국의 준비 모습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쟁 준비과

정에서 보이는 군단 편성, 병종 체계, 무기 체계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주로 수군에 대해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수군 상황에 맞추어 고구려군이 대응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도 고구려의 대응 전략.전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II장에서는 580년~590년대의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고구려.수 전쟁을 촉발했던 고구려의 遼西 공격과 곧바로 전개된 수의 고구려 원정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군의 군대 편성과 원정군의 행보 등을 검토하고, 수군이 원정에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612년 수 양제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원정군 전체의 군단 편성, 조직 체계, 병종 구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수군의 군단 편성과 육군의 각 군별 병력 수와 관련한 각 사료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양국 사이에 벌어진 공성전과 관련하여 수군의 문제점과 더불어 고구려의 대응 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군이 공성전에서 고전한 후에 편성한 별동대에 대한 각 사료 사이의 상충 문제와 고구려의 대응 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613년과 614년 고구려.수 전쟁에 보이는 수 원정군의 군단 편성과 전략.전술을 살펴본 후, 612년 고구려.수 전쟁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전략.전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구려.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6세기 후반 동북아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수 전쟁의 발발

### 1. 580~590년대 동북아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遼西 공격

고구려·수 전쟁의 서막은 598년 2월 고구려의 요서 공격이었다. 고구려가 요서를 공격하기 전 이미 수 조정에서는 고구려 정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원정 준비는 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고구려는 수가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기 전에 유리한 정세를 이끌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요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서 공격으로 인한 전면전으로의 확대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전쟁 준비를 하기 전에 공격하고, 말갈기병 1만만 동원하였으며, 후속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요서 일부 지역에 대한 점령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수가 돌궐의 침입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 침공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계획과 예상 하에 고구려는 요서를 공격하였다.

공격 모습을 보면 당시 고구려 영양왕이 직접 지휘하였고 고구려군이 아닌 말갈 기병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수에 말갈 기병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때 동원된 말갈은 580년 초반 경에 고구려에 새롭게 복속된 속말말갈로 추정된다. 즉 고구려는 요서 공격을 통해 그동안 고구려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속말말갈의 복속을 수에 과시하여 고구려 원정이 만만치 않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수가 전쟁 준비를 하기 전에 공격 의욕을 좌절시켜 수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막고자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 문제는 고구려의 요서 공격으로 인하여 요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돌궐과 고구려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결국 원정을 결정하게 된다.

## 2. 수 문제의 고구려 원정군 편성과 진군 양상

수는 북주의 군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고구려 원정군을 편성하였는데, 육군 行軍元帥로 漢王 楊諒과 王世積, 元帥長史로 高頴, 그리고 水

軍總管으로는 周羅暉를 임명되었고, 30만 대병력이 동원되었다.

원정에 참전한 인물 중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元帥長史로 참전한 高穎이다. 고경은 582년과 589년 진 원정 때 각각 監軍과 元帥長史를 맡으면서 군수통수권을 장악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高穎이 비록 元帥를 보필하는 元帥長史였고, 군수 통수권은 공식적으로는 行軍元帥인 楊諒이 가지고 있었지만, 582년과 589년 진 원정 때와 마찬가지로 高穎이 군수 통수권을 장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수 문제는 楊諒의 나이가 20세 전후로 어렸고 전쟁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軍事 업무를 高穎에게 맡겼다고 한다.

598년 2월 고구려의 遼西 공격을 막아낸 수는 6월에 臨榆關을 출발하여 柳城을 지나 遼水를 건너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거리상으로만 본다면 臨榆關에서 錦州를 지나 柳城을 거쳐 遼水로 가기보다는 錦州에서 바로 遼水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까운데, 왜 柳城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을까. 行軍元帥 가운데 한 명인 楊諒은 并州總管이었으므로 并州總管府의 군사들이 대거 원정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柳城은 并州總管府 관할이었다. 즉 楊諒이 이끄는 군대는 柳城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臨榆關을 출발한 군대는 王世積과 高穎이 이끌었던 군대였을 것이다. 즉 王世積과 高穎이 이끄는 군대와 楊諒이 이끄는 군대는 柳城에서 만나 고구려로 함께 진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王世積과 高穎이 이끄는 군대는 柳城에 합류하였을 때 군량 부족 및 전염병이 유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후 양량과 왕세적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 楊諒은 遼水로 진군한 반면, 王世積은 회군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王世積은 예정대로 遼水로 진군하지 않고 회군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漢王 楊諒과 高穎의 생각, 그리고 高穎과 王世積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수 문제는 자신의 아들인 楊諒에게 行軍元帥를 맡겼지만, 군사 업무는 高穎에게 맡겼다. 그런데 高穎은 楊諒이 하는 말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高穎과 楊諒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楊諒이 독고황후에게 ‘高穎에게 죽는 것을 모면하였다’고 울면서 말할 만큼 갈등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高頴이 柳城에서 합류한 후, 高頴과 楊諒은 장마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遼水로 진군할 것인가’ 혹은 ‘회군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 대립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高頴은 애초부터 고구려 원정을 반대하였고 마지못해 원정에 참가하였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에게 장마로 인한 군량 부족 및 전염병의 유행은 회군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 명분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楊諒은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아직 건재하였고, 고구려 원정이 行軍元帥가 되어 처음으로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高頴에게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遼水로 진군한 것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 王世績은 高頴과 이미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楊諒보다 高頴이 훨씬 많았으므로, 高頴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회군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柳城에서 高頴과 王世績은 회군을 결정하였지만, 楊諒은 기존의 계획대로 遼水까지 이르렀다. 이 때 楊諒이 이끄는 군대 또한 군량 부족과 전염병에 시달렸다. 그리고 周羅睪가 이끄는 水軍 또한 거센 바람에 표류하고 침몰하면서 원정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고구려 원정의 실패 요인으로는 전쟁 준비 부족, 원정시기의 오판 등을 들 수 있지만, 원정 실패의 피해를 키운 것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고 전투에 익숙했던 高頴과 王世績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휘관으로 공을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원정을 강행한 楊諒의 무능함과 욕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Ⅲ.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재발과 수 원정군의 조직 구성

612년 고구려·수 전쟁은 수가 고구려와 돌궐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쟁을 통해 황제의 권위를 확인시키고 위엄을 과시하려는 수 양제의 개인적 목적과 더불어 수의 대외정책이 ‘四夷誅討’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일

어났다.

612년 수 원정군의 병력 규모 및 군단 편성과 관련해서는 612년 1월에 반포된 수양제의 조서나 『수서』본기, 예의지의 기록이 주목되었다. 그 기록 속에는 고구려 원정에 참전한 군대명, 원정에 참전한 각 군대의 병종 및 세부 구성, 원정에 참전한 총 병력 수 등이 있다.

종래 육군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24군 + 天子 6軍’ 등 모두 30개 군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런데 다른 『隋書』본기의 기록, 전쟁에 참전한 인물들의 열전 및 묘지명 자료는 기존의 통설과 배치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공성전 이후 별도로 참전하였던 遼城道軍과 增地道軍, 范安貴가 소속된 險瀆道軍, 遊元이 소속된 蓋牟道軍 등은 위의 30군명에 보이지 않는 군명이었다. 그리고 李敏이 新城道軍으로 612년 혹은 613년 원정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軍名에 보이는 新城은 4세기 이래로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新城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군대의 軍名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梁彥光은 613년 고구려·수 전쟁 때 盧龍道軍으로 참전한 바 있는데, 613년 원정에 참전한 또 다른 군대인 扶餘道軍, 碣石道軍, 朝鮮道軍, 蹋頓道軍, 滄海道軍 등은 612년 고구려 원정에 보이는 軍名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 볼 때 612년 원정 때 참전했던 군대의 軍名을 613년 원정 때에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613년 원정이 상대적으로 병력 수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軍名의 군대를 조직하여 군사들을 새롭게 편제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盧龍道軍’이라는 軍名 또한 612년 고구려 원정 때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만약 위의 추론이 맞는다면, 612년 전쟁 때 수나라 육군의 軍名으로 30개, 天子 6軍까지 합하면 모두 36개의 軍名을 확인할 수 있다. 수나라 육군이 고구려로 출발한 정황과 관련하여, 涿郡에서 ‘매일 한 군이 출발하여 40일이 되어서야 출발을 마쳤다’는 기록을 참고해 볼 때, 수나라 육군은 ‘34군 + 天子 6軍’ 등 모두 40군으로 편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水軍으로는 滄海道軍 1군만 편성되었는데, 東萊를 출발하여 涿水로 들

어가 평양에 도착해서 전투를 수행함은 물론, 평양에서 육군과 만나 군량미를 보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612년 고구려 원정에 참전한 수군 병력 수의 경우 '1,133,800명이었고 군량미를 수송하는 사람은 그 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병력의 2배'라고 하는 미곡 운송 인원은 전쟁 준비 기간에 涿郡, 瀘河鎮, 懷遠鎮 등으로 군량미를 옮겼던 민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실제 고구려로 진군한 병력은 1,133,80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는 611년 4월에 水手 10,000명과 弩手 30,000명, 排鑕手 30,000명을 징발한 바 있는데, 水手는 분명 水軍일 것이고, 짧은 창인 排鑕은 水軍에 유리한 무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4월에 징발되었다는 水手, 弩手, 排鑕手 등 총 70,000명은 水軍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육군은 1,133,800명에서 水軍 70,000명을 뺀 1,063,8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수나라 육군이 모두 40군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한 바 있는데,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육군 한 군의 병력 수를 추산하면 약 26,000명이 된다. 『隋書』李渾傳에는 李渾과 李敏이 반역자로 몰리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李敏의 처인 宇文氏가 李渾이 李敏에게 '만약 遼水를 다시 넘으면 너와 나는 반드시 大將이 되고 각 군 20,000여명 합쳐서 50,000명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토대로 육군 한 군의 병력 수를 파악해 본다면 약 25,000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상기 추산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40군 가운데 6군은 天子 6軍이었다. 天子 6軍이 수 양제나 문무 백관을 호위하였던 군대인 만큼, 나머지 34개 군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수나라 육군의 각 군은 기병, 보병, 輜重戎車散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병은 중장기병이 주력으로 장창부대와 弓矢부대가 있었고, 보병은 쇠뇌부대와 창부대가 있었다. 輜重戎車散兵은 募人들이 주축이었는데 일시적으로 병력 수만 채우는 예비군, 戎車를 이용해 군량 등 물자를 옮기는 보급병, 공성 기계를 만드는 工人 등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병·보병·輜重戎車散兵 각각의 병력 수와 한 군의 총 병력 수에 대해서는 『隋書』 권8

禮儀3 大業 7년조에 기록되지 않은 보병 각 隊의 군사 수와 輜重戎車散兵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육군에는 天子 6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 군과 天子 6軍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 군을 살펴보면, 기병은 4團이 있었고 1團은 10隊로 구성되어 있으며 隊마다 100기가 있었다고 하므로, 각 군마다 4,000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병은 4團이 있었고 각 團에는 20隊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전술하였듯이 隊마다 몇 명의 군사가 편제되어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았다. 보병 1團에 대하여 20隊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기병 1團이 10隊로 구성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보병 1隊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기병의 隊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기병과 마찬가지로 한 隊를 100명으로 본다면, 각 군의 보병 수는 약 8,000명이 된다.

한편 天子 6軍의 경우, 御營弩手로만 30,000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각 군마다 弩手만 약 5,000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水軍의 예를 보면, 弩手와 排鑕手로 각각 30,000명이 동원되었는데, 弩手와 排鑕手の 비율 구성이 1 : 1이었다. 이러한 水軍의 예를 참고한다면, 육군 각 군의 弩手와 창병의 비율 또한 1 : 1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天子 6軍 내의 창병도 弩手와 마찬가지로 30,000명이었고, 각 군마다 5,000명이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天子 6軍에 소속된 각 군의 보병은 일반 각 군의 보병이 8,000명이었던 것과 달리 1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보병에서 차이가 있다면 기병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율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일반 각 군의 기병이 4,000기였으므로, 天子 6軍 각 군의 기병은 5,000기였을 가능성이 있다.『隋書』李渾傳을 참고하여 한 군을 약 25,000명으로 파악한다면, 輜重戎車散兵은 약 13,000명이었다고 추정된다.

만약에 일반 군 각 군이 2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天子 6軍을 뺀

34개 군의 총 병력 수는 약 850,000명이 된다. 앞서 육군의 총 병력 수를 1,063,800명이라고 추산하였으므로, 天子 6軍은 육군 총 병력 수 1,063,800명에서 34개 군 병력 수 850,000명을 뺀 213,800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天子 6軍 각 군의 병력 수는 대략 35,000명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天子 6軍의 각 군에 기병이 5,000기, 보병이 10,000명이 있었다고 추산하면 輜重戎車散兵은 약 20,000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수 원정군의 지휘 체계를 살펴보면, 각 군대에는 大將, 亞將, 監軍, 受降使者가 각각 한명씩 있었다. 大將은 정3품인 大將軍이나 종3품인 將軍이 맡았고, 亞將은 정4품 武賁郎將이 맡았다. 監軍은 長史가 맡았는데, 大將軍을 보조하면서 조언을 하거나 군을 관리.감독.감시.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受降使者는 大將급인 3품보다 1품 혹은 2품이 낮은 4~5품 관리가 맡았는데, 정식으로 고구려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황제의 조서를 받들었으며, 백성을 慰撫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 양제는 受降使者 배치를 통해 적군에게 아량을 베풀면서 승리를 거둘 줄 아는 군주상을 대거 표출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IV.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 양상과 고구려의 전략.전술

### 1. 공성전의 전개와 고구려의 방어.무기 체계 재정비

#### 1) 고구려군과 수군의 공성전 전개 양상

수 원정군은 612년 1월 涿郡 출발 이후, 臨渝關을 지나 瀘河鎮 혹은 懷遠鎮에서 군수 물자를 보급 받은 후 3월에 遼水에 이르렀고, 4월에 요하를 건넌 후부터는 공성전을 전개하였다.

고구려군과 수군의 가장 대표적인 공성전은 4월부터 벌어진 요동성 전투

이다. 수군은 고구려군의 항복을 받는 등 함락 직전까지 몰아갔으나 결국 실패했다. 수군 지휘부는 전투에 대한 모든 상황을 수양제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만 했는데, 당시 양제는 大陵河 하류의 錦洲 일대로 추정되는 臨海頓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간적인 거리가 형성되어 요동성 전투 지휘관과 수 양제 사이의 보고·지시의 신속성은 떨어졌고, 전선 부대는 장기간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고구려군은 전열 정비 시간을 벌었고, 수군의 계속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지휘 체계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다. 大將의 전투에 대한 주요 상황 보고나 의견 표명은 각 군에 배치된 受降使者를 통해 수 양제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受降使者의 또 다른 역할이 大將을 통제·견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大將의 보고나 의견을 일부 무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선택하여 수 양제에게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수 양제가 전투를 지휘관의 보고를 직접 받지 못함으로 인한 정확한 전황 파악 실패 또한 지휘 체계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 2) 고구려의 성 방어체계 재정비와 원사무기의 활용

종전에는 양국의 공성전이 상기와 같이 요동성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고(구)려의 각 성(高麗各城)이 지키니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기록, 懷遠鎮과 瀘河鎮 두 鎮에 보급기지를 두었다는 점, 王仁恭이 한 개의 군을 이끌고 가서 고구려군을 격파하였다는 기록 등을 볼 때, 여러 군대가 각기 다른 원정로로 진군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고구려 성곽에서도 공성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성전 당시 고구려가 사용한 무기와 관련하여 비교적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양 석대자산성이 주목된다. 산성에 출토된 무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철촉인데, 5세기 후반~6세기 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한 고구려 보루의 철촉과 비교해보면, 촉두 길이, 너비, 두께 모두 길거나 두껍다. 이는 촉두의 너비가 넓어지고 두께가 두꺼워졌어도 적군

의 갑주를 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쇠뇌이다. 고구려는 6세기 후반 수와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수한 쇠뇌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고, 쇠뇌 중심의 전술 변화를 꾀한 바 있다. 성곽전의 특성상 원사무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이외에 수군 기병의 주력이었던 중장기병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우수한 원사무기를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성 방어전술에 막혀 수군은 병력과 물자를 총동원하였음에도 고구려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게 되었다.

## 2. 수 원정군의 별동대 편성과 고구려의 대응 전술

### 1) 수군의 별동대 편성 시점과 군단 구성

수군은 공성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져 점차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 양제는 점령하지 못한 고구려의 성들을 그대로 후방에 둔 채 성을 우회하여 직접 평양성으로 진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별동대 편성을 지시하였다. 별동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각 군은 이미 瀟河鎮이나 懷遠鎮에서 출발하여 각기 다른 경로로 진군하던 도중에 별동대 임무를 부여받았고, 압록수 서쪽에서 별동대 임무를 맡은 다른 군과 만나 함께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종래 수나라 별동대의 군단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다. 사료에는 수 별동대가 9개 군, 305,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기록대로 계산해 본다면 별동대 한 군은 약 33,900명으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그런데 전체 병력 1,133,800명을 기존의 견해대로 24군 혹은 30군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다면, 한 군은 각각 47,240명과 37,800명이다. 앞에서 필자는 일반 군은 대략 25,000여명, 天子 6軍은 35,00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유추한 바 있는데, 필자의 추론과도 큰 차이

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별동대에 참전했던 楊義臣이라는 인물이 주목된다. 그는 肅愼道軍으로 별동대에 참전하였는데, 肅愼道軍은 별동대를 구성하였다는 9개 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9개 군 이외에도 다른 군이 별동대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약에 필자의 추론대로 한 군이 약 25,00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별동대는 대략 12개의 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9개 군과 肅愼道軍 이외에 어떤 군이 참전하였을까. 먼저 전쟁 종결 후 양제가 평양성으로 진군하다 패전한 장수를 처벌한 기록이 주목된다. 양제는 요동성 전투를 직접 지휘하였다가 결국 공략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별동대의 평양성 함락 실패를 전쟁 패배의 요인으로 몰아갔다. 史祥의 경우 처벌의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별동대로 참전하였던 인물들만 처벌받은 게 확인된다는 점, 처벌 수위가 별동대에 참전했던 장군과 같다는 점에서, 별동대 패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가 소속된 蹋頓道軍 또한 별동대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遊元은 전쟁 패배 책임에 대한 옥사를 심리하였다. 수 양제가 遊元에게 옥사를 심리게 한 것은 그가 군대를 감찰하는 監軍으로 별동대로 참전함으로써 패배에 대한 정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遊元이 소속된 蓋牟道軍 또한 별동대로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2) 수 별동대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 전술

별동대로 차출된 각 군은 瀘河鎮이나 懷遠鎮에서 출발하여 각기 다른 경로로 고구려로 진군하는 도중에 별동대 임무를 부여받았고, 압록수 서쪽에서 만나 함께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군사가 짊어져야 할 군수 물자가 늘어남에 따라 군수 물자를 감당하지 못한 군사들이 군량을 버리게 되면서 별동대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별동대가 압록강 서쪽에 주둔하고 있을 때, 고구려 을지문덕은 별동대 군영으로 가서 동정을 살핀 바 있는데, 이는 왕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별동대에 대해 고구려 조정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우선 청야전술을 펴면서 거짓으로 패배하고 계속 도망을 치는 유인 작전을 펼쳤다. 전황을 지구전으로 끌고 가서 식량 결핍과 피로를 가중시켜 수군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모시켜 약화시킨 후, 결정적인 시기에 출격하여 일거에 섬멸시키려는 작전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수 별동대가 고구려군에 의해 쫓겨 살수에 이르렀을 때, 수 별동대 절반이 살수를 건너 병력이 둘로 나누어지자, 살수 건너편에 고구려군이 나타나 별동대의 후방군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가 살수에서 별동대에 대해 양공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압록강-평양 사이의 성 방어체계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군은 수의 별동대를 평양성 근처까지 유인하는 과정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압록강 - 평양 사이의 성 방어체계 또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 별동대가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살수로 후퇴하였을 때, 룡한산성, 용오리산성, 철옹성 등 살수 북쪽에 있는 성들이 연계하여 군사들을 파견함으로써 별동대 후방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방과 후방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은 수의 별동대는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였다.

공성전에서의 고전, 평양성으로 직접 진군하려 했던 별동대의 대패, 그리고 水軍의 대패 등으로 인해 수군은 고구려 원정에서 철군할 수 밖에 없었다.

## V. 613년.614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 양상과 양국의 전략 변화

수 양제는 613년과 614년 계속해서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613년 편성된 군대로 육군으로는 扶餘道軍, 碣石道軍, 盧龍道軍, 蹋頓道軍 등이 있었

는데, 이를 통해 612년 당시 편성된 軍名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 요동성을 공격한 군대, 평양으로 직접 진군하려고 했던 별동대 등이 있었다. 水軍으로는 滄海道軍, 朝鮮道軍 등이 있었다. 그리고 육군 각 군의 병력 수는 613년과 614년 모두 612년 전쟁 때와 같은 약 25,000명이었다.

수군은 613년 고구려 원정 준비에 앞서, 612년 전쟁에서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열의가 없었던 부병을 줄이고 모병을 통해 驍果를 투입시켰다. 효과는 나이 제한 없이 남들보다 무예가 뛰어나고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전쟁에 대한 의욕이나 전투력이 부병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별동대가 보여준 군수 물자 운반 문제를 인지하면서 고구려의 강역에 더욱 가까운 곳에 군수 물자 보급 기지를 두었다. 세 번째, 수 양제와 지휘관 사이에 원활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전투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각 지휘관에게 편의종사권을 부여하였다. 네 번째 水軍을 2개 군으로 나누고 투입 시기를 늦추었다. 2개 군으로 편성한 것은 612년 전쟁 당시 막강한 군권을 바탕으로 견제 세력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였다가 水軍에 큰 피해를 입혔던 내호아의 권한 축소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水軍 투입 시기를 늦춘 것은 水軍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12년 전쟁 당시 水軍의 가장 큰 역할은 평양에서 육군과 만나 군량미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그와 더불어 군량미 보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전투에도 대비하였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적극적으로 해전에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군의 지원 없이 水軍 병력만으로 평양성으로 들어가 전투를 수행하였다가 대패한 바 있으므로, 또 다시 水軍만으로 평양성에서 전투를 벌일 계획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해전 혹은 전투를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은 대거 축소되고 육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하는 역할이 커지게 됨에 따라 육군의 진군 상황과 일정을 토대로 水軍의 출발 일정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변화도 있었으나, 고구려로 진입하는데 있어 여러 루트를 이용하였고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별동대를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략.전술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만약에 수 양제가 전략.전술을 크게 변화시킨다면 이는 612년 고구려.수 전쟁 당시 최고 지휘자였던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전면적인 전략.전술의 변화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수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613년.614년 전쟁을 수행하였지만, 楊玄感의 반란 등 수 내부 각지에서의 봉기로 인하여 철군할 수 밖에 없었다.

수 내부에서 농민 봉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수 양제는 친위군의 쿠데타에 의해 살해되고, 군웅 할거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李淵이 황제로 즉위하여 당을 세우면서 수는 멸망하고 말았다. 수의 멸망으로 인한 다원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고구려는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회복과 왕위 교체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수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VI. 결론

## <목차>

- I. 서론
- II. 6세기 후반 동북아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수 전쟁의 발발
  1. 580~590년대 동북아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遼西 공격
    - 1) 수의 돌궐 공략과 고구려의 서북 방면 진출
    - 2) 고구려·수 관계의 악화와 고구려의 遼西 공격
  2. 수 문제의 고구려 원정군 편성과 진군 양상
    - 1) 수 원정군의 군단 편성과 조직 체계
    - 2) 수 원정군의 진군 경로와 내부 갈등
- III.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재발과 수 원정군의 조직 구성
  1. 7세기 초 국제정세의 변동과 고구려·수 전쟁의 재발
  2. 수 원정군의 군단 편성과 병력 수
  3. 수 원정군의 지휘 체계와 병종 구성
- IV.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 양상과 고구려의 전략·전술
  1. 공성전의 전개와 고구려의 방어·무기 체계 재정비
    - 1) 고구려군과 수군의 공성전 전개 양상
    - 2) 고구려의 성 방어체계 재정비와 원사무기의 활용
  2. 수 원정군의 별동대 편성과 고구려의 대응 전술
    - 1) 수군의 별동대 편성 시점과 군단 구성
    - 2) 수 별동대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 전술
- V. 613년·614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 양상과 양국의 전략 변화
  1. 수 원정군의 군단 편성과 전략 변화
    - 1) 수 원정군의 군단 편성과 驍果의 투입
    - 2) 수 원정군의 지휘 체계와 水軍 편제의 변화
  2. 613년·614년 전쟁의 전개 양상과 고구려의 대응 전략 변화
    - 1) 613년 전쟁의 전개 양상과 고구려의 대응 전략
    - 2) 614년 전쟁의 전개 양상과 외교 교섭을 통한 講和
  3. 전쟁의 종전과 국제정세 변화
- VI. 결론

# 清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 이선애 (고려대)

본 발표자는 박사논문에서 후금에서 청 초기까지 만주-몽고 관계의 변화상을 고찰하고 후금 시기 만주정권의 '외번'(tulergi golo)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이후 외번이 물리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검토했다. 이러한 만몽 관계의 역사적인 변화상과 이번원의 역할·성격을 통합적으로 고찰해 청대 '외번'의 인식이 몽고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발전했으며 외번 통치 기구인 理藩院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청조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서 약 300년간 중국을 지배하며 지속적인 영토 확장을 통해 현재 중국의 판도를 완성했다. 지배층이 소수의 만주족이었던 청조가 중국내지와 몽고, 신강까지 아우르는 제국 통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몽고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수립한 것이었다.<sup>1)</sup> 몽고 세력은 청이 입관하기 전 건주여진 시기부터 입관 후 청이 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청 정권의 지배층인 만주족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청 제국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청은 몽고에 대해 이전 한족왕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 명은 몽고 등의 이민족이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이며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華夷論的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청은 자신들과 몽고의 동질성을 부각시키고 한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만주와 몽고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만주와 몽고는 오랜 기간 정치·군사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

1) 본고에서는 몽골이라는 표현대신 몽고를 사용한다. '몽고'라는 표현이 몽골의 편칭이라는 인식도 있으나 만문사료에서 monggo라고 표기할 때 편칭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외번몽고'라는 사료용어도 본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으로 편의상 '몽골'이 아닌 '몽고'로 지칭하고자 한다.

밀접하게 얽혀 있었으며 이는 청이 내륙아시아로 영토를 팽창하고 나아가 제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몽고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보이는 만주족 정권의 내륙아시아적 성격은 한족 정권인 명과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청 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주여진-후금-청으로 이어지는 만주족 정권과 몽고 세력의 관계는 청대 ‘外藩’의 형성, 확대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청대에 외번은 藩部, 藩國, 屬國, 藩服 등으로도 불렸으며 사용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어휘였다. 몽고, 티베트, 신강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안남, 조선까지 외번으로 불렸으며 러시아, 영국, 일본 등도 포함되었다. 외번은 말 그대로 ‘바깥의 울타리’로서 황제가 있는 內地 밖에 거주하는 민족이나 외국은 모두 외번에 해당했다.<sup>2)</sup> 그러나 청 초기에 외번은 주로 몽고 부족들을 의미했다. 흥타이지 치세에 들어 ‘外藩蒙古’라는 표현이 내몽고 부족들의 범칭으로 사용되었고 내몽고의 수장들은 ‘외번왕공’으로 불려 만주왕공과 구분되었다. 청대 ‘외번몽고’는 흥타이지가 내몽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범위는 강희 중엽 外할하(할하로 약칭)의 복속으로 인해 고비사막 이북으로 확대되었다.<sup>3)</sup>

이후 옹정·건륭 연간을 거치며 오이라트와 청해 지역도 청대 외번에 편입되었다. 내몽고, 할하, 오이라트, 청해몽고 등으로 구분된 몽고 세력은 청대 외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만청사稿해列傳』 藩部 편에서 마지막 西藏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몽고는 청대 번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대에 ‘外藩蒙古’는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었다.<sup>4)</sup> 따라서 만주와 몽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청대 외번의 특징과 청 제국의 팽창과 확대, 나아가 청대 세계질서와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2) 張雙智, 「清朝外藩體制內的朝覲年班與朝貢制度」, 『만청사研究』 2010년 3기, p.109.

3) 外할하는 고비 사막 이남에 분포한 內할하 5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명칭이다. 이들 ‘할하’는 다얀 칸의 후손들로서 다얀 칸의 아들들에게서 분파가 형성되어 고비 사막 이남은 內할하 5부로, 고비 사막 이북으로 이주한 할하 세력은 北할하 혹은 外할하로 지칭해 양자를 구분했다.

4) 『만청사稿해』 卷518 「列傳」 305 ‘藩部一’부터 卷524 「列傳」 311 ‘藩部七’까지가 모두 내외몽고·청해 지역 몽고에 관한 내용이다.

데 매우 중요하다.

청대 외번은 이전 중원 왕조의 宗藩 제도에서의 藩이나 조공국과는 다른 성격과 개념을 가진다. 본래 ‘藩’(혹은 番)이라는 용어는 중화주의적 천하질서에서 천자가 거한 중원을 둘러싼 분봉 제후와 변방의 이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先秦 시대에 출현한 종번사상은 分封을 통한 천자와 동성·이성제후들 간의 군신 관계와 이에 따른 정치적 의무를 규정했다. 秦漢시대 이후 지방분권적이던 정치형태가 중앙집권체제로 변화하면서 천자의 직접 통치 지역 바깥에 위치한 藩의 범위와 의미도 변화했다.

분봉의 대상이 동성·이성제후에서 이민족 통치자에게로 옮겨가면서 천자가 거한 중앙 직할지의 외연에 위치한 ‘번’은 계속 밖으로 확대되어 非한족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 수장들은 藩臣으로서 천자와 군신예속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상징적 체계로서 중원의 천자가 이민족 지역에 실질적 통치를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전통적 천하질서에서 파생된 ‘藩部’라는 어휘는 청대에 들어서 청의 통치를 받는 변방의 非한족 거주 지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정치적 개념으로 발전되었다.<sup>5)</sup> 이것은 조공체제의 틀에 편입되어 있지만 독립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속국과도 다른 개념이었다. 이 양자를 한데 묶어 ‘藩屬’으로 통칭하고 동일시하는 의견도 있지만 청조가 정책적으로 번부와 속국을 분리해 대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sup>6)</sup>

5) 張永江, 清代藩部研究-以政治變遷爲中心,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p.1.

6) 黃松筠은 藩屬을 중앙왕조와 예속 관계에 있는 지방 정권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周代부터 청 말에 이르는 번속이론의 발전 단계를 추적했다. 그는 번속이 중앙정권에 복속한 이민족 자치 지역이며 중국통일왕조의 일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황송균은 번속이 번부와 속국의 합칭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양자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중원을 지배한 이민족 정권의 특징을 희석해 중국통일왕조의 일부로 해석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변화한 중국의 대외관계와 인식을 주종관계로 단순화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黃松筠,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8; 「中國古代藩屬理論初探」, 遼東史地 2009년 4기). 이에 비해 장영강은 번속이 중앙왕조와 종번관계에 있는 이민족 혹은 속국을 의미하지만 청대에는 번부와 속국의 합칭으로 사용되었고 양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며 시대에 따라 각각의 함의도 변화했다고 지적했다.(張永江, 앞의 책, pp.23-32). 滿清史稿 해 「列傳」에서 번부와 속국을 따로 분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조는 번부와 속국을 구분해 정책적으로 다르게 대응했다. 청조가 몽고·티베트·신강 등을 번부로서 조선·유구·안남 등의 속국과 분리시켜 理藩院을 신설해 관할하게 했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Mark Mancall은 조공체계에서 유교적 사상체계를 공유하는 농경국가인 조

선진 시대에 형성된 종번사상이 계속해서 확대 발전된 것이 말해주듯 중원왕조의 주변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은 계속 변화했으며 이는 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sup>7)</sup> 청대 외변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청의 영향력과 통제 아래에 있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청조의 통치는 지역 수장층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사회조직을 재편하고 별도의 법령을 정해 적용했으며 이번원 관원과 將軍, 大臣, 都統 등의 중앙 관원을 파견해 행정, 군사업무를 관할하게 했다. 이러한 외변에 대한 행정적·법적 지배 형태는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조공국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청조는 정책적으로 몽고를 비롯한 외변의 지역 수장들을 청 정권의 권력구조 내로 편입해 청조의 공고한 ‘울타리’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청대 외변은 단순히 이전 한족왕조의 중화사상에 기반 한 종번관계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었다. 입관 전부터 시작된 몽고와의 관계에서 외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물리적 지배체제가 마련되었으며 지역적으로 확대되었다. 입관 전 만몽관계는 후금이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대외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누르하치는 내몽고 세력을 동맹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할하 5부와 코르친 등 내몽고 부족들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명과 후금을 오가며 균형을 유지했다. 후금으로서 이러한 내몽고 부족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아이신 구룬(aisin gurun, 金國)의 汗(han)으로 추대된 흥타이지는 누르하치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몽고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차하르와 명을 공동의 적으로 하는

---

선·안남 등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초승달지역과 유라시아 유목민이 거주하는 서북 초승달 지역을 구분했다. 이들은 청대에 각각 이번원과 예부가 나누어 관리했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Mark Mancall, “The Ch’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최정연, 「理藩院考(上)」, 『만주문화』20집, 1982, p.133.

7) 김선민은 청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만명사해』 『만청사료해』에서 조선을 설명한 방식을 검토해 고찰했다. 그는 중국적 세계질서 즉 조공관계의 충실한 일원으로 꼽히는 조선에 대한 청의 인식이 시기에 따라 ‘외국’에서 ‘속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추적해 청과 조선의 관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존재였음을 밝혔다. 김선민, 「‘外國’과 ‘屬國’의 사이」, 『만사』41호, 2012.

만몽연합세력을 구축하고 원정을 주도하면서 내몽고 수장과 군사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해갔다. 이는 내몽고 부족에 대한 행정적 편제와 법령 반포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코르친부 수장 오오바와의 갈등이 노정되었고 몽고를 재통일하려는 립단 칸과의 결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했다.

홍타이지 치세에 질적으로 변화된 만몽관계는 蒙古衙門-理藩院의 설립으로 가시화되었다. 홍타이지는 몽고아문(monggo jurgan)을 이번원(tulergi golo be dasara jurgan)으로 전격 개칭했는데 만주어 명칭으로 보면 tulergi golo(外路)가 monggo(蒙古)를 대체했으며 滿·蒙·漢語의 명칭에서 각기 tulergi golo와 ‘外蒙古’, ‘外藩’이 대응되었다. 원래 tulergi golo는 중앙에서 떨어진 바깥 지역을 의미하지만 변경 밖의 다른 나라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즉 중앙에서 떨어져 있으나 후금의 세력 범위 내에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만문사료에서 천총 말 송덕 연간 이후 내몽고 부족들을 범칭할 때 관용적으로 tulergi golo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에 몽고 부족을 변경 밖의 다른 나라(jasei tulergi encu gurun)가 아닌 후금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 인식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는 외번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송덕 연간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번에 대한 만주족 정권의 인식은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파생된 ‘藩’의 개념과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홍타이지 치세에 발전된 만몽관계에서 몽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이는 이후 청대 외번의 출발점이자 배경이 되었다. tulergi golo는 이후 외번으로 한역되어 고착되었으며 처음에 몽고 부족을 지칭하던 외번은 중국적 천하질서의 사상체계가 수용되고 청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념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청대 관찬사료와 그에 기반 한 중국 학계의 외번몽고 연구는 청대 몽고 관계가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했으며 외번몽고가 청 제국의 발전과 팽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의 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간과했다. 또한 할하가 청에 복속한 외번의 일부라는 결과론적 시각에서 할하 세력을 준가르와 청 사이

에 놓인 대상이나 청조 지배의 대상으로 상대화했다. 이러한 연구경향과 달리 본 발표자는 청대 외변이 청 초기의 만몽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할하와 청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자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할하에 대한 지배체제가 완비되었던 옹정·건륭 연간 이후가 아닌 청과 할하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臣屬의 관계로 변화해간 순치 연간부터 강희 중엽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는 할하가 청에 편입된 배경과 청조가 이제 막 청의 외변이 된 할하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가는 과정을 검토해 이 시기의 對할하 정책이 이후 청대 외변 확대와 통치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했다. 또한 본 발표자는 청이 할하를 복속시키기 전 양자의 관계와 상호 인식이 지역 정세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착목해 할하의 복속과 청의 통치라는 단순한 관계 설정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청대 외변몽고의 형성과정을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했다.

할하가 청에 복속하기 이전에 청이 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으며 강희 초기까지 청과 할하의 관계는 장기간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7세기 초기 할하는 북부 몽고의 광활한 지역에서 투시예투 칸, 세첸 칸, 자삭투 칸 등의 유력 왕공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각자의 세력을 유지했다. 그들은 칭기스칸의 후예로서 서부 몽고 오이라트 연맹과 서북부 몽고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順治 연간에 들어 내몽고 부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청조와 할하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시기에 할하는 조공을 매개로 청과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할하는 자신들을 차하르部 립단 칸과 같이 몽고 대칸의 정통을 이은 존재로서 청과 대등한 위치로 인식했다. 청조도 할하를 자신들의 내몽고 장악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서 조공과 호시무역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 대한 친화적 정책을 통해 견제하고 회유하고자 했다. 순치제가 이들을 小國 (ajige gurun)이나 外國(tulergi gurun)으로 언급한 것도 청의 외변 (tulergi golo)이 된 내몽고 부족들과 다른 존재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순치13년경부터 할하를 지칭할 때 gurun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각 칸의 세

력을 旗(gūsa)로 지칭한 조치는 청조와 할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 청 황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조의 의도와 달리 할하는 강희 초기까지도 청과 표면적인 조공관계 아래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외국으로서 존재했다.

청이 할하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계기는 할하 좌익과 우익의 분쟁에 준가르 부장 갈단이 무력으로 개입하면서 초래된 할하 지역의 전란이었다. 할하와 준가르, 티베트까지 연루된 일대 혼란 속에서 강희제는 청에 도움을 청한 할하 좌우익 왕공들을 장악해갔다. 강희 중엽 외번의 범위가 할하로 확대되면서 청은 내륙아시아 정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고 홍타이지가 내몽고에 추진했던 일련의 정책들을 발전·심화시켜 할하 세력을 재편했다. 홍타이지가 내몽고 수장들의 권력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정 편제를 추진했듯이 강희제도 할하 왕공들의 기존 권력구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할하 왕공의 이해관계가 강희제의 권위나 청조의 방침과 어긋난 경우 할하 왕공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강희제는 할하 旗分을 편제할 때 旗의 수와 자사크를 늘려 할하 세력을 세분화하고 약화시켰다. 또한 준가르 원정 과정에서 할하 좌익 수장인 투시예투 칸이 아닌 투멘켄(사인노안)系 왕공을 의도적으로 기용해 작위를 높여 힘을 실어준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할하 세력을 세분화하면서도 분산된 세력을 투시예투 칸, 자삭투 칸, 세첸 칸을 중심으로 재편해 간접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對할하 관계의 변화는 청조의 對蒙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이번원의 조직체계와 역할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하 업무를 담당한 柔遠淸吏司가 左·右司(前·後司)로 분리·확대되고 업무 규정도 이전과 다른 조항들이 첨가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번원은 청의 외번 확대에 따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기구이며 청대 변부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청대 외번 통치 기구인 이번원은 청조 고유의 기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원은 청조에 다문화·다민족적 특징을 부여한 非한족지역 즉 외번 지역을 관리했으므로 존재 자체가 청조의 특징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번원의 특징은 청 조정 내부에서 이번원을

만주족의 기구로 인식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흥타이지가 內三院과 이번원의 부서 위치를 바꾸려 했을 때 한인관료들이 반발한 것은 그들이 이번원을 만주족 고유의 기구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순치 연간과 강희 초기 이번원 지위의 변화도 순치제의 황권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순치제 사후 그의 개혁정책을 둘러싼 滿·漢 정치문화의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청대 중앙관서에 적용된 만한병용의 원칙이 이번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원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漢檔房의 관원과 筆帖式 등 일부 하위 관리를 제외하고는 이번원의 堂官에는 모두 만주인과 몽고인만이 임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청 말까지 유지되었다. 몽고아문이 설립된 송덕 연간에는 정치·문화적으로 몽고 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여허귀족 출신 인물들이 기용되었다. 그리고 입관 후에는 몽고 출신 기인들이 이번원 관원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몽고 수장층인 보르지기트氏 가문이거나 侍衛와 內大臣 등을 역임한 신분이 비교적 높은 만주·몽고기인들이었다. 시위와 그들을 관할하는 내대신은 주로 황제 직속의 上三旗(鑲黃·正黃·正白旗) 출신 기인들이었다. 이들은 황제의 측근으로서 조정의 핵심 권력층을 형성했다. 이번원 고위 관원에 황제의 측근 세력이 포진한 것은 청조의 몽고 관계와 번부 통치가 청 정권의 안녕과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희 중엽 할하가 청에 복속한 이후 이번원 상서에는 주로 만주기인 중에서도 청조 최고의 명문가 출신들이 임명되었다. 강희제는 외번 관련 업무의 기밀을 유지하고 외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자 황제 직속의 상삼기 출신으로서 시위를 거쳐 고위직에 오른 최측근 만주인들을 이번원 상서에 임용했다. 강희 중엽부터 이번원 상서에 만주기인을 중용한 한편 尙書 밑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侍郞과 기타 관원들에 몽고기인들이 임명되는 비중이 증가했다. 몽고기인은 청대 만몽관계와 청조의 다문화·다민족적 특징을 체현한 존재이다. 이들의 조상은 후금이 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만주족 정권 내부로 편입된 몽고인들이었다. 몽고기인은 몽고와 동류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旗人’으로 생각했다. 청조도 충실한 기인이자 몽고의 언어와 관습을 이해하는 몽고기인들을 외번몽고를 포함한 번부의 통치, 관리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번원의 최고위직인 상서 보다는 차관급인 시랑과 실무를 담당하는 司官에 몽고기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청조의 지배층은 만주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몽고기인은 ‘旗人’이었으나 결국 ‘滿洲’는 아니었던 것이다.

청대 외번은 건륭 중엽 외번몽고를 넘어 청해, 티베트, 回部(ice jecen, 新疆)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해와 티베트, 신강 지역에 대한 지배 형태는 외번몽고 보다 더욱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섭정은 여전히 세력을 유지했고 청해 지역 몽고 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天山 남부 이슬람 지역에 대한 청의 통제력 또한 제한적이었다. 청조는 옹정 연간부터 駐藏大臣, 西寧辦事大臣, 伊犁將軍 등 일종의 식민지 총독과 같은 駐扎大臣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했다. 할하 지역에도 定邊左副將軍(소위 울리아스타이 장군, 烏里雅蘇台將軍)과 副將軍 등의 제도를 통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통제망을 강화했다. 청대 외번 혹은 번부의 완성은 건륭 중엽 이후의 일이지만 청조가 추구한 외번의 전형은 ‘外藩蒙古’였다. 그리고 청 초기에 외번몽고에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은 이후 청이 외번을 통치하는 데 전례가 되었다.

본 연구는 만주-몽고의 역사적 관계를 조명하여 청대 외번개념의 특징과 청 제국의 권력구조에서 ‘外藩蒙古’가 가진 위상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청조를 한화된 중국왕조로서 바라보는 “한화이론” 그리고 중국의 대외관계를 조공-책봉 관계로 일괄한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 담론을 재검토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 발표자는 현재 정치·군사, 제도, 법,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청대 만주-몽고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대 외번관리 기구인 이번원의 위상과 역할, 인적구성 및 역사적 의미를 검토한 바 있으며, 청 태종 흥타이지 시기 몽고와의 관계와 對蒙정책의 변화를 고찰하여 흥타이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이 이후 청대 외번 통치 정책의 원

형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성과 외에 앞으로 본 발표자가 진행, 구상 중인 연구는 아래와 같다.

### 청대 몽고에 대한 법적지배 양상, ‘제국주의’와 ‘법다원성’

근래에 본 발표자는 청조가 제정한 몽고 관련법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에 천착하여 실제로 법규가 적용된 건륭 연간의 판례를 분석해 청대 몽고에 대한 법적 지배 양상을 고찰했다. 최근 청사학계에서는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의 제국적 성격에 착목해 청조의 지배체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청은 중국 내지를 비롯한 몽고, 티베트, 신강 등 소위 ‘번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청조의 제국적 혹은 다민족 국가적 성격은 청의 법률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조는 기본 법령인 만(大清)律例(大清律例) 외에 몽고, 티베트, 신강 등지에 별도의 법령을 제정했다. 청이 번부 지역에 대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적용한 사실은 ‘因俗而治’라는 번부통치의 기본정책을 반영하며 청대 법률에 다원적 특징(legal pluralism)을 부여한다. 본 발표자는 청의 제국적 특징을 청의 몽고에 대한 법적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 아울러 몽고 지역사회가 청의 법적 지배를 어떻게 수용, 조정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건륭 연간에 발생한 ‘人命’ 즉 살해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주로 다루었지만 향후 시기와 범위를 더욱 확대할 생각이다. 청조는 몽고인이 관련된 범죄 중에서 ‘人命’과 함께 가축 ‘盜竊’(강도·절도)을 가장 심각한 중대사건으로 분류했다. 유목민인 몽고인에게 가축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청조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축 절도·강도 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했다. 이번원이 황제에게 올린 범죄 관련 題本 중 가축 절도와 관련된 사안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이 연구를 통해 청조가 제정한 ‘人命’과 ‘盜竊’ 관련 법규를 몽고의 지역 수장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청 중앙과 몽고

지역관원의 의견차이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청대 법적지배가 몽고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 후금-청의 의례의 정치- 의례를 통해 본 만주-몽고관계

청 초기 만문사료에는 후금의 汗(han)과 몽고 수장들 사이에서 치러진 의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접견할 때의 拜禮 형식, 진헌품과 하사품, 연회 그리고 마중할 때와 배웅할 때의 의례, 그리고 송덕 연간의 책봉례까지 眞精實錄해에는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세세하게 남아있다.

국가적 차원의 의례는 정치이념과 권력구도가 고도로 집약된 상징체계이며 의례의 주요목적은 권력구조에서의 서열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국가는 타국의 수장이나 사신이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예우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자국의 위상을 상대국에게 인지시키기 마련이다. 입관 전 만주정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몽고 왕공들과 접촉하면서 행한 예우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상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화했다. 따라서 청대 만몽관계의 변화상을 고찰하는 데 정치·군사·제도뿐만 아니라 의례 또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이 시기의 의례를 분석해 청 정권이 훈인·작위제도 등을 통해 몽고 왕공들을 청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 안으로 편입시켰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 청과 몽고, 청과 조선의 관계 비교연구

앞으로 청대 몽고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선과 몽고에 대한 청조의 인식과 정책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한국학계에서 조선의 청에 대한 인식 변화를 규명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된 데 비해, 청에게 조선이 갖는 정치·외교상의 의미, 청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 등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자는 청조의 몽고와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후금부터 청대까지 보다 긴 스펙트럼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후금이 세

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주정권이 몽고와 맺었던 관계와 조선과의 정치적 관계 사이의 차이점은 이후 청조의 ‘외번’이 된 몽고와 소위 ‘藩屬’, ‘屬國’ 등으로 분류되었던 조선에 대한 청조의 정책상 차이와 직결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청과 몽고, 청과 조선 관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청대 대외관계가 명대 조공-책봉관계의 연장선상이었다고 보는 “중국적 세계질서” 담론을 실증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 13-14世紀 麗蒙 接境地域 高麗人 勢力 研究

오기승(중앙대)

## I. 서론

### 1. 본고의 문제의식 및 지향점

13세기 몽골과의 전쟁을 거친 이후 고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30년간 지속되었던 양국의 항쟁은 결국 고려 元宗과 쿠빌라이의 강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출륙한도를 통해 완전히 종결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내부의 제도는 물론 외부와의 관계를 포함한 고려의 세계관 자체가 변모하게 되었다. 이는 고려가 원종의 항복과 이에서 이어진 출륙한도라는 상징적 사건을 통하여 해당 시점 이후로 몽골제국이라는 새로운 거대 질서에 편입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고려라는 국가체제 내에 속해 있던 구성원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 기간 동안 고려인들은 피로인으로서 몽골의 영역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고려와 몽골이라는 두 국가의 싸움 사이에서 고려 아닌 다른 국가라는 대안을 발견하게 되어, 능동적으로 고려를 버리고 몽골에 투탁하는 구성원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또한 몽골에 의해 고려의 영토가 침탈되면서 해당 지역의 고려인들이 그대로 몽골의 체제 내에 귀속되어 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들의 결말이 모두 하나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나, 결국 이 중 일부는 몽골제국 구성원으로서의 고려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여몽전쟁 종결 이후 고려와 몽골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서 양국은 교류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고려는 몽골제국이라는 거대 질서의 일원으로서 제국

동쪽의 일각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고려는 제국 카안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도 본국의 독자적인 백성과 사직을 보존하는 다소 특이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관계 아래서 고려국왕은 원 제국 외부의 속국으로 분류되는 고려라는 외국의 왕이면서, 카안 울루스 질서 내부에서는 황실의 부마로서 한반도 지역을 屬領으로 보유한 카안의 친족이며, 동시에 원 제국의 행정체제에 속한 정동행성의 승상을 겸임하기도 하는 중층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고려라는 국가가 제국에 있어 외국이면서도 동시에 그 국왕이 제국의 체제 내에 행정적, 혈연적으로 속박된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는 고려 전기 조공-책봉관계라는 틀 속에서 事大라는 형식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였던 송, 요, 금과의 다소 형식적인 관계에 비해 더 내밀하고 밀접한 형태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비해 고려가 좀 더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으면서 상대 국가의 간섭 시도에 한층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sup>1)</sup>

이 때문에 이 시기 양국 사이에서 국경이 가지는 의미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소 얽어졌으며, 양국 간에서의 인적 이동 역시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관계로 여몽전쟁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다음 시기에 걸쳐서도 요동 일원을 비롯한 양국의 제국 측 접경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의 고려인이 산거하며 활동하고 있었으며, 활동한 고려인들의 계층 역시 높게는 왕족에서부터 아래로 일반 민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제국은 여몽전쟁 시기 이래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직접적으로 통할하는 역할 또한 종종 같은 고려 출신 인사에게 맡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쟁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걸쳐 다수의 고려인들이 한반도 북

1) 현재 원 제국과 고려 양국관계의 틀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이익주를 필두로 제기된 것으로, 어느 정도의 이질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관계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의 틀 안에서 유지되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森平雅彦가 제기한 것으로, 역대 고려국왕이 몽골 황실과의 통혼관계를 통해 부마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고려 본국이 부마 개인에게 부여된 投下領 성격을 띠게 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또 다른 시각은 김호동을 필두로 제시된 것으로, 고려국왕이 제국 외부의 속국으로 분류되는 외국의 국왕이라는 지위를 가지는데 동시에 통혼관계를 통해 속령을 보유한 부마라는 지위 또한 가지게 되면서 고려가 제국 외부의 속국이자 울루스 질서 내부의 속령이라는 이중적 위상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했다는 시각이다.

부 지역에서부터 요동에 이르는, 여몽간의 접경지역으로서 고려에 인접한 고려의 바깥 지역에 분포하게 되었다. 이들은 고려의 경계 밖에서, 혹은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고려인으로, 고려인이면서 동시에 카안 울루스의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중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의 정체성은, 결국 요동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카안 울루스 내부에서의 세력 간 관계 형성과 조율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서 이루어진 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이들과 이들이 구축한 세력의 존재 양태를 규명하고 그 활동 궤적을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복원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이 시기 고려-몽골 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의 한 단면을 다른 방향에서 조명해볼 수 있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그러나 여몽 접경지역의 고려인과 그 세력 및 정치적 배경사항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개인, 혹은 좁은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분절적 연구이거나, 전체를 다루려는 시도는 있으나 분량의 한계상 소략한 지역별 요약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요동과 한반도에 걸친 지역 전체를 조망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탈 고려인의 세력화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그 부침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이를 새로이 고찰하여 이들 세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로 고려 본국 중심의 시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고려인 세력과 관련된 또 다른 배경 축인 몽골제국의 내부 체제와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미진하였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에서는 몽골제국, 또는 카안 울루스 내부에서 고려가 가지는 위상이나 몽골 측과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국 내부 체제에 대한 연구도 이전보다 한층 진척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려와 요동 고려인 세력 간의 관계 및 이들과 몽골간의 상호작용 역시 이러한 새로운 성과 및 이에 입각한 해석에 기반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바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

본국과 아울러 몽골제국과의 접경지역이 되는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요동에 이르는 지역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고 시기적으로는 13세기 여몽전쟁 시기로부터 14세기 말 소위 원명 교체기에 이르기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여몽 접경지역 고려인 세력<sup>2)</sup>의 형성과 활동 및 주변 세력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새로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향 및 기대목표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여몽 접경지역 고려인 세력의 구체적인 전체상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다. 고찰 대상이 되는 주요 고려인 세력으로는 한반도 북부에서는 東寧府와 雙城摠管府를, 요동 지역에서는 洪福源을 시작으로 하는 홍씨 세력과 永寧公 王縉을 시작으로 하는 왕씨 세력 및 瀋陽王, 그리고 기사인테무르(奇賽因帖木兒)의 동녕부(기씨 동녕부) 세력을 포함한 기씨 세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세력들의 성쇠와 존재 양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몽골제국의 질서 내에서 이들이 가지는 위상을 살피고, 이를 위한 지표의 하나로서 각각의 고려인 세력들이 제국의 체제 내에서 수여받아 보유하였던 위계와 서열 및 그 상승과 하강의 변화 양상을 각각의 세력을 다루는 단락에서 살피려 한다.

나아가 이들 여몽 접경지역 고려인 세력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을 가늠하기 위하여 13-14세기 당대 동아시아에서 이들이 수행하였던 역할과 이들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논하려 한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고려 본국만이 아니라 여러 宗王 세력들이 존재하던 요동 지역과 그 주변까지를 포괄하는 몽골제국의 동방 경영 전체에서 이들 고려인 세력들이 수행한 역

2) 여기서 고려인 세력이라는 명칭이 곧 이 세력의 구성원이 모두 고려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반도 북부 및 요동에서는 고려인이 주류를 이루는 집단 내에 그 구성원으로 여진인이나 한인, 혹은 몽골인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여몽 접경지역 고려인 세력이란, 고려 본국의 통치권 바깥에 존재하는 세력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고려인이 근간을 이루거나 고려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해당 집단의 통제권을 보유하는 한반도 북부 및 요동 내의 軍民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할과 그 성과에 대해서 짚어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요동 지역을 위시하여 고려 경계 밖에 존재하던 고려인 세력의 존재 양태와 그 변천, 고려 본국과 원 제국을 비롯한 제 세력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여러 세력 서로에게 각각 작용한 바, 이렇게 3가지 측면에 대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조망을 시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하여 이들 세력에 대한 기존의 분절적 조망을 벗어나 해당 지역 사회 집단에 대한 좀더 넓은 시야의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북부에서부터 요동에 이르는 지역은 고려와 몽골 양국 간의 이른바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의 가장 빠른 육상 직통로가 형성된 지역이다. 그러한 만큼 양국 간 인명의 이동은 결국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각 세력 간의 상호작용 또한 밀접하여 각각 당대의 정세 하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름의 영향을 미쳤다. 기간적으로도 이 지역 고려인 세력들의 활동은 여몽전쟁이 말기로 접어드는 13세기 후반으로부터 몽골이 중원에서 축출되고 요동의 지배권을 잃는 14세기 말기까지, 약 100여 년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는 고려인이 국외에서 활동했던 여타 어느 지역들과 비교하더라도 독보적으로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력을 이루어 거주하고 활동했던 고려인 집단의 규모를 추산해 보았을 경우에도 이 당시 국외에서 고려인이 활동한 지역들 중 요동 지역은 大都와 더불어 그 규모가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결국 해당 지역은 고려인의 국외 활동을 논한다고 할 때 공간, 시간, 규모라는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고려인 집단과 그 세력에 대해서 다루어 그 실상을 그려내는 것은, 당시 국외 고려인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원과 고려라는 양대 세력 간 교류의 최전선이 되는 경계지대를 조명함으로써, 당대 지역 세력 간의 관계사를 읽어내기 위

한 유효한 단면을 제공할 수 있다. 본고는 여기에서 주요한 의미를 찾고자 하며, 나아가 이 성과를 당시 국내와 국외를 막론한 고려인 활동 양상의 전체적 그림을 새로이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삼고자 한다.

## II. 麗蒙戰爭과 고려 流移民 집단의 형성

여몽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고려의 세력권에서 이탈된 고려인들이 다수 발생하여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침략한 몽골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면서 본의 아니게 고려를 떠나게 된 이들도 있으나, 자의적으로 고려의 영역을 벗어난 투몽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몽골의 영역이 된 옛 고려 영역에 거주하거나 요동으로 이동되었으며, 투몽 집단 중 대표자 격인 이들이 몽골에서 직위를 부여받아 이들을 관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반도 북부에서 요동에 걸친 여몽 간 접경지역에 고려인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형성 형태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투몽자들이 고려의 영토와 함께 투몽한 결과 몽골이 고려의 영역을 침탈하여 요동의 행정적 통제 권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세력을 부식한 경우이다. 한반도 북부에 설치되어 각각 고려 서북면에 있던 전기 동녕부와 고려 동북면에 위치하던 쌍성총관부가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압록강 너머 고려의 원래 영역 밖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요동에서 세력화한 경우이다. 요양-심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흥복원 가문과 왕준 가문의 세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요동 지역에 설치된 심양왕이나 고려 말 기사인테무르의 동녕부를 비롯한 요동 기씨 세력 또한 이 부류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한반도 북부의 동녕부와 쌍성총관부는 몽골에 투몽한 이들을 주축으로 설치되어 각각 고려의 서북방과 동북방 일대를 그 영역으로 하였다. 몽골의 입장에서 이들 기구는 고려의 북방 방어망을 점유하여 대항력을 약화시키

는 한편, 고려 본국에 대한 제어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또한 한반도와 동방 3왕가의 영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종왕 세력이 남쪽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후 쿠빌라이가 요동에 행성체계를 설치하면서 동녕부는 동녕로로 승격된 반면, 쌍성총관부는 개원로 아래 소속되어 府, 州보다 아래에 있는 中縣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경-요동-대도를 잇는 교통로가 동녕로를 통과하는 서북 방향으로 일원화되면서 양 지역의 중요도 차이가 커진 것과 연관이 있다.

고려가 국혼을 통해 급격히 원과 접근하게 되자, 동녕부는 고려에 대한 정치적 가치를 잃게 되어 그 영역이 고려에 반환되었다. 다만 그 인원 중 일부는 요동으로 옮겨갔으며, 요양성의 관할지역 일부를 받아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성총관부는 고려와의 긴장상태가 완화된 상태에서 금의 산출지로서 제국의 영역으로 유지되다가 원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공민왕대에 이자춘을 비롯한 현지 세력가의 협력을 얻어 고려가 이를 무력으로 탈환하게 되었다.

### Ⅲ. 13세기 말-14세기 초 遼東 지역 고려인 세력의 浮沈

요동 지역에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에 걸쳐 요양, 심양, 개원로 등을 중심으로 많은 고려인 이주민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의 통할권을 둘러싸고 세력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처음 이들의 통할권을 사실상 독점했던 것은 흥복원에서부터 이어지는 흥씨 일가였다. 이들은 투몽자 출신으로, 여몽전쟁 초기부터 몽골 측에 가담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흥씨 세력은 한때 몽골의 지지를 배경으로 고려의 서북계에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결국 고려에 토벌되어 요동으로 도주한 이후 몽골의 총관 지위를 부여받고 요동 지역 고려인의 관할권을 얻어 세력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흥복원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견제의 필요성이 생기자, 인질로 왔던 고려 왕족 영녕공 왕준이

대칸 몽케의 후원을 얻어 새로운 고려인 세력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왕준이 새로이 요동 고려인을 관할하는 총관으로 임명되면서 요동의 흥씨 가문과 왕씨 가문 사이에서는 한동안 상호 견제 및 세력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양 가문 모두 군공을 세워 제국 내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세력을 차츰 성장시키게 된다. 두 가문은 각각 고려 군민총관직 및 만호직을 세습적으로 분점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역으로서 기능하였고, 이후 삼별초 토벌과 일본 원정을 거쳐 나얀의 난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14세기 초까지 요동 고려인 세력은 최고의 성세를 맞게 되었다. 이들은 흥씨가 다소간의 우세를 점한 상태에서 요동에 새로이 구축된 행정 체계의 고위직을 역임하며 그 운용의 핵심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종 즉위 즈음부터 이 구도는 변동을 맞는다. 충선왕은 원의 제위 계승 분쟁에서 무종의 옹립에 공헌하였고, 그 결과 심양왕으로 임명되어 요동의 고려인들을 통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흥씨 가문의 요동 내 통할권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고, 이에 홍중희는 충선왕이 고려국왕과 심양왕을 겸한 것은 일신에 두 개의 왕위를 가진 것이기에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공격하였다. 그 결과 고려왕과 심양왕의 왕위는 분리되었으며, 심양왕은 심왕으로 개칭되었다. 2자왕에서 1자왕으로 변한 것은 형식상 승진이나, 이 과정에서 심왕은 큰 실권이 없는 직위로 변하였다. 이 때문에 충선왕의 심왕위를 상속받은 왕고는 고려왕위를 손에 넣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카안 울루스 체제 내에서 가지는 고려의 상대적 우위를 해소시키기 위해 입성책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원 제국은 영역 내의 각 지방에 행정체계를 구축하면서 여몽 접경지역의 고려인 세력들도 그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 기존의 고려인 세력들은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총관부나 만호부 단위로 편제되었으며, 고려인 세력가들은 총관 및 만호직을 역임하고 세습하기도 하면서 관할 하의 인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배타적 지배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곧 변화를 맞게 된다. 타 세력보다 먼저 행정체계로 흡수되었던 동녕로는 행정체계에 입각한 '로'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요동으로 이치

된 이후 소속민의 통제 역시 한동안 행성체계 내의 민정기관인 녹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동 내의 고려인 세력가들 또한 그 통할권을 나타내는 주요 직위가 세습하던 총관이나 만호였으나, 행성체계 설치 이후 행성체계 내의 관직을 겸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고려인에 대한 통할권이 점차 개인에게 부여된 것에서 행성체계라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체계에 귀속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양도내전(1328) 당시 고려계 만호부는 다올라트 샤 진영에 참가하였다가 패배한 이후 그 위상이 크게 축소되었다. 성세기의 흥씨-왕씨 세력가들은 총관 및 만호직을 세습하는 경우 대개 종3품에서 시작하여 정2품직에까지 승진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행성관료로서 종1품까지 승진했던 경우도 있었다. 반면 14세기 중엽의 흥씨-왕씨 세력가들은 총관 및 만호직을 여전히 세습하고 있었으나, 그 품질이 종4품 혹은 정4품으로 격하된 상태였다. 이러한 위상 하락 역시 기존의 고려계 총관부 및 만호부가 행성체계에 종속되는 경향에 일조하였다 할 수 있다.

#### IV. 元明 교체기 정세 변화와 接境地域 고려인 세력의 解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4세기 중반까지는 이렇게 차차 투몽 세력가에서 원 제국의 행성체계로 고려인 통할의 주체가 전환되어 가고 있었으나, 원 그 자체의 쇠퇴로 인하여 요동의 정세는 다시 한 번 변화하였다. 고려의 공민왕은 즉위 5년째에 기씨 가문을 제거하면서 8참 지역을 공격하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여 영역을 확장하였고, 해당 지역에 만호부와 익군 설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동안 일종의 회색지대로 존재하던 구 동북면 지역은 확실하게 고려의 영역 내로 흡수되었다. 이후 공민왕 재위 중기에 기황후가 덕흥군을 옹립하려 고려로 침공하였으나 이를 격퇴하여 고려 본국은 이후 원의 내정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공민왕 말엽에는 기철의

아들인 기사인테무르가 요양을 중심으로 동녕부의 이름을 내건 할거세력을 구축하여 고려 본국과 대립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고려대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요동 고려인 세력이었다. 그리고 고려는 이들을 2차에 걸친 원정으로 격파하면서 고려 본국과 고려 외부 고려인 세력들 사이의 다툼을 완전히 고려 본국의 승리로 종결지을 수 있었다.

원이 중원에서 물러난 이후 요동 지역에 등장한 새로운 강자는 명이었다. 고려가 동녕부를 공격하던 시기까지 명은 상도 및 섬서 방면에 전력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요동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유익을 시작으로 고려에 의지하려다 실패한 요동 내 세력들이 고려 대신 명에 투항하면서 명은 요동에 교두보를 건설하고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 고려는 이에 대응하여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 국경선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고려 영내로 이주해 오는 고려인 포집에 힘을 기울였다. 요동 지역과 해당 지역의 민호를 둘러싼 명과 고려의 관계는 명의 철령위 설치 시도로 인해 한때 극단적인 긴장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위화도 회군 이후 상호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철령위의 설치는 취소되었고, 조선 건국 이후로도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동 지역 유이민의 관할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고려와 이를 계승한 조선은 명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민호의 포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요동 고려인 세력 출신이면서 고려 본국에서 입신한 경계인 출신의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우면서 그 가문의 본류이자 휘하에 두거나 교류하던 여진 집단이 분포하였던 동북방으로 확장을 지속한 결과,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4군 6진 지역을 영토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두만강 선을 영역으로 인식하던 고려 대의 인식에서 좀 더 확장된 압록강-두만강 선을 새로운 국경선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 V. 13-14세기 麗蒙 接境地域 고려인 세력의 역사적 위상

## 1. 복합적 길항관계 및 세력 간 상호관계의 결말

이렇게 한반도 북부 및 요동 지역에서 고려인 세력이 부침을 겪은 기간 동안, 각각의 고려인 세력과 고려 본국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협력보다는 대립-길항관계에 있었다. 고려를 이반한 민중의 경우 고려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투탁한 세력가의 경우 고려에서의 반역이라는 형태로 투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 본국과 우호적 관계 형성이 어려웠던 것이 이들 세력들의 기본적 입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서로가 카안 울루스라는 동일한 천하관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해당 천하 질서 내에서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요동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권역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였으므로 길항관계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립 초기에는 한반도 북부에 설치된 동녕부와 쌍성총관부가 주로 고려 본국과 대립하였다. 요동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요동 내 고려계 세력가인 홍씨 일가가 고려 왕실 출신인 영녕공, 심양왕과 차례로 대립하고, 나아가 고려 본국과도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심왕 세력 역시 충선왕대에는 홍씨 가문과 대립하는 한편으로 왕고가 습작한 시기에는 심왕옹립운동과 입성책동 등을 통해 고려와 길항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녕로가 사실상 소멸한 14세기 초엽이 되면 고려 본국을 중심으로 고려계의 요양 세력, 심왕 세력, 쌍성총관부 등이 부채살 형태로 늘어난 세력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들은 모두 고려 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립은 고려 본국과 여타 제 세력 모두 카안 울루스에 공통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형식적 편제 및 고려와 원 사이의 국혼관계로 인하여 고려 본국 또한 제국 내 투하령으로서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에, 독립 국가와 제 세력간의 다툼인 동시에 어느 정도는 제국 내부 분령 세력 사이의 다툼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들이 대립관계에서 1차적 목표로 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카안 울루스 체제 내에서의 상대적 우위 획득이었다. 이들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유형은 체제 개편으로 인한 자기 세력 자체의 축소에 반발하거나 자기 세력의 확대 및 강화를 노리는 것으로, 13세기 말 설치 당시의 동녕부나 홍씨 가문 세력가, 심왕 왕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요동 세력가 개인이 고려 왕실과의 개인적 원한으로 고려 정부와 대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현지 세력보다는 제국 중앙과 관련된 제도를 기반으로 고려 본국과 대립하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인물은 고려 왕실과 대립하던 홍차구나 공민왕과 대립했던 기씨 가문을 들 수 있다. 반면 어디까지나 제국 내에서의 위상을 통한 자기 세력권 내에서의 강력한 지배권 확보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카안 울루스 내에서의 우위 획득은 어디까지나 지배 영역 내에서의 권위 부여를 위한 수단이 된다. 제국 체제 내 투하령의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왕으로서 독자적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었던 역대 고려국 왕은 이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우위 확보 수단으로는 제국에 대한 각각의 공헌 외에도 제국 중앙정부 인사와의 밀착성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몽골제국이 기본적으로 根脚을 매우 존중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원종의 경우 쿠빌라이와의 개인적 인연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왕, 행성승상, 부마의 3중 지위를 처음으로 완성한 충렬왕부터는 국혼에 의해 혈족적 친연성이 부여되면서 중앙과의 밀착을 한층 더 강화하여 여타 고려인 세력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는 고려 자체에서 수립한 질서가 아니라 카안 울루스라는 질서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그 견고성이나 지속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고려 말 공민왕대에는 황후의 일족으로서 원-고려의 신하를 겸직하는 기씨 가문의 등장으로 황실과의 친연성에서 고려가 고려 외부의 고려인 세력에게 오히려 역전당하는 구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구도는 고려국왕의 왕권 유지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기에 공민왕은 이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하여 제국의 통치 질서에서 이탈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고려 본국 내 기씨 세력 숙청으로

시작하여 쌍성총관부 공략 및 후일 요동의 기씨 계열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동녕부정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세력 간 길항 양상은 최종적으로 고려 본국을 제외한 모든 고려인 세력이 정치체로서의 실체를 잃고 그 구성원 중 일부가 고려 본국에 흡수되는 결말로 끝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려국왕과 여타 고려인 세력의 영수들이 보유했던 지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정체성 차이와 각 세력에 대한 인식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총렬왕 및 그 이후의 고려국왕은 부마고려국왕으로서 정동행성승상을 겸하였다. 즉 이들은 카안의 친족이자 행성체제의 관료로서 제국 내부 질서에 속하면서도, 제국 외부의 속국인 고려라는 외국의 국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지위로 인하여 고려국왕은 단순히 투하령의 주인 혹은 행성체계 내의 관료였거나 이를 겸하면서 제국 체제 내의 존재라는 정체성만을 보유했던 여타 고려인 세력의 영수들과는 구별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차이를 스스로도 인식하였고, 주변에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기에 이는 양자가 주관하는 정치체의 속성에 대한 내부적 및 외부적 인식에도 간극을 가져왔다. 물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려와 제 세력 양자 모두 카안 울루스 내의 구성원이라는 내부적 세계관 인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같은 천하관 내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여타 제 고려인 세력들이 완전하게 제국 판도 내에 있으면서 단일한 세계관에 속한 것으로만 인식되었던 반면, 고려 본국은 국왕의 중층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이중적 세계관을 영유하며 제국 직할령과 구별되는 외국으로서의 속성을 스스로도 인식하는 한편으로 주변 세력에도 인식시키고 있었다. 결국 중층적 속성을 가진 정동행성승상 부마고려국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그 지위의 지속에서 비롯된 내부적 및 외부적 인식에서의 간극 유지가 고려 본국과 요동 고려인 세력 양자의 명암을 갈랐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체로서의 형태 유지에 기반이 되는 근거 배후지를 보면, 요동 내 제 세력의 경우 그 근거지는 점점 원 제국 중앙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행성체계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이 관할하던 개별 총관부나 만호부는 차차 그 휘하에 속한 것으로 수렴되어 갔다. 반면 고려국왕의 경우 고려의 영토는 카안의 부마 개인에게 부여된 투하령 속성을 가지면서도 제국 질서의 속국 지위를 가진 외국의 영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려국왕은 카안 울루스의 혈족적 내부 질서만이 아니라, 제국의 대외 질서라는 면에서도 외국의 국왕으로서 양국의 국경 이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받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정동행성 기구를 통한 지배력 강화 시도가 시도된 적이 있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려 국왕이 세습적, 자동적으로 해당 행성의 승상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제국 측이 여타 행성 수준의 온전한 지배력을 마지막까지도 행사할 수 없었다.

상기한 요인들로 인해 여타 요동 고려인 세력은 기본적으로 원 정부의 통제만을 받는 일방적 관계였고, 상술한 바와 같이 원 말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행성체계에 흡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들은 원, 혹은 복원의 중앙정부가 붕괴할 때 이와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고려 본국은 여타 세력과 달리 원과의 관계에 있어 국왕의 다층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복합적 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는 원의 중앙정부가 붕괴하여 원의 속령이라는 제국 내의 지위를 잃더라도, 제국 외부에 존재하는 별개의 외국으로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명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그러한 입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 본국은 이를 통해 명과의 관계에서도 요동의 제 세력처럼 원에 속해 있던 한 지방으로서 명의 통치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가로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세력 간의 긴 항쟁을 거쳐 결국 유일하게 고려인의 독립적인 정치체로 남은 고려 본국은 이후 고려계의 강력한 구심점으로서 이미 해체된 여타 고려인 세력의 인호를 흡수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경계인으로서의 양면적 속성을 가지는 이성계에 의해 왕조가 교체된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위치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리하여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최종적으로 압록강-두만강 선까지 진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요

동 지역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당 지역의 인명을 자국 내로 흡수해 나가는 데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2. 몽골제국 질서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러나 한편으로, 여몽 접경지역의 고려인 세력은 제국 체제의 일각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무게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이들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시 고려인 세력이 제국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게 되면서 각 세력의 수장이나 그 세력 출신의 인물이 제국의 중앙과 깊게 연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세력을 등에 업거나 입신한 개인의 입지를 활용하여 고려를 포함한 제국 동방의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확보한 제국 중앙과의 연결은 고려 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각 세력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세력 간의 상호관계에 반영되었다. 또한 요동 지역의 고려인 세력가나 그 일족은 중앙과의 연결을 활용하여, 고려 본국과의 긴장관계와는 별도로 고려 출신의 개인들에게 제국 중앙과의 연결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왕준이 볼모로 왔던 초기에 홍복원이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이나, 기타 세력가들이 入元하는 개인들의 편의를 보아 주거나 개인적 교류를 제공했던 것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몽 접경지역의 요동 고려인 세력들은 대부분 생정 초기 제국 중앙의 인가를 받아 요동으로 유입된 고려 유이민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반도 북부의 전기 동녕부와 쌍성총관부는 영역 내 고려인 장악과 더불어 종왕세력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고려인 세력들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동방 3왕가를 비롯한 종왕세력의 입김이 강했던 요동에서 이들의 고려 유이민 흡수를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그 세력 확장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몽골제국은 구육과 몽케 집권기 이래로, 분령지에 대한 배타적 권한

을 유지하려는 종왕세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집권화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국 중앙과 종왕세력간의 분쟁에서 고려인 세력은 제국 중앙이 동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주요 무력집단 중 하나로 기능하면서 군사적으로 활약하였다. 이렇게 고려인 세력은 제국의 중앙집권 정책에 반발하는 종왕 세력들에 대한 견제역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국 동방에 행정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각 세력의 수장들이 행정체계의 지위를 받아들이면서 이 체계를 정착시키고 그 통제력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 그 한편으로는 고려 복속 초기 및 공민왕대의 특정 시기 등, 제국과 고려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될 때 요동의 고려인 세력들은 제국 판도의 동방에 위치한 고려를 견제하는 역할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VI. 결론

여몽 접경지역 고려인 세력은 13세기 전반부터 14세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세력을 유지하였다. 이들은 군사적, 행정적, 혹은 정치적으로 고려 본국과 동방 3왕가를 동시에 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는 유이민 흡수, 종왕세력과 고려 본국간의 물리적 차단, 행정체계 설치에 대한 협조 등으로 나타났으며, 나얀의 난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국 중앙이 그 동방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주요 무력집단 중 하나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상기한 몽골제국의 국가전략 진행이라는 대국에 있어 제국 동방의 일각으로서 그 대내적, 대외적 질서의 형성 및 유지에 다방면으로 일정한 기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력과 그 수장의 정체성은 제국의 체계 내에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제국 내부자라는 단면적인 방향으로 수렴되어 갔으며, 이러한 단일한 속성은 결국 이들이 원 제국의 붕괴와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는 제국 붕괴 후에도 별개의 외국으로서 개별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고려 본국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는 고려국왕이 카안의 친족이자

행성체계의 관료이면서도 제국 외국의 국왕을 겸하는 중층적 정체성을 보유했던 것에 기인하며, 양자의 길항관계에서 최종적인 명암을 가른 요소였다 할 수 있다.

#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유바다

## 1. “屬國自主” 모순론에 대한 문제 제기

1882년 淸은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을 주선하는 동시에 조선과는 장정을 체결하였다. 前者는 조선의 自主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後者는 조선의 屬邦 지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中國의 屬邦이나 內治와 外交는 自主로 한다”는 언설이 이때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기존 연구에서는 “사대질서의 자기모순의 발로”라고 하였다. 즉 淸의 행위가 모순적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각광받은 “屬國自主論” 또한 이 질서가 모순적이고 이원적이었으며 애매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自主적으로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지만 淸의 屬國인 조선의 지위는 그 자체적으로 모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모순적”이라는 표현은 실상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단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순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붙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풀어야 할 “문제”로 부각된다. 19세기 후반 “屬國自主” 조선의 지위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2. 『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의 進貢國 : 屬國. 自主의 경비

이를 풀기 위해 淸이 1864년 同文館을 통하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 서적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漢文으로 번역한 萬國公法만국공법부터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제법

질서에서도 宗主權(Suzerainty) 하 封建的인 관계(Feudal relation)를 가지고 있었던 進貢國(Tributary State)의 존재가 있었다. 이는 중화 질서 하 朝貢國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萬國公法에서 진공국은 “봉건적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自主之國(Sovereign States)이나 그렇지 않다면 屬國(Dependent State).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은 진공국으로서 自主를 누릴 수 있었고 屬國의 지위도 겸비할 수 있었다. “屬國自主” 조선의 지위는 모순이 아닐 수도 있었던 것이다.

### 3. 1878년 베를린 조약 : 自治.屬國 불가리아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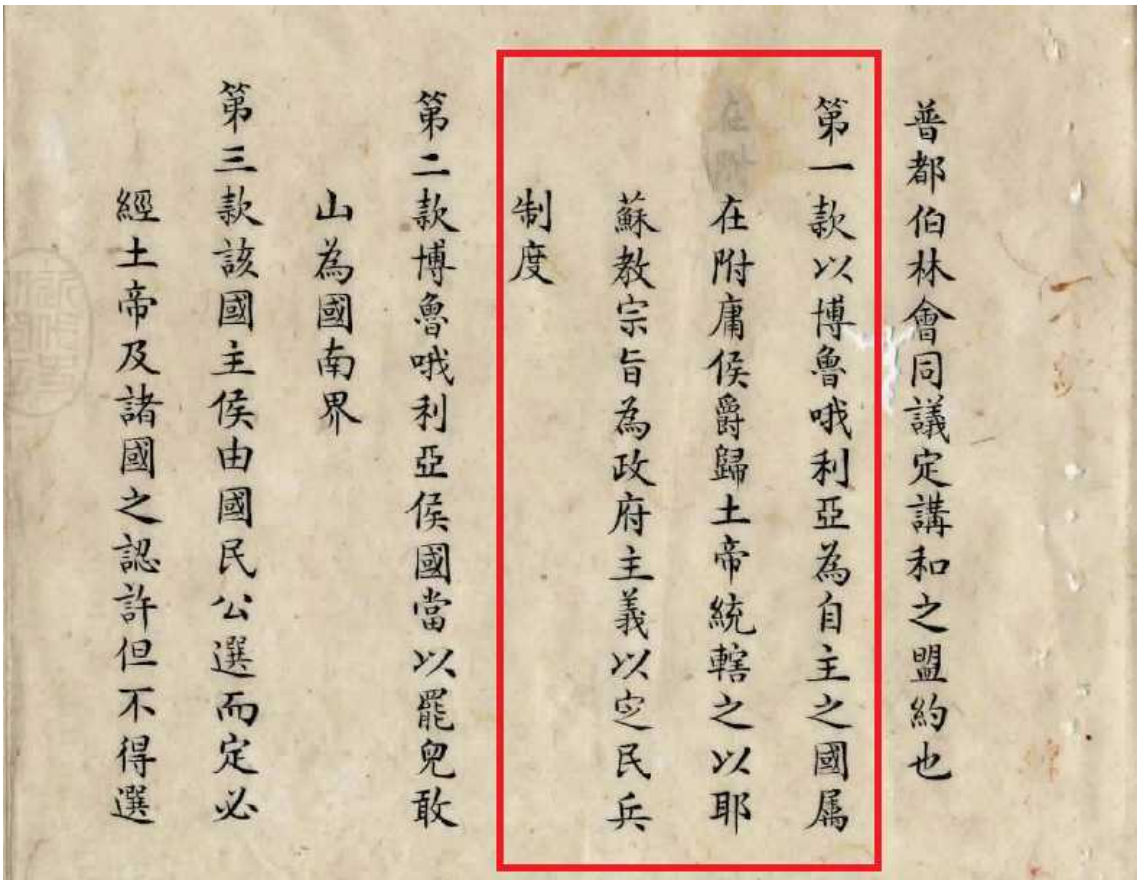
마침 淸이 조선에 列國立約을 勸導하기 직전인 1878년 서구 세계에서 베를린 조약이 체결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宗主權(suzerainty) 하에 屬한 自治的(autonomous)인 進貢(tributary) 公國 불가리아가 탄생하였다. 국제법 질서에서 自治.進貢.屬國 불가리아의 존재는 무리 없이 이해될 수 있었다. 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淸이 불가리아의 사례를 조선에 적용하여 立約을 권도하면서도 屬國으로 묶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해 李鴻章全集해 등 淸 측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필자의 가정은 난관에 봉착했다.

### 4. 淸의 베를린 조약 漢譯本 입수 :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檔案館의 『外交檔案』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檔案館에서 공개한 淸外交檔案에 駐日淸國公使 何如章이 1878년 12월 7일 總理衙門에 보고한 베를린 조약의 한문 번역본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베를린 조약[柏林條約]이 불가리아[博魯哦利亞]를 오스만 투르크 황제[土帝]의 통할(統轄)에 속(屬)한 자주후국(自主侯國)으로 규정하였다”는

제목의 하여장의 보고서는 만外交檔案해중 「朝鮮檔」이 아닌 「條約」에 수록되어 있었다. 주지하듯이 만淸季中日韓關係史料해는 만外交檔案해의 「朝鮮檔」을 공간한 것이다. 따라서 「條約」에 실린 하여장의 보고서는 만淸季中日韓關係史料해에 수록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淸季中日韓關係史料해를 중심으로 淸의 열국입약권도책을 다룬 기존 연구는 1878년 서구 세계에서 체결된 베를린 조약을 시야에 넣을 수 없었다. 그러나 檔案館의 만外交檔案해를 샅샅이 뒤진 결과 베를린 조약을 한문으로 번역한 하여장의 보고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베를린 조약 제1관 한문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림1> 베를린 조약 漢文 번역 제1관[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檔案館, 만

外交檔案해 總理各國事務衙門-條約-柏林條約及各國商約-出使日本何大臣抄送柏林條約  
規定博魯俄利亞為自主侯國屬土帝統轄, 「柏林條約」(01-21-048-01-001)]

제1관 불가리아[博魯俄利亞]를 自主之國으로 삼아 오스만 투르크 황제[土帝]  
가 統轄하는 附庸侯爵에 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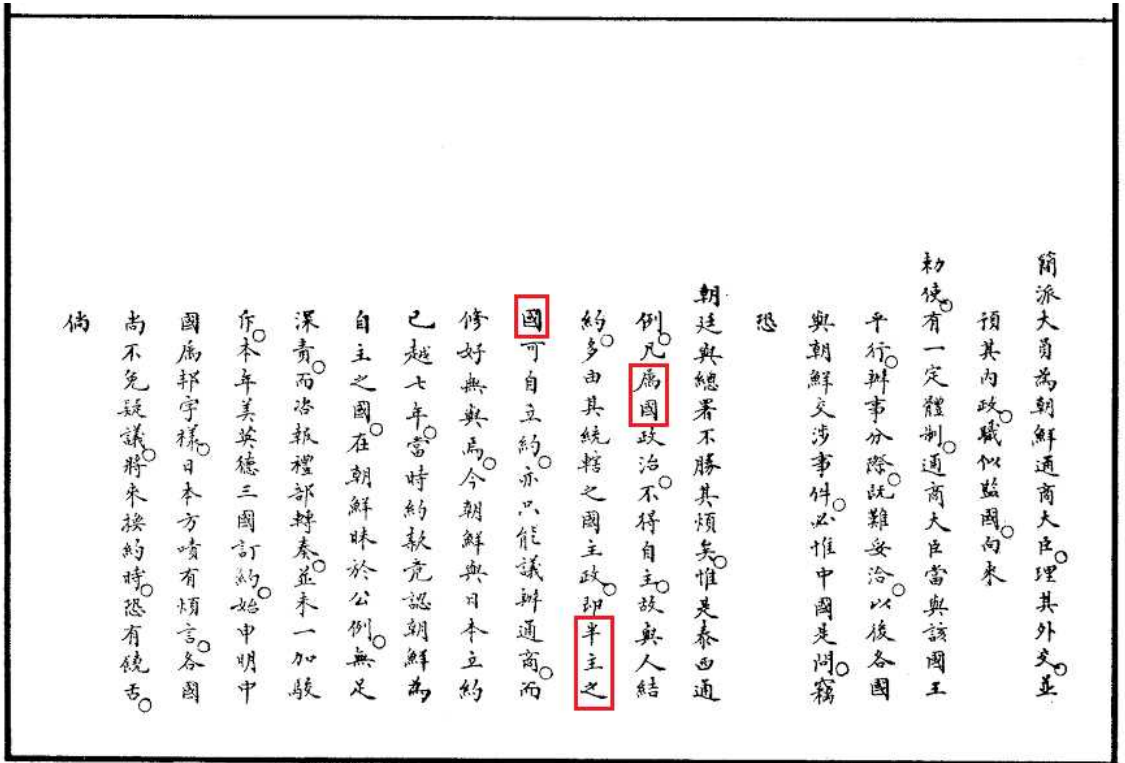
自主.屬國의 존재가 국제법 질서 하의 조약에서 확인된 순간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自主적으로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淸의 屬國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더욱이 영국, 독일, 오스만 투르크 등은  
베를린 조약 체결을 통하여 불가리아에 주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오스만 투  
르크의 종주권 하에 두어 러시아의 불가리아 침략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  
렇다면 防俄策을 고심하던 淸의 이홍장 입장에서는 베를린 조약을 조선 정  
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장은 베를린 조  
약 입수 직후인 1879년 조선에 대한 열국입약권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조선과 장정을 체결하여 屬邦 지위를 규정하고자 하  
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淸의 행위는 전혀 모순적이지 않았고 국제  
법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 5. 淸 李鴻章의 『萬國公法』 활용 : 屬國.半主之國 조선의 지위 규정

장정 체결 직후 이홍장은 조선을 다음과 같이 국제법적인 屬國.半主之國  
으로 규정하였다.

생각건대 泰西 通例에 모든 屬國의 政治는 自主로 할 수 없습니다. 고로  
남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 그 統轄之國이 政事를 主政합니다. 즉 半主之國은  
가히 立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능히 통상만 議辦할 수 있을 뿐 修好  
는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無事한 때를 틈 타 大臣을 파견하고 주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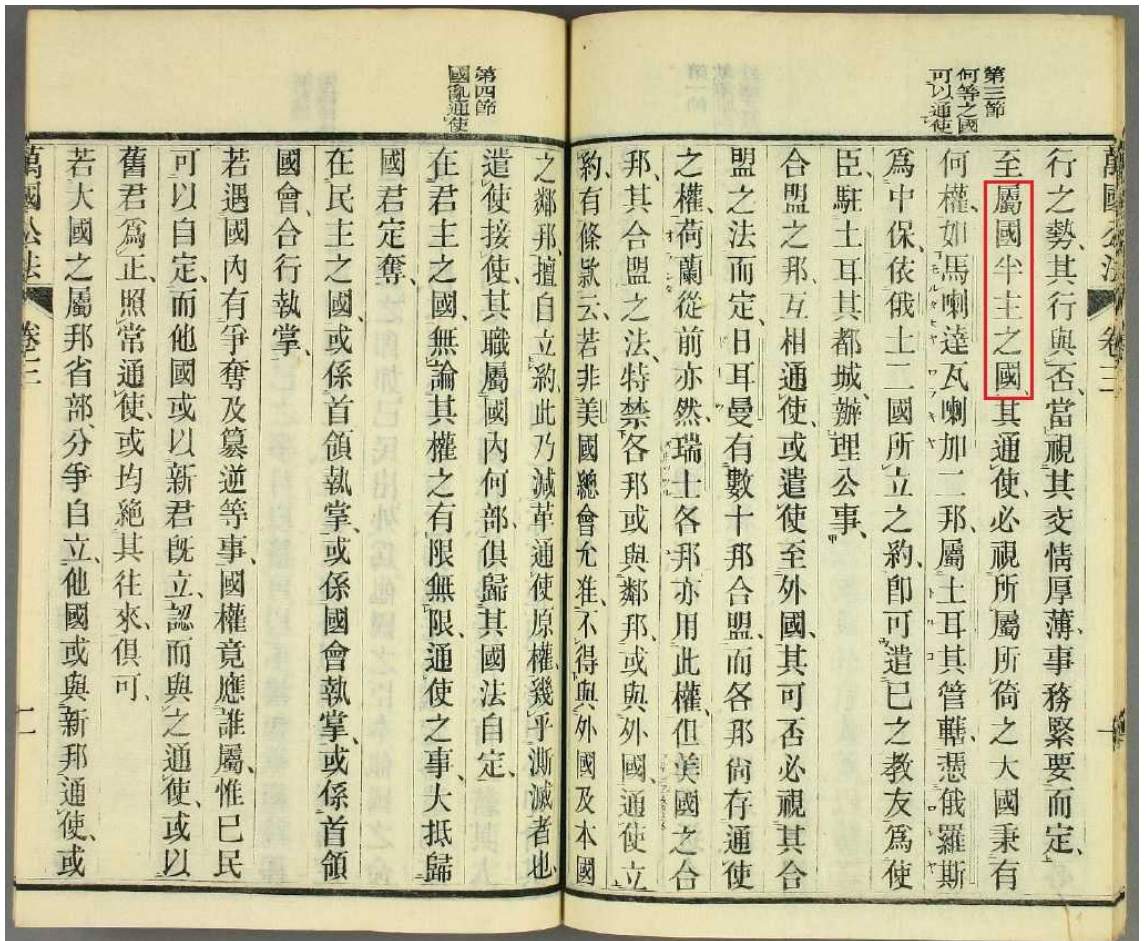
도록 하여 …… 조선을 保護하면 곧 우리의 국경을 굳힐 수 있으니 또한 泰西 屬國의 예와 相符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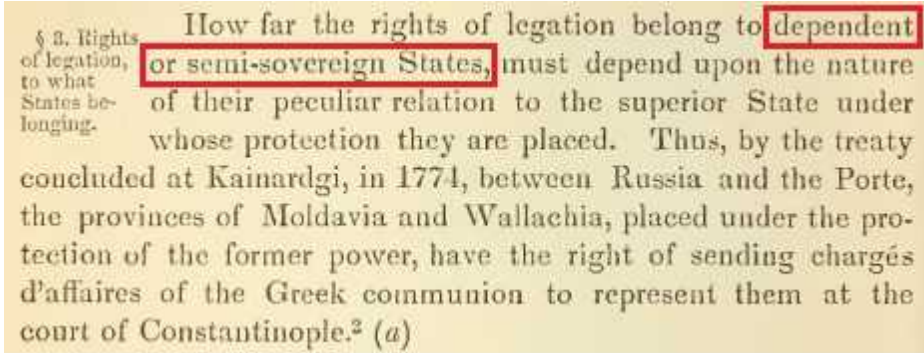
1032

<그림2> 이흥장의 屬國·半主之國 언급(만청중일韓關係史料해 第三卷, 編號624, 1032쪽)

이는 만萬國公法해에서 규정한 屬國·半主之國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만萬國公法해 대한 기존 연구는 만萬國公法해 第1卷 第2章에 수록된 自主之國(Sovereign State),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 進貢國(Tributary State), 藩屬(Vassal State)까지는 읽어냈지만 屬國·半主之國(Dependent or Semi-sovereign State)은 포착하지 못했다. 다름이 아니라 屬國·半主之國은 만萬國公法해 앞부분인 第1卷 第2章이 아닌 뒷부분인 第3卷 第1章, 第2章에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3> 屬國.半主之國의 通使權 규정[萬國公法 卷三 三橋(東都):老良館, 慶應元(1865)]



<그림 4> 만萬國公法해 영문 원본의 屬國.半主之國(Henry Wheaton, 1855,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by William Beach Lawren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Advertisement to the first Edition, p.274)

屬國(dependent states).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s)의 通使(the rights of legation)는 반드시 所屬, 所倚하는 大國에 의존해야 한다. …… 屬國(dependent states)과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s)의 立約權에는 限制하는 바가 있다.

이를 통해 이홍장은 조선에 제한적이거나 주권을 부여하여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淸의 종주권 하 속국으로 묶어두려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의 지위는 만萬國公法해에서 규정한 屬國.半主之國으로 수렴된다. 즉 淸은 조선의 屬國·自主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屬國.半主之國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제 조선의 지위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屬國.半主之國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었다. 屬國.半主之國은 제한적이거나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완전히 몰수당한 殖民地(Colony)와는 구별된다.

## 6. 중화 질서의 국제법적 재해석 : 半主.屬國의 지위 규정과 自主.獨

## 立國 지위 획득

19세기 중반부터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해(*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권국가(Sovereign State)의 국제법적 지위는 모두 동등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주권국(Semi-sovereign State) 및 속국(Dependent State), 즉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의 지위(rank)는 주권국가의 하위(below)에 있다. 半主·屬國의 상위에 있는 주권국가는 自主·獨立國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국제법적 지위란 바로 이러한 국가의 등급(Rank of States)을 의미한다.

사실 기존 연구들은 국제법 질서를 두고 “대등한 주권 국가 간의 질서”라는 인식에만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萬國公法해는 주권 국가뿐만 아니라 屬國, 半主之國, 進貢國, 植民地, 宗主國 등의 국가 체계까지 다루어져 있었다. 특히나 서구 세계에서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신성로마제국 내의 領邦國들이 주권국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국의 종주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半主權國家로 분류되었으며 19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즉 국제법 질서는 원칙적으로는 대등한 주권국가 간의 질서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不平等條約締結國, 被保護國, 貢納國, 封臣國 등 半主權國家도 주권국가 간의 질서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前近代”와 “近代”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근대”를 특권화하였던 기존 연구의 흐름이 얼마나 근대중심주의에 경도되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사학위논문을 통하여 17~19세기 서구 세계에서 국제법 질서가 형성되면서 自主·獨立國과 半主·屬國이 공존하는 흐름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淸이 1864년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萬國公法해로 번역해 내면서 중화적 질서와 국제법 질서 사이에 존재했던 “상이한 요소들이 관계를 맺는(그중 어떤 것들은 새로운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이미 존

재했던” 작업을 펼치고 중화적 질서 하 朝貢國 조선을 만萬國公法해에 따른 進貢國(Tributary State)과 藩屬(Vassal State), 즉 半主.屬國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으로 재창출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휘튼의 만萬國公法해에 나온 국가, 즉 邦國(State)의 범주를 정리하였거니와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위	사례	특징	通使/立約
自主.獨立國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		自治(governs itself) 不聽命於他國 (independently)	○
進貢國/藩屬(藩邦) Tributary State /Vassal State	알제리/트리폴리/튀니지	自立(Independence)	○
	이집트	進貢於土王 (Suzerain)	△
	몰다비아/왈라키아/세르비아	聽命於土耳其 (Suzeraineté)	△
半主.屬國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s)	크라쿠프	保護(Protection) 局外(Neutral)	△
	이오니아제도	自主(Free) 自立(Independent) 保護(Protection)	△
省部 (Colony/Province)	스위스/네덜란드/ 미국/남미	獨立 以前	×

<표1> 만萬國公法해에 국가 지위 분류

淸이 기존의 중화 질서를 국제법적으로 재해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화 질서 하 개념	국제법 질서 하 개념	만萬國公法해변역 재해석
屬國	Dependent State	屬國
藩封	Vassal State	藩屬(藩邦)
進貢, 職貢	Tributary State	進貢國
중화 질서 하 대응 존재	국제법 질서 하 대응 존재	만萬國公法해변역 대응 존재
朝鮮, 琉球, 安南	몰다비아, 알라키아, 이집트	몰다비아, 알라키아, 이집트 (朝鮮, 琉球, 安南)

<표2> 만萬國公法해변역과 중화 질서의 국제법적 재해석

이렇게 만萬國公法해변역은 조선과 淸 사이의 중화 질서를 국제법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만萬國公法해변역을 통한 淸 측의 세계 인식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분류	대상			
天朝	淸朝			
所屬邦土	屬土		屬邦(屬國, 朝貢國)	
구분	省部	藩部	有期 朝貢	無期 朝貢
예시	直轄 18省	蒙古, 西藏, 新疆	朝鮮, 安南, 琉球	영국, 포르투갈

↓ 1864년 만萬國公法해변역

분류(주권보유)	東洋		西洋			
自主·獨立國(○)	淸朝	日本	英國	美國	獨逸	오스만 투르크
半主·屬國(△)	朝鮮, 安南, 琉球		構成國	聯邦州	領邦國	몰다비아 알라키아 이집트
省部·植民地(×)	藩部(蒙古, 西藏, 新疆)		印度			

<표3> 만萬國公法해변역과 淸의 세계 인식 변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선은 1882년 條約.章程 체결을 계기로 淸의 半主.屬國으로 규정되었다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부의 노력과 淸日戰爭이 맞물리면서 自主.獨立國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 한국전쟁 이후 북중관계가 위기로부터 완화됐던 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중공중앙의 북한 8월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상준

본고는 한국전쟁 이후 북중관계가 긴장에서 완화됐던 과정을, 폴란드·헝가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8월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와 중국인민지원군 완전철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냉전시기 북중 동맹관계가 갖는 특수성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게 있어 과연 북한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냉전시기 북중은 동맹관계를 유지했지만, 양국 간의 모순과 갈등이 북중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1956년 8월 사건에 대한 중소의 간섭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긴장은 대표적인 사례다. 8월 사건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에서 비롯되었다. 김일성의 전횡에 불만을 품은 반김일성 세력은 8월 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오히려 전원회의는 반김일성 인사에 대해 직무해제와 당적박탈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공흠, 서취, 리필규, 김강 등 4인은 중국으로 탈주하였다. 중국망명 사건은 8월 사건을 북한 내부의 정치적 사건에서 중소가 관련된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시켰다. 중소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8월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 북한은 중소의 요구대로 조선로동당 9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번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중소의 간섭은 북중관계를 악화시켰다. 북한이 중소의 8월 사건

개입을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북중관계의 긴장은 1956년 하반기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북중관계는 1956년 10-11월 폴란드·헝가리 사태 속에서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중은 폴란드·헝가리 사건을 일종의 ‘외부위협’으로 간주하였다. 북중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와 혼란이 자국의 체제 안정과 정권 안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외부위협’에 대한 북중의 공동인식은 양국관계를 밀착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폴란드·헝가리 사건 처리에 대한 중소의 입장과 방침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중국도 진영 논리의 냉전적 시각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였다. 폴란드·헝가리 사태로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와 혼란이 고조됐던 상황에서 북중관계의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북중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였다. 중국이 1957년부터 8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북중관계의 긴장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북중 간의 결속은 기본적으로 견고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956년 8월 사건에 대한 중소의 간섭 이후 북중관계는 급속히 긴장됐지만, 북중 이러한 양측의 긴장이 북중의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북중관계의 결속을 유지하려는 힘이 북중양당 간 긴장과 갈등의 크기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북중관계의 강한 결속은 북중관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규정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주의 이념과 양국이 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북중은 사상과 제도의 동질성, 국경을 맞대고 인접했다는 脣齒相依적 특성 때문에 강한 밀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한반도 정전체제 하에서 북중은 양국 간의 특수성을 유지하였다. 정전체제 성립으로 인한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북중 간의 결속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북중은 국가안보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북중 동맹관계의 견고함을 필요로 하였다.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의 안보를 위협했던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존재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해야지만 한반도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휴전선부터 북중 국경선인 압록강까지의 거리는 불과 4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였다. 만일 북한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미국과 직접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인민지원군을 주둔시켜 북한을 방위하는 것은 곧 중국의 국가안보를 보위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한반도 정전체제 아래서 북중이 여전히 순치상의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지역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측면에서도 북중은 양국의 견고한 동맹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북중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본격적으로 매진하였다. 중국은 1953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국내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은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북중관계의 동요와 불안정이 곧바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건설 방면에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 원조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주지하듯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북한정부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지 않고 전후 재건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북한은 중국보다도 양국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8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북중 양당의 긴장은 위에서 서술한 북중관계의 견고성에 비한다면 작은 사건에 불과했다. 당연히 북중은 양당 간의 긴장이 북중 간의 국가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것은 북중관계의 견고한 결속과 양국의 국익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사실을 증

명한다. 북중 양국은 순치상의적 관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 속에 놓여져 있었다. 따라서 양국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본래의 강고한 결속을 회복하려고 하는 ‘彈性’이 존재하였다. 이점은 북중관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둘째, 1956년 하반기 동유럽에서 발생했던 폴란드 헝가리 사태는 북중관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폴란드 헝가리 사태는 8월 사건에 대한 중소의 간섭 이후 북중관계의 긴장이 심화되어 갔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동요시켰던 폴란드 헝가리 사건은 북중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폴란드 헝가리 사태가 북중관계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폴란드·헝가리 사건 발생 이후 8월 사건에 대한 중소의 관심이 약화되었다. 중소의 관심이 북한의 8월 사건에서 동유럽의 폴란드·헝가리 사건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선로동당 9월 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중소의 요구도 줄어들었다. 폴란드·헝가리 사태가 김일성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제공한 셈이었다. 따라서 폴란드·헝가리 사태 발생 이후 김일성은 중소를 신경 쓰지 않고 8월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북한 내부에서 ‘반종파 투쟁’을 전개시켜 반대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체계를 공고하게 만들어 갔다. 또한 북중관계사의 측면에서 볼 때 폴란드·헝가리 사태는 북중관계의 긴장이 심화되는 것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중국의 관심이 폴란드·헝가리 사태에 집중되었고, 중국이 동유럽 사태 해결을 위해 동유럽 사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중공의 8월 사건에 대한 관심의 약화가 북중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폴란드·헝가리 사태는 북중관계가 급속히 밀착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중이 주목했던 것은 폴란드 헝가리 사태의 ‘반혁명성’이었다. 다시 말해 북중은 폴란드 헝가리 사태를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동요시키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북중관계는 외부로부터 위협이 가해질 때

강하게 밀착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북중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북중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속에서 한미와 대항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강한 결속을 유지해야만 하였다. 북중 간의 갈등과 모순이 양국 간의 이데올로기 동맹관계를 침범할 수는 없었다. 북중이 강한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정확히 부합했기 때문이다. 물론 폴란드·헝가리 사태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생한 내부문제였다. 하지만 폴란드·헝가리 사건이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반혁명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북중은 그러한 ‘반혁명성’을 북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북중이 폴란드·헝가리 사건을 ‘외부위협’으로 인식하는 한 북중관계는 밀착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폴란드·헝가리 사건 발생 초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시각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김일성은 헝가리 사건의 ‘반혁명성’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극히 경계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우려했던 것은 북한의 반김일성 세력이 폴란드·헝가리 사건을 틈타 북한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대대적인 ‘반종파 투쟁’을 전개했던 배경에는 폴란드 헝가리 사건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반면 모택동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진영 이탈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해 보자는 북한의 제안은 모택동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당시 모택동은 김일성이 헝가리의 임레나지처럼 변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택동과 김일성이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폴란드나 헝가리에서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민중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지도 않았다. 동유럽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중소의 정책과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김일성은 중소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헝가리 사태의 ‘반혁명성’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역설적으로 폴란드·헝가리 사건은 모택동과 흐루시초프에게 김일성의 ‘혁명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폴란드·헝가리 사건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혼란은 북중관계가 밀착될 수 밖에 없었던 ‘외부적 조건’을 형성시켰다. 그것은 북중이 폴란드·헝가리 사태의 ‘반혁명성’을 북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외부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폴란드·헝가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은 일관되게 중소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하였다. 모택동은 김일성의 ‘혁명성’을 확인한 후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환시키기 시작하였다. 중공은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북중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양국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중공의 8월 사건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폴란드·헝가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 8월 사건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로부터, 동유럽 사태가 북중관계 전개간의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중국이 동유럽 문제에 개입하면서 제출했던 소련의 대국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이 중공의 8월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중공의 폴란드·헝가리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은 명확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 진영을 배반할 경우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형제국’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공의 분명한 원칙이었다. 중공이 판단하기에, 폴란드의 고물카는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려 하지 않았고, 헝가리의 임레나지는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고자 했다. 따라서 중공은 폴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을 주장하였고, 헝가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한 군사적 해결 방법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김일성은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연히 중공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8월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폴란드·헝가리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대국주의적 경향과 폐단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과거 스탈린 집권 시기 소련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실시한 대국주의적 대외정책의 積弊를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중공의 지적과 비판은 소련이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서 마땅히 양보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공이 실시한 소련대국주의 비판은 북중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공의 자아비판인 셈이었다. 북중관계에서 대국은 중국이었고, 소국은 북한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공의 소련 대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폴란드·헝가리 사태 이후 중국이 8월 사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공의 정책을 보다 더 유화적이고 양보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다시 말해, 중공의 대국주의 비판이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선택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셋째, 중국인민지원군의 단독 철군은 중국의 대북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방침이었다. 중국이 8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선택한 후 내린 첫 번째 결정이 바로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이었다. 말하자면 중국의 대북 유화정책은 중국인민지원군 단독 철군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중국인민지원군의 최종적인 철군 결정을 논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하나는, 1956년 하반기 북한 내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단독 철군 요구가 증가했고, 중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1956년 하반기 중국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최종적인 완전 철군을 결정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곧바로 북한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문제에서 북중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군이였다. 당연히 북중은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철군을 주장하였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인민지원군도 주둔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전략 차원에서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켜야 했고, 이승만 정권은 남한의 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 한반도 외국군대 문제에 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미군의 남한 주둔은 부동의 사실이 됐다. 이것은 또한 북중과 한미가 협상을 통해 동시철군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때부터 북중은 점차 중국군의 단독 철군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동시

철군 가능성이 막히면서 중국군만의 단독 철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1957년 10월 30일 소련정부의 <선언> 이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각국은 주둔 소련군에 대한 철군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소련군에 대한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철군협상이 중국의 중국인민지원군 단독 철군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의 이러한 철군논의에 편승했음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 측에게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정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중국인민지원군 철군 문제에서 주동성을 발휘했던 것은 중국이었다. 하지만 다음의 사실도 분명하다.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대한 강한 열망과 요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8월 사건에 대한 중소의 개입 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고조됐고, 이에 따라 북중관계가 경직되고 양국 간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북한 내의 중국군 철군에 대한 불만도 증대되었다. 게다가 1956년 하반기 헝가리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련이 군사력을 통해 헝가리 임레나지 정권을 붕괴시켰던 것은 북한의 김일성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중국군에 대한 불만과 철군 요구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닌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중국도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입장과 요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중국이 북한과의 긴장관계와 동유럽 사태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혼란이 점증됐던 상황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으로부터 중국군 단독 철군에 대한 상당한 압박과 요구가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결정의 주동권은 시종일관 중국이 갖고 있었지만 철군 문제의 시작은 북한이 제기한 철군요구로부터 촉발되었다.

요컨대, 북중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언젠가는 북한에서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점에서 남겨진 문제는 철수하는 시기였다. 북중이 원했던 것은 동시철군이였다. 즉 주한미군이 나갈 때 중국인민지원군도 철

수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중은 중국인민지원군만의 단독 철군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6년 말 중국이 내 부적으로 중국군의 단독 철군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철군 결정을 곧바로 북한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의 철군 결정은 상당부분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컸다. 즉 중국은 북중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침으로서 중국인민지원군의 단독 철군을 결정하였다. 만약 북중관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면 중국은 단독 철군 결정을 곧바로 북한에게 알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양국관계의 긴장 완화를 유도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란드 헝가리 사태를 거치면서 북중관계가 오히려 밀착되어 갔다. 북중이 폴란드 헝가리 사태의 '반혁명성'에 경각심을 나타내면서 북중관계의 결속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중소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고, 헝가리 사태의 반혁명성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북중관계의 긴장이 폴란드 헝가리 사태를 배경으로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중국군 단독 철군 결정을 통보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중공은 북한과의 단결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서 1957년 11월 모스크바 회의를 선택하였다.

넷째, 중국이 8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선택한 이후 북중관계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었다. 북중 비대칭 관계의 완화는 북중 당제관계의 변화에서 확인될 수 있다. 중국이 8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선택한 이후, 중국공산당은 '형제당'인 조선로동당의 내부 사무에 단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전에 비하여 북중 당제관계가 약화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중 당제관계의 약화가 양국동맹 관계나 북중 간의 결속을 이완시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북중 양국은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의 견고한 동맹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였고, 오히려 북중 당제관계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북중 관계의 결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실시한 대북 유화정책으로 인해 북중 당제관계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북중 간의 갈등과 긴장

도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북중 동맹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중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결과적으로 북중관계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작용’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려준다.